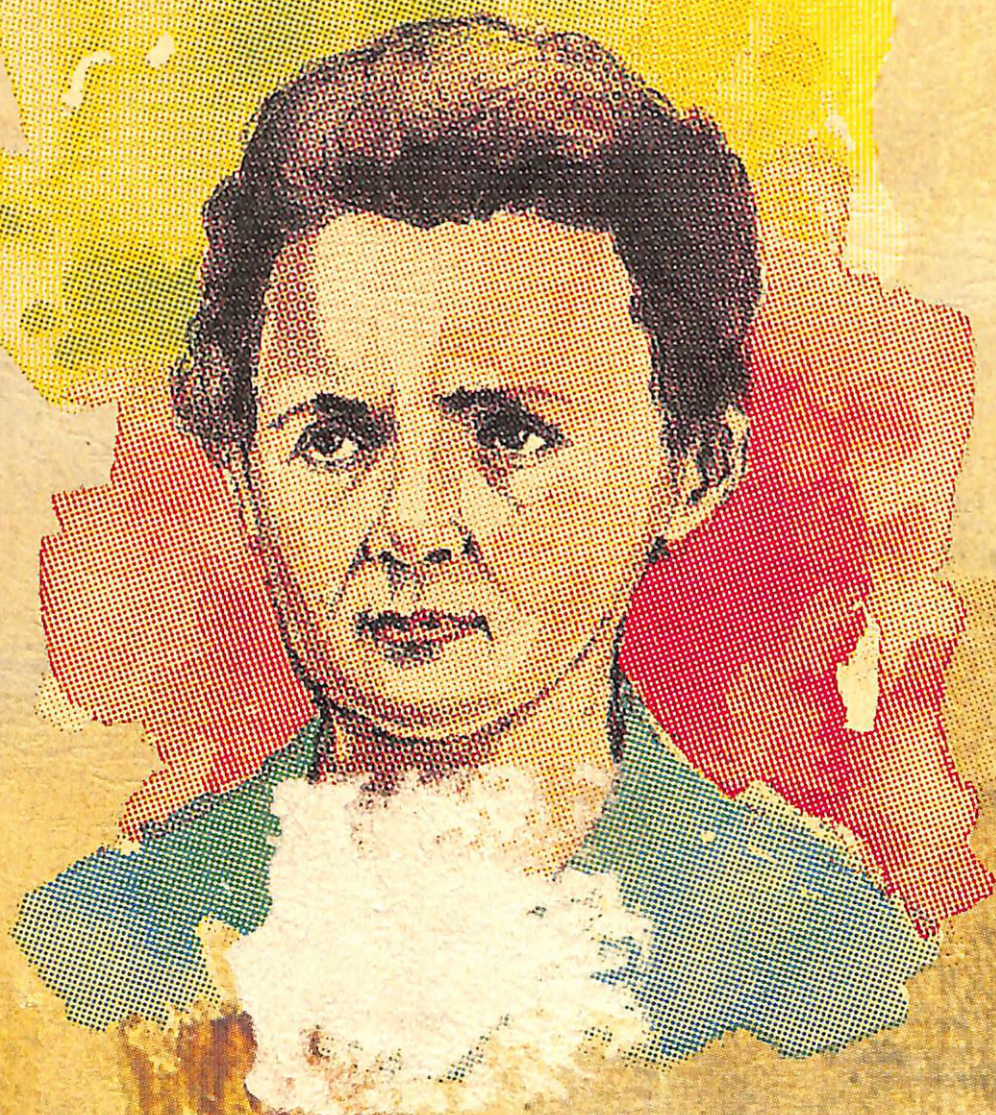


칼라판/소년소녀 위인전기 50

퀴리 부인

글 오 영 석
그림 전 호





삼국통일의 명장
① 김 유 신



인류의 스승
② 그리스도



신라의 고승
③ 원 효 대사



항해 탐험가
④ 콜 롬 부스



고매한 문장가
⑨ 최 치 원



근대 교육의 창시자
⑩ 페스탈로찌



고려의 시조
⑪ 왕 건



천재 음악가
⑫ 모 짜 르 트



한국의 발명왕
⑬ 장 영 실



가곡의 왕
⑬ 슈베르트



조선 중기의 학자
⑬ 이 황



동화의 아버지
⑭ 안데르센



〈동의보감〉을 쓴
⑮ 허 준



아프리카의 탐험가
⑮ 리빙스턴



북학파의 영수
⑯ 박 지 원



농민을 그린 화가
⑯ 밀 레



서역을 토벌한
[5]고 선 지



자연 과학의 아버지
[6]갈릴레이



해상 무역의 왕
[7]장 보 고



근대 과학의 건실자
[8]뉴 우 틴



목화씨를 들여 온
[13]문 익 접



유럽을 정복한
[14]나폴레옹



위대한 임금
[15]세종대왕



악성
[16]베에토벤



여성의 귀감
[21]신사임당



노예 해방의 대통령
[22]링 킨



해적을 무찌른 성웅
[23]이 순 신



진화론의 창시자
[24]다 아 윈



천재 화가
[29]김 홍 도



민주주의의 시인
[30]휘 트 먼



실학의 거두
[31]정 약 용



백의의 천사
[32]나이팅게일

칼라판/소년소녀 위인전기 50

귀려 부인

글 윤영석
그림 옥천

10002665



금성출판사



머 리 말

퀴리 부인은 폴란드의 서울 바르샤바에서 태어났습니다. 워낙 머리가 좋은 그녀는 학교에서 월반을 했으며, 항상 우등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집안이 가난하여 어릴 때부터 남의 집 아이들을 가르치는 가정 교사를 했습니다. 혼자 눈물도 많이 흘렸으며 괴롭고 힘든 생활을 해 나갔습니다.

그 당시 폴란드는 러시아, 도이칠란트, 오스트리아의 침략을 받는 불행한 처지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프랑스의 서울 파리로



가서 공부를 계속하였습니다.

그녀는 유명한 소르본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했고, 물리학 학사 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습니다.

피에르와 결혼하여, 피치블렌드 광석의 분석을 시작하여 부부가 공동으로 연구한 끝에, 거기에 함유되어 있는 두 원소를 발견하여 <폴로늄>과 <라듐>이라 이름 붙였습니다.

1903년, 남편 피에르와 함께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고, 남편이 죽은 뒤 라듐을 분석하는 법을 연구하여 1911년에 다시 노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어두운 실험실 안에 여기저기 놓아 둔 작은 유리 접시에는 파르스름하고 희미한 빛이 점점이 빛나고 있습니다.

(본문 98페이지에서)







차 례

폴란드의 학교.....	8
의좋은 형제.....	21
시골에서 1년 동안 지내다.....	28
언니와 한 약속.....	33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다.....	46
드디어 파리로.....	54
연구하는 피에르 퀴리.....	66
퀴리 부인이 되다.....	69
뭔가 있다, 이상한데?.....	75



까다롭고 힘든 실험.....	82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	96
라듐은 모든 사람의 것.....	100
슬픔은 4 월 19일.....	107
첫번째 강의.....	114
두 번째의 노벨상.....	117
세계 대전 때 활약하다.....	128
빛나는 해외 여행.....	137
최후까지 연구, 또 연구.....	145
해설 · 연표.....	154
■역사 인물 사전.....	161



폴란드의 학교

“아줌마, 나 이번에 학교에 가게 됐어요.”

“어머, 축하한다. 잠시 못 봤더니 많이 컸구나, 어느 학교지?”

“언니와 같은 시코르스카 학교여요. 아줌마, 학교에 가면 책을 읽어도 괜찮지요? 엄마한테 야단맞지 않지요?”

마니아가 들어간 국민 학교는 시코르스카 선생님이 교장으로 계시는 사립 학교였습니다. 언니도 다니고 있는, 여자만 다니는 규율이 엄한 좋은 학교였습니다. 제복은 흰 칼러가 달린 감색 세일러 복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아래로 내려뜨려 땀은, 아주 예쁜 1학년생이 되었습니다. 마니아는 학교가 신나고 즐거워 야단이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의중게 지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책을 읽어도 괜찮지요?”

하고 이웃 아줌마에게 말한 마니아는, 어릴 때 책 읽는 것을 금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니아가 서너 살 때 학교에 갓 들어간 언니가 선생님 흉내를 내며 어린 마니아를 상대로 학교놀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주일인가 지나서, 부모님이 마니아의 언니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보려고 언니더러 책을 읽게 했습니다.





폴란드의 학교

“아쭈마, 나 이번에 학교에 가게 됐어요.”

“어머, 축하한다. 잠시 못 봤더니 많이 컸구나, 어느 학교지?”

“언니와 같은 시코르스카 학교예요. 아쭈마, 학교에 가면 책을 읽어도 괜찮지요? 엄마한테 야단맞지 않지요?”

마니아가 들어간 국민 학교는 시코르스카 선생님이 교장으로 계시는 사립 학교였습니다. 언니도 다니고 있는, 여자만 다니는 규율이 엄한 좋은 학교였습니다. 제복은 흰 칼러가 달린 검색 세일러 복이었습니다. 긴 머리를 아래로 내려뜨려 땀은, 아주 예쁜

1학년생이 되었습니다. 마니아는

학교가 신나고 즐거워 야단이

었습니다. 친구들과도

의종게 지냈습니다.

책도 많이

읽었습

니다.



“학교에 가면 책을 읽어도 괜찮지요?”

하고 이웃 아줌마에게 말한 마니아는, 어릴 때 책 읽는 것을 금지당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마니아가 서너 살 때 학교에 갓 들어간 언니가 선생님 흉내를 내며 어린 마니아를 상대로 학교놀이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몇 주일인가 지나서, 부모님이 마니아의 언니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보려고 언니더러 책을 읽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힘차게 읽어 나갔지만, 곧 막혀 버렸습니다. 그 때, 곁에 있던 마니아가 그 책을 언니한테서 뺏더니 술술 읽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책장을 넘기며 자꾸자꾸 읽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마니아는 불안한 입을 다물었습니다. 어안이병병해하는 부모님과 화가 난 언니의 얼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미안해요. 나, 언니를 꺾려 주려고 한 짓이 아니고,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게 재미가 나서 그랬어요. 미안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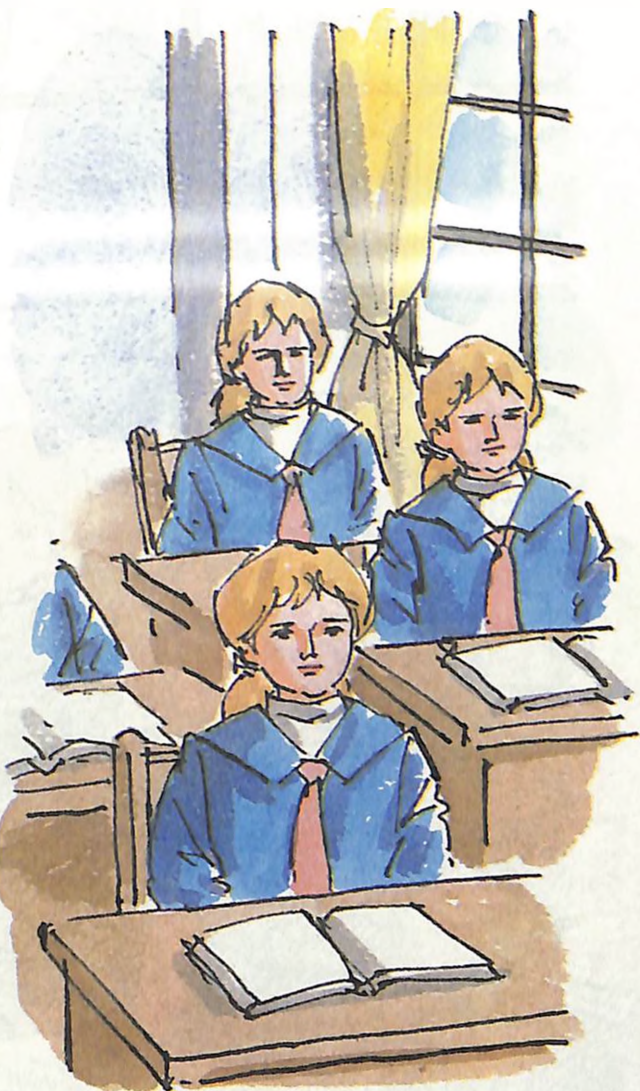
마니아는 울면서, 책을 언니에게 돌려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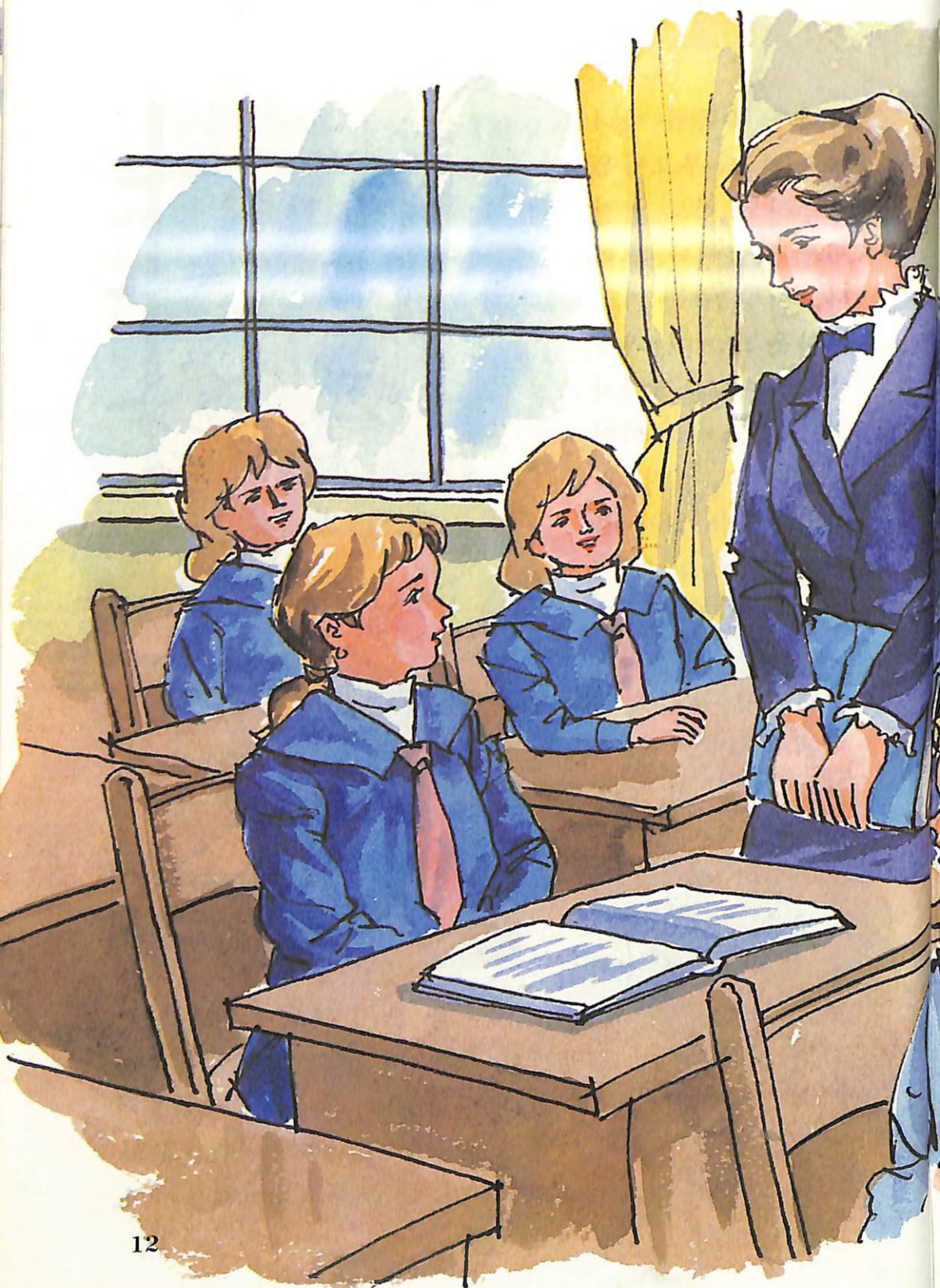


너무 똑똑한 마니아를 보고, 부모님은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는 어린이다운 놀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자깅스러운 아이를 만들고 싶지 않아서, 책을 읽지 못하게 하고 밖에 나가 놀도록 했습니다.

이윽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학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공부는 아주 잘 했습니다. 성적이 좋아서 2학년이 될 때, 1학년을 건너뛰어 바로 3학년으로 월반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월반을 했기 때문에, 마니아보다 나이가 두 살 많은 아이들이 있는 학급에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학급에서도 우등생이었습니다. 특히 산수를 좋아하여 성적이 뛰어났습니다. 문학, 역사, 프랑스어, 도이칠란트어 등 모두 1등이었습니다.







어느 날, 역사 시간 때 일어난 일입니다. 역사 선생님은 튜프찌 아라는 여선생이었는데, 모두들 그를 좋아하였습니다.

선생님은 폴란드 어로 수업을 하셨습니다.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전의 폴란드 왕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 봐요.”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는 마니아의 조국인 폴란드 식의 이름입니다.

“예, 그분은 머리가 좋은 임금님으로서, 예술가와 시인을 대단히 중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나라를 문화가 발달된 훌륭한 나라로 만들려고 하셨지만, 쳐들어오는 강한 적에 대해서는 좀 용기가 없는 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니아도 폴란드 어로 대답했습니다. 폴란드 학교에서 폴란드 사람인 선생과 학생이 폴란드 어로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그런데, 이 때의 폴란드는



이웃 나라한테 침략을 당하여 전쟁에 져서 러시아(지금의 소련)가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의 관리가 폴란드 어 공부나 폴란드 역사를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금지시켰습니다.

왕이 용기가 없었기 때문에, 전쟁에 졌다는 것은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것을 마니아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왕이 좀더 현명하여 국민의 앞장을 섰더라면 폴란드는 외국의 지배를 받지 않게 되었을 텐데.’

선생도 학생도 몰래 자기 나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폴란드가 전쟁에 진 일을 생각하니, 슬퍼져서 교실 안이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습니다.

그 때,

‘찌링! 찌링!’ 하고 별안간 벨이 울렸습니다. 수업이 끝나는 신호가 아닙니다. 짧고 빠르게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도 그만 긴장했습니다. 러시아의 관리가 찾아온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폴란드어로 된 역사책을 얼른 쌓아 올렸습니다. 25명의 학생은 자기 책과 노트를 책상 위에 내놓았습니다. 곧 학생 5명이 책과 노트를 모두 모아 들고 급히 교실에서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학생들은 재봉 도구를 꺼냈습니다. 흰 천도 꺼내서 단춧구멍을 감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5명의 당번 책상 위에도 천과 도구가 놓여 있었습니다. 당번들이 돌아와서 눈으로 선생님에게 신호를 했습니다.

‘선생님, 잘 봐 두었습니다. 걱정 없습니다.’



‘고맙다. 아직 관리는 오지 않았어. 잘 됐어.’

“여러분, 단춧구멍을 감치는 일은 귀찮은 일이지만, 양복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에요. 예쁘게 감쳐야 합니다.”

모두 그전부터 재봉을 하고 있었던 것처럼 침착한 태도가 되었습니다. 튜프찌아 선생님은 ‘잘 됐어. 이후에도 잘들 해야 한다’ 하고 빌면서 책상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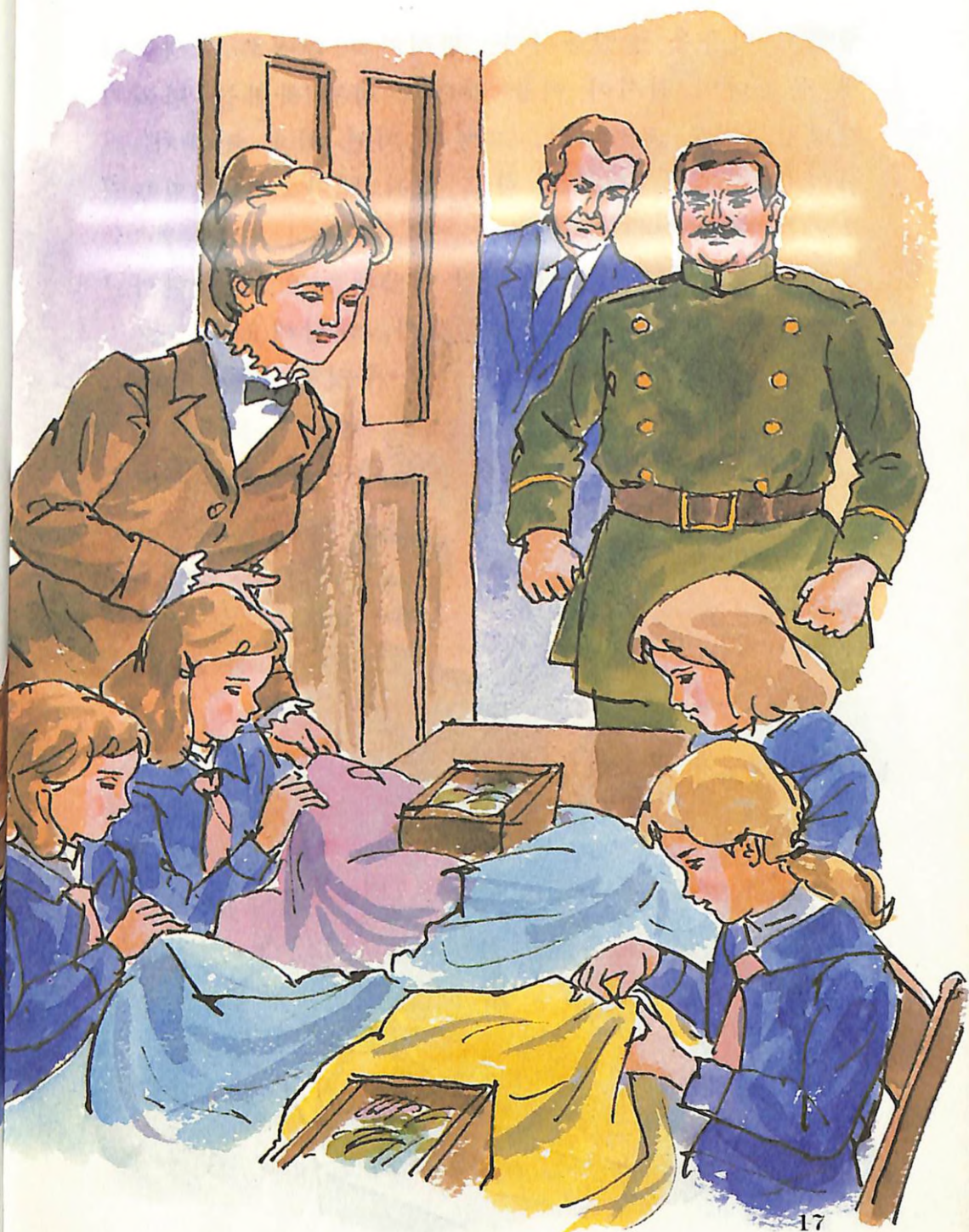
문이 열리더니, 크고 뚱뚱한 러시아 관리가 들어왔습니다. 뒤에는 걱정스런 얼굴을 한 시코르스카 교장 선생님이 따르고 있었습니다. 러시아 어의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지, 조사하러 관리가 갑자기 온 것입니다. 교장의 안내보다도 빨리 교실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공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모국어(폴란드 어)를 수업하다가, 만일 들키면 큰일입니다.

교장 선생님은 그 학급에서 잘 감췄는지 걱정이 되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마니아는, ‘또 선생님이 나를 지명하겠지, 싫은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왜냐 하면, 학교를 견학하러 오는 사람이 있으면 선생님은 곧잘 마니아를 지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은 똑똑하고 성적이 우수한 아이를 지명하는 법입니다.

“선생, 내가 질문을 할 테니까 누군가 대답할 학생을 정해 주시오.”

하고 관리가 말했습니다. 교장 선생님도 튜프찌아 선



생님도 마음을 놓았습니다. 관리가 마음대로 학생들에게 묻는다면 러시아어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가 지명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전체가 러시아어 공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할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마니아, 미안해. 오늘도 잘 대답해 다오. 부탁한다.’

“그러면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대답해요.”

‘아! 역시 내가 지명되었구나. 무엇을 물을지 몰라. 수학이라면 좋겠는데.’

“매일 외는 기도문을 말해 봐요.”

마니아는 러시아어로
공손히 외었
습니다.



“우리 러시아 제국의 황제 이름을 순서대로 말해 보아요.”

“에카테리나 2 세, 파울 1세, 알렉산드르 1세, 니콜라이 1 세…….”

처음부터 러시아 학교에 다닌 학생처럼 유창한 러시아어로 척척 암송했습니다.

“좋아. 러시아어를 썩 잘 하는구면. 그럼 지금 우리 나라를 다스리고 있는 분은?”

전쟁에 진 폴란드를, 전쟁에 이긴 러시아가 다스리고 있습니다.

‘러시아 말을 사용하라. 러시아에 관한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억누르고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 분해서, 마니아는 얼른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래. 지금 다스리고 있는 분말이야.”
하고 관리는 안달이 나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마니아는 파랗게 질려 말을 더듬으며 대답했습니다.

“러시아 전체의 황제이신 알렉산드르 2세 폐하입니다.”

관리는 학생의 책상 뚜껑을 열어 보고, 폴란드 어 공부는 전혀 하지 않은 것을 알고는 인사도 하지 않고 교실에서 나갔습니다. 그제야 모두들 마음을 놓았습니다.

선생님은 한동안 멍하니 그 자리에 서 계시다가, 제 정신으로 돌아온 듯 마니아 곁으로 다가가서,

“마니아, 정말 침착하게 잘 해 주었어. 너 때문에 우리 모두 아무 일 없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마니아는 울음을 터뜨리며 선생님 품에 안겼습니다. 선생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언제까지나 마니아를 꼭 껴안고 계셨습니다.





의좋은 형제

러시아가 다스리고 있는 폴란드에서, 억압을 당하면서 괴로운 공부를 하고 있는 마니아가 나중에 프랑스의 파리에 있는 대학에서 공부를 하여, 라둡을 발견한 마리 퀴리 부인입니다.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즉 퀴리 부인은 1867년 11월 7일에,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스클로도프스카 집안의 5남매 가운데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제일 위는 소니라는 언니였는데, 모두들 조샤라는 별명으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둘째 언니인 브로니스라와의 별명은 브로냐이고, 셋째 언니 헬레나는 헬라라는 별명으로 불렸고, 조세프라는 이름의 오빠가 한 사람 있었는데, 조지오라는 별명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막내이므로, 귀여움을 받는 마리아는 늘 마니아라고 불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중학교의 과학 선생인데, 장학관이기도 했기 때문에 학교 안에 있는 관사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일요일이 되면 학교는 쓸쓸하고 조용한 법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이 많은 스클로도프스카 선생의 집에서 아이들의 기운찬 목소리가 계속 들려 옵니다.

“헬라, 구슬이 다 떨어졌어.”

“전물을 겨냥해, 조지오. 저 높은 탑을 겨냥해야 하는 거야.”

“마니아, 비켜. 방해가 돼.”

“어머나, 난 지금 그 쪽으로 구슬을 가지러 가는 길이야.”

아홉 살 난 조지오를 선두로 하여, 아래로 네 남매가 장난감 나무를 쌓아 올려 집을 지은 것을 진지로 삼고 전쟁놀이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맏이인 조샤가 방 안에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이제 그만 하래. 마니아, 산책하러 가자.”

브로냐와 조지오한테 따돌림을 받고 있는 마니아는 좋아라고 하며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조샤 언니와 산책을 하면 멀리까지 가기 때문에 제일 좋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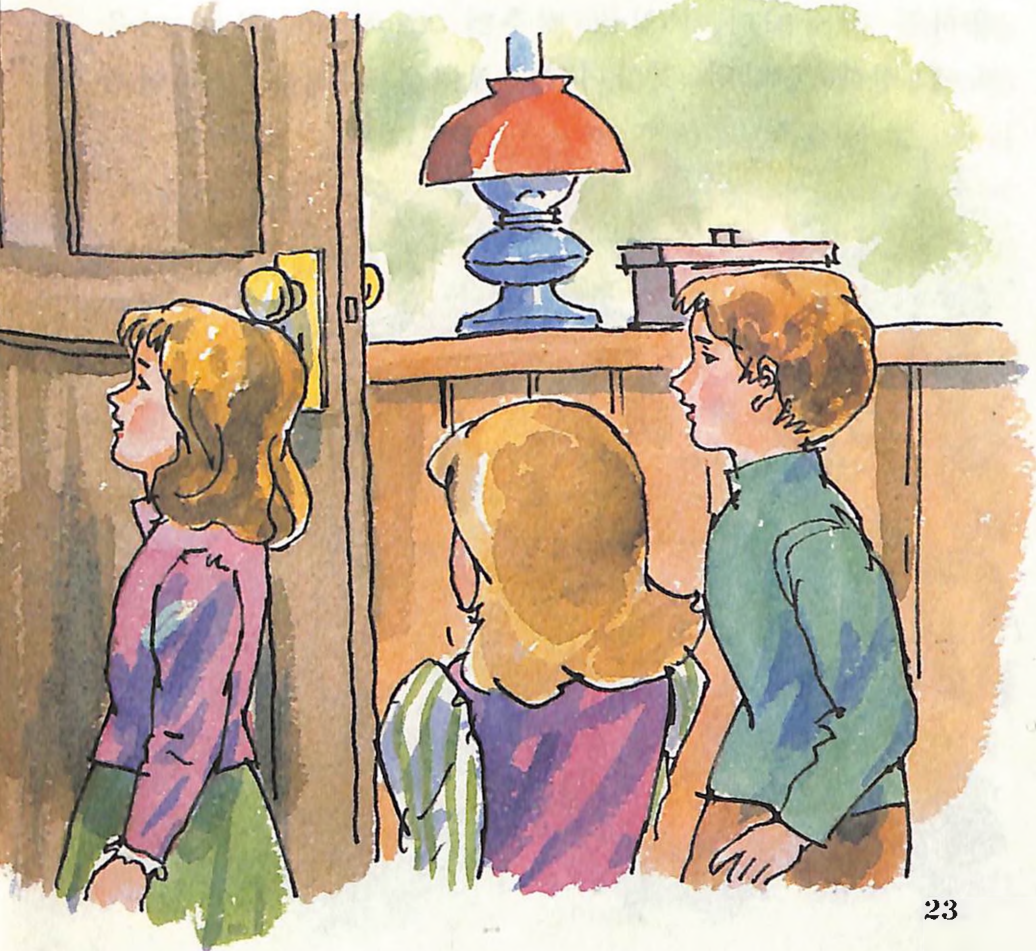
이 조샤 언니는 이야기를 잘 했습니다. 옛날 이야기는 물론, 요즈음 이야기도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모두들 큰 소리로 웃기도 하고, 무서워서 귀를 막기도 하면서 조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낮에 놀 때도, 저녁 식사 때 이 얘기 저 얘기를 하는 것도 조샤가 중심이 되었는데, 웃음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도 그것을 조용히 지켜 보고 계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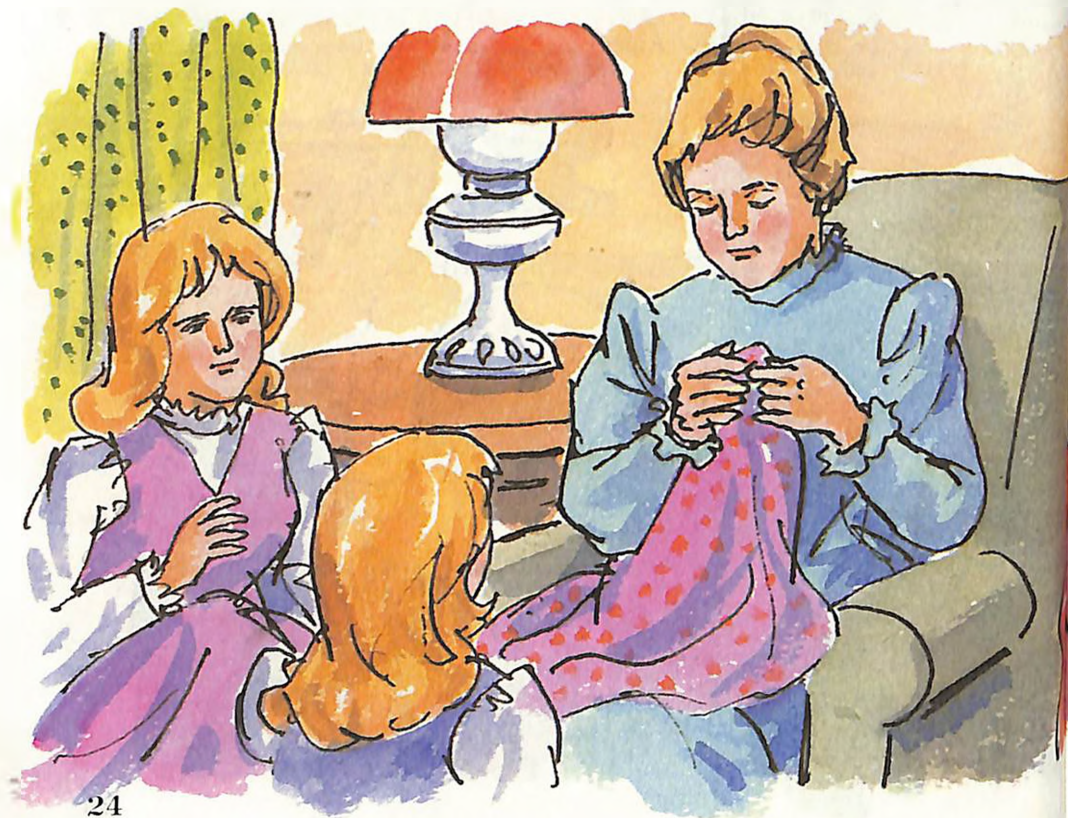
어머니는 아름답고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에는 학교 선생님이로 계셨는데, 아이를 기르면서 직장에 다녔기 때문에 몹시 지쳐서, 마니아가 태어났을 무렵부터 자주 앓게 되었습니다. 세탁이나 청소 같은 힘든 일은 딴 사람에게 부탁하고, 조용히 의자에 앉아 지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조사 언니는 어머니 대신 부지런히 일을 하였습니다.

어머니는 의자에 앉아 지내면서도, 아이들의 양말 같은 것을 짚습니다. 성품이 깔끔해서 몸차림을 늘 깨끗



이 하고, 항상 웃음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마니아는 어머니가 병에 걸린 것을 커서 철이 들 때까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어쩐지 이상하다’ 하고 생각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니아가 ‘안녕히 주무셔요.’ 하고 인사를 했을 때, 어머니는 손을 잡든지 이마를 정답게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어머니가 아이들의 볼에 입을 맞추기도 하고, 끌어안기도 하는데’ 하고 마니아는 늘 쓸쓸하게 여겼습니다. 어머니는 입에서 병이 옮지 않게 그릇 같은 것도 따로 사용하곤 했습니다. ‘입을 맞추면 안 된다’ 하고 마음 속에 정해 놓았던 것입니다. 귀여운 자식을 끌어안을



수 없는 것은 어머니로서는 무척 슬픈 일이었습니다.

폴란드를 사랑하고 있는 아버지는 학교에서 학생이 가끔 폴란드어로 과학 공부를 하는 것을 눈감아 주고 계셨습니다. 러시아 사람인 교장은 그것이 못마땅해서 관리에게 일러바쳐, 아버지로 하여금 부장학관을 그만 두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관사에서 나오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시내의 집을 한 채 빌어 살게 되었는데, 생활이 곤란했기 때문에 학생들을 하숙시켰습니다. 밤에는 아버지가 공부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점점 학생들이 늘어나 많은 하숙생이 모여들었습니다. 형제들이 쓰는 방은 식당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아침에는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식사 준비를 하느라고 야단법석이었습니다. 저녁을 먹은 다음에는 어느 방에나 책

상마다 학생들이 앉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환경이 아주 좋았습니다.

책을 읽는 사람, 떠들썩하게 시를 낭독하는 사람, 계산을 하는 사람, 그림을 그리는 사람, 재미있는 얘기를 나누는 사람 등 청년들이 가득 찬 집 안은 시끄러운 가운데에서도 활기가 넘치고 명랑했습니다. 가난하지만 보람 있는 하루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곤란한 일이 생겼습니다. 어머니처럼 돌봐 주던 언니 조샤와 브로냐가 함께 장티푸스에 걸렸습니다. 하숙생으로부터 병이 전염되었습니다. 높은 열에 시달리다가, 마침내 조샤가 열 일곱 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은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처럼 허전했습니다.

낙심을 한 어머니는 그 후, 아주 몸져 누게 되었습니다. 그 무렵, 어머니의 형제가 제분 공장을 차릴 자금을 빌려 왔습니다. 사람이 좋은 아버지는, 어머니가 친정 일이므로 미안해서 반대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모아 둔 돈을 어머니 몰래 빌려 주셨습니다. 그러나 제분 공장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려 준 돈은 전혀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가족들에게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고
비관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조사가 세상을 떠난 지 2년 뒤인, 마니아가 열 한 살 되는 해에 마침내 어머니도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사람을 잘 웃기고 장난을 좋아하고 명랑한 조사 언니. 두 사람이 없어진 스클로도프스카 집안은 그만 슬픔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하숙 치는 일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밤에는 전부터 하고 있는 것처럼 집안 식구들이 한데 모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며, 서로 격려하는 조용한 생활로 되돌아갔습니다.





시골에서 1년 동안 지내다

공부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글을 배우는 공부, 그림 공부, 음악 공부, 과학 공부, 예절 공부 등.

마니아는 시코르스카 사립 학교에서 폴란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좋은가 하는, 폴란드 사람의 마음가짐을 공부한 셈이 됩니다.



국립인 클라코 여학교에 진학한 후에도 공부를 잘 하였습니다. 1883년에 졸업하게 되었을 때, 우등상으로 금 메달을 탔습니다. 브로냐, 조지오, 그리고 마니아, 이렇게 세 사람이 금 메달을 탔기 때문에, 스클로도프스카 집안에는 금 메달을 3 개나 걸어 놓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이들이 건강하고 의종고, 공부를 잘 하기 때문에 몹시 기뻐하셨습니다. 모두 착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욱 가슴아픈 것은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난 일과 저금을 써 버린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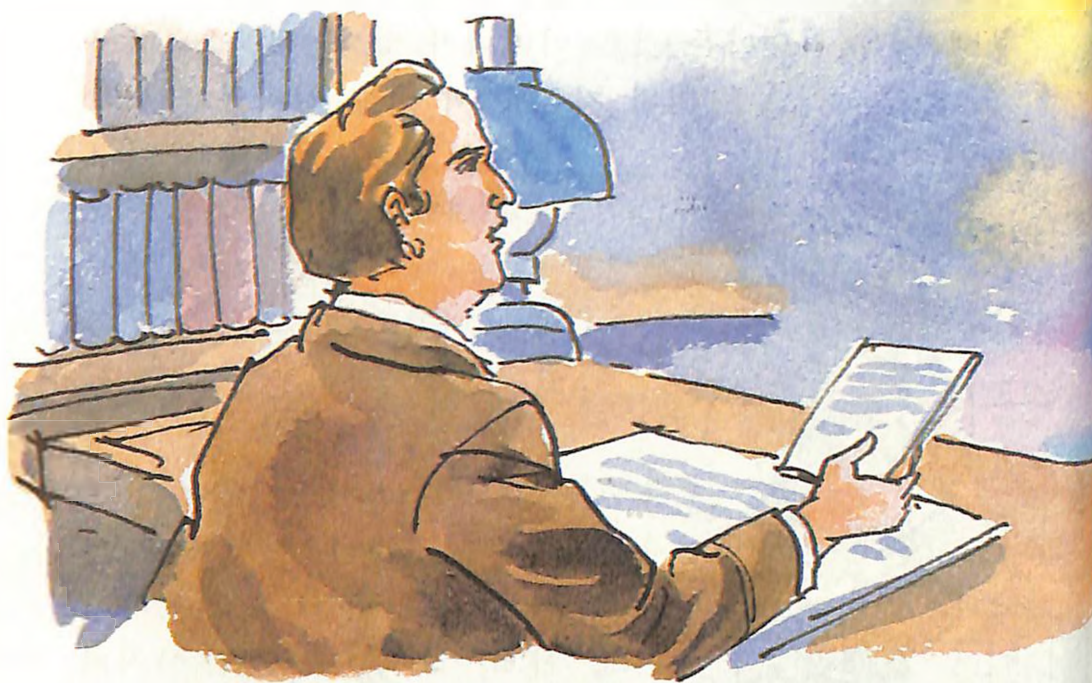
“미안하구나. 브로냐나 마니아도 대학에 가고 싶겠지. 아버지는 너희들을 모두 대학에 보내려고 돈도 모아 두었는데.”

“아버지, 괜찮아요. 우리 집 형편으로 봐서는 조지오 오빠가 바르샤바 대학에서 의학 공부를 하는 것도 벅차잖아요. 없어진 저금도 아버지가 쓰신 게 아니고, 외삼촌이 쓰신 것 아니요. 그런 생각을 자꾸 하지 마세요.”

“남에게 돈을 빌려 줘서 늘릴 생각을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정말 미안하구나.”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부터 몸과 마음이 약해진 아버지를 자매는 마음이 닿는 데까지 위로하였습니다.

어느 날 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면서 마니아를 불렀습니다. 아버지 책상 위에는 봉투를 뜯은 편지가 두 세 통 놓여 있었습니다.



“마니아, 우등을 한 상으로 시골에 가서 놀다 오너라. 네가 시골에 와서 어린 이종사촌들과 놀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네 이모들이 편지를 보냈구나.” 하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마니아가 머리가 좋고, 게다가 공부를 열



심히 하여 친구들보다 2년이나 빨리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1년쯤은 마음껏 쉬고, 시골의 자연 속에서 마음이 넓어지도록 시골에 보낸 것이었습니다.

여학교 친구인 카아자에게, 시골에서 자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것을 보면, 시골의 하루하루가 얼마나 재미있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꼬마 남자아이에게 프랑스어를 한 시간만 가르치면 되는 거야. 대수도 화학도 다 잊어버렸지 뭐야. 자수도 하다가 그대로 팽개칠 정도로 게을러졌단다. 정해 놓고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10시에 일어나기도 하고, 어떤 때는 4 시나 5 시에 일어나기도 한단다. 좋은 책은 하나도 안 읽고 시시한 소설만 읽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바보가 되고 말았단다. 이종사촌과 숲에 가서 굴렁쇠를 굴리기도 하고, 배드민턴을 치기도 하고, 그네도 힘차게 뛰어 천장만큼 높이 올라간단다. 기분이 아주 좋단다. 밤에 횃불을 켜 들고 가재를 잡으러 갔었어. 나 말이야, 한 집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아버지 친척, 어머니 친척이 많아서 <바르샤바의 사촌>이라고 하며 귀여워해 준단다. 나는 사촌이나 이종사촌 형제들의 공부 상대야. 요 얼마 전에는 말을 타고 멀리까지 가기도 하고(말을 탈 수 있게 됐단다, 정말이야.), 밤에는 아저씨의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시골의 축제도 재미있었어.」

그 무렵, 여자는 바르샤바 대학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가 대학 공부를 하려면 프랑스 등 외국에 유학을 가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브로냐는 의학, 마니아는 물리 공부를 하고 싶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는 차마 말 씀드릴 수 없었습니다.



언니와 한 약속

“아버지, 브로나 언니를 파리로 유학을 보냈으면 좋겠어요.”

“글쎄, 아버지도 전에는 보내려고 생각했지만, 지금은 돈이 없구나.”

시골에서 돌아온 마니아가 어느 날 밤 불쑥 이런 말을 꺼냈기 때문에, 아버지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마니아는 전에 브로나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언니, 언니가 지금까지 저금한 돈으로 파리에서 몇 달쯤 지낼 수 있어요?”

“뭐라고? 내 저금은 아직 얼마 안 돼. 기차삐와



1 년간의 학비 정도나 될까 몰라. 내가 가고 싶은 의학부는 5 년이나 걸리는걸.”

“언니, 그것으로 파리로 가요. 난 지금 좋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 계획에 찬성하세요.”

“계획이라니? 무슨 계획이지?”

“우리 둘이 서로 돕는 거예요. 둘이 따로따로 자기 일만 생각하고 저금하고 있다가는 점점 나이가 들어들 다 유학을 못 하고 말아요. 처음에 언니가 저금해 놓은 돈으로 파리로 가는 거예요. 그 뒤는 내가 가정 교사 노릇을 해서 파리로 돈을 보낼게요. 가정 교사를 하는 집에서 먹고 자고 하면 월급이 고스란히 남잖아요. 언니가 졸업을 하고 나면 이번엔 내가 가면 되잖아요. 그 때는 언니, 잘 부탁해요.”

“어머나, 마니아, 그렇게까지 생각해 주니 정말 고맙다.”

브로냐는 감격했습니다. 남의 집에서 살면서 가정 교사 노릇을 하는 것은 괴롭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언니를 위해 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왜 내가 먼저 가니. 너를 희생시키면서까지 나만 공부하다니. 그런데 마니아, 너는 나보다 머리가 좋잖니. 그러니까 네가 먼저 유학을 해라. 너는 나보다 빨리 성공할 거야.”

“언니!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언니는 스무 살이고 나는 아직 열 일곱 살밖에 안 되었잖아요. 더구나 언

나는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집안일만 해서 자기 공부는 못 했잖아요. 오랫동안 기다린 사람이 먼저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아버지도 같은 생각일 거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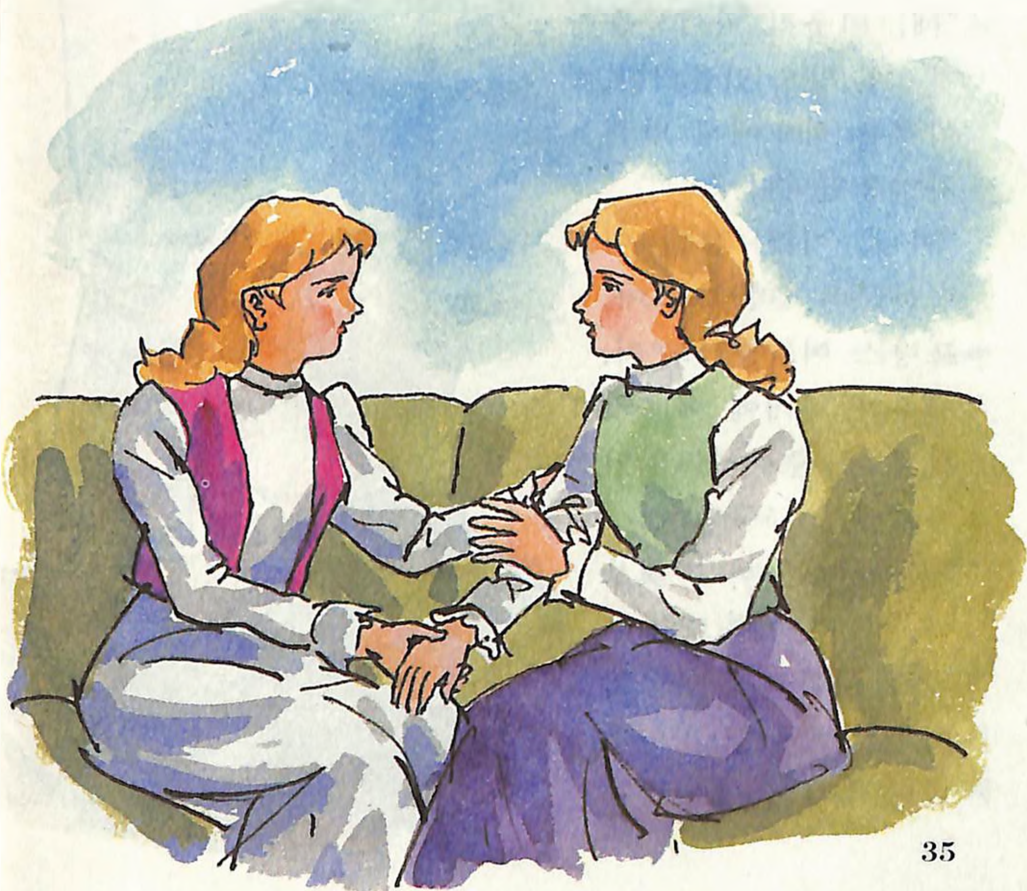
“고맙다, 마니아.”

“뭘요. 우리 자매니까 서로 도우며 살아야죠 뭐.”

“그래, 네 말이 맞다. 서로 도우며 살아야지.”

“언니, 파리에 가거든 열심히 공부해서 훌륭한 의사가 되세요. 난 언니가 의사가 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어요.”

“그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할게.”





가정 교사

마니아는 두 벌밖에 없는 외출복 가운데 수수한 것을 입고, 머리도 어른스럽게 하고는 직업 소개소를 찾아갔습니다.

“희망은? 무슨 일이 좋겠어요?”

“가정 교사 자리가 없습니까?”

“이력서를 보여 주세요.”

“예, 이웃집 아이들을 가르친 일도 있습니다. 이것은 학교에서 받은 자격증입니다.”

“아니, 이걸 정말 대단하군요. 러시아 어, 프랑스 어, 폴란드 어, 게다가 영어에 이르기까지 할 줄 안단 말인가요?”

“예, 영어는 다른 것보다 약간 서투르지만. 국립 여학교를 졸업할 때 금 메달을 받았습니다.”



“훌륭한데. 월급은 어느 정도 희망하나요?”

“그 집에서 먹고 자고 1년에 400루우블리쯤 받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은 뭘 하고 계신가요?”

“아버지는 중학교 교사입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셨읍니다.”

“아가씨는 올해 몇 살이지요.”

마니아는 이런 질문을 받고, 혹시 어린 사람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그래서 마니아는 곧,
“이제 곧 열 여덟 살이 됩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계원은 카아드에 예쁜 글씨로 적어 넣었습니다.

마리아 스클로도프스카 17세.

학력 우수, 재능 풍부.
희망 가정 교사.

마니아의 일자리는 곧 결정되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남의 집에서 지



내면서 일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아이인지 몰라도 공부를 잘 가르쳐 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갔지만, 이 집은 순진한 마니아에게 실망만 안겨 주었습니다. 그 집은 손님이 오면 갑자기 고상한 체하고 프랑스어를 사용합니다. 심부름꾼은 5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인 아주머니는 그 심부름꾼의 월급조차 가끔 잊어버리는 깔끔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집 안에 켜는 램프의 석유나 하찮은 것에 대해서는 인색하게 굴면서도, 허영심이 많아 비싼 것을 마구 사들이고, 계획성 없이 낭비를 하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서로가 돕는 우애 속에서 일하는 것이 존귀하다는 것을 알고 자라 온 마음씨 고운 마니아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집의 가정 교사를 그만두고 자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을 조금은 알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돈 때문에 버린 사람이 되는 것은 정말 한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고 마니아는 사촌인 앙리에트에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마니아는 언니에게 돈을 부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브로냐 언니는 벌써 파리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돈이 필요합니다.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골이라
도 좋으니, 정말로 공
부하고 싶어하는 아이
가 있는 집으로 갔으
면 하고 생각했습니다.
이번에는 아는 사람
이 권해서 바르샤바에
서 북쪽으로 100킬로
미터 떨어진 시튜기 마
울에 있는 제트(Z) 씨
네 집으로 가게 되었
습니다. 바르샤바를 떠
나야 합니다. 몹시 걱
정이 되었습니다.

마니아가 출발한 것
은 1 월이었습니다. 아
침부터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계
세요.”

“마니아야, 너야말로
몸조심을 해라.”

마차에 탄 마니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전
송하는 아버지에게 웃



는 얼굴을 보였습니다. 헬라 언니가 정거장까지 전송을 나왔습니다.

“헬라 언니, 아버지를 잘 부탁해요.”

“그래, 집일은 걱정 마. 내가 네 몫과 파리에 있는 브로나 언니 몫까지 맡아서 아버지를 잘 보살펴 드릴 테니까.”

헬라 언니는 파리의 대학에 가겠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를 돌보며 음악 공부를 한다고 했습니다.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혼자 가는 여행입니다. 아버지를 다시 못 뵈는 것이나 아닌가 하고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눈이 내릴 것 같은 날씨여서
어둑어둑한 경치를 바라
보며,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읍
니다.

‘이번 집은 어떤지 몰라. 주인이 지난번의 그 집 같으면 정말 견디기 곤란한데.’

‘시골 사람은 정직하고 친절하다고 하니까, 틀림없이 좋은 사람일 거야. 겁내지 말아야지.’

‘내가 없을 때 아버님이 병이 나시지나 않을까.’

‘월급을 많이 준다기에 시골로 가기로 정했는데, 아버님이 더 걱정을 하시게 된 것은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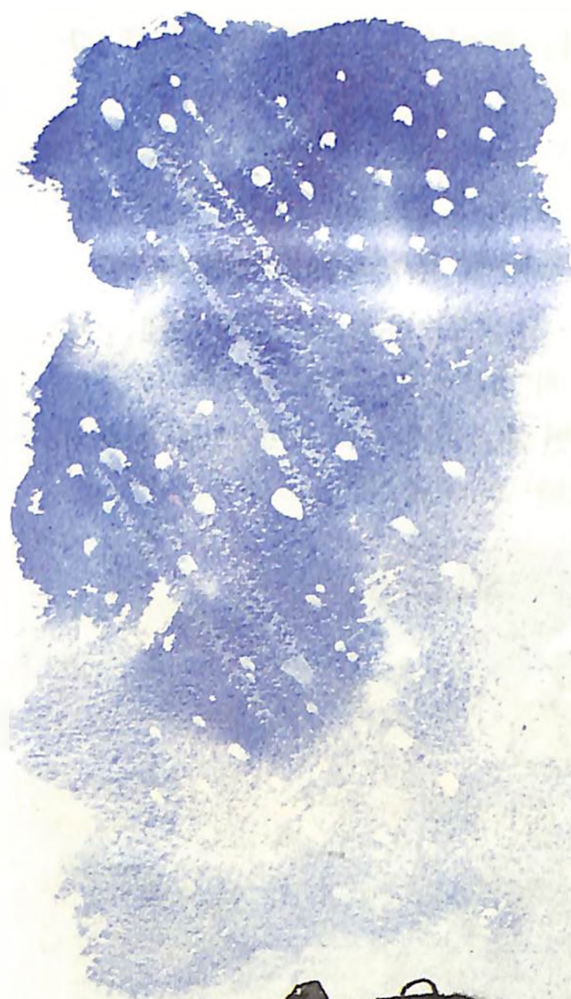
‘파리에 있는 브로냐 언니, 힘을 내세요. 아버지와 우리 집의 가족들을 지켜 주세요.’



아직 열 여덟 살밖에 안 된 나이이므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니까 자꾸만 눈물이 흘러 나왔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눈이 쌓인 들판. 기차로 3시간이나 시달린 다음 눈썰매를 타고 4시간이나 달렸습니다. 배는 고프고, 몸이 뽕뽕 얼어 버린 마니아는 언제까지 어두운 밤길을 달려야 하나 생각하니 서글퍼졌습니다. 겨우 시튜키 마을에 닿았습니다.

제트(Z) 씨네 집에서 문을 크게 열고, 온 집안 식구가 마니아를 반갑게 맞아 주었습니다.

“먼 길을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았겠어요.”



주인 아주머니가 정답게 말을 건네 주었습니다.

“처음 뵈겠습니다.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마니아는 공손히 인사를 했습니다.

키가 큰 주인도, 주인 아주머니와 함께 집을 받아 주었습니다. 친절한 사람인 것 같았습니다. 주인 아주머니 뒤에는 여러 아이들이 부끄러운 기색으로 목을 움츠리기도 하고, 발돋음을 하기도 하면서 신기한 듯이 마니아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추운 날씨에 혼자서 오랫동안 여행을 했기 때문에, 마니아는 지칠 대로 지쳐 있었지만, 제트 씨네 집안 사람들이 따뜻이 맞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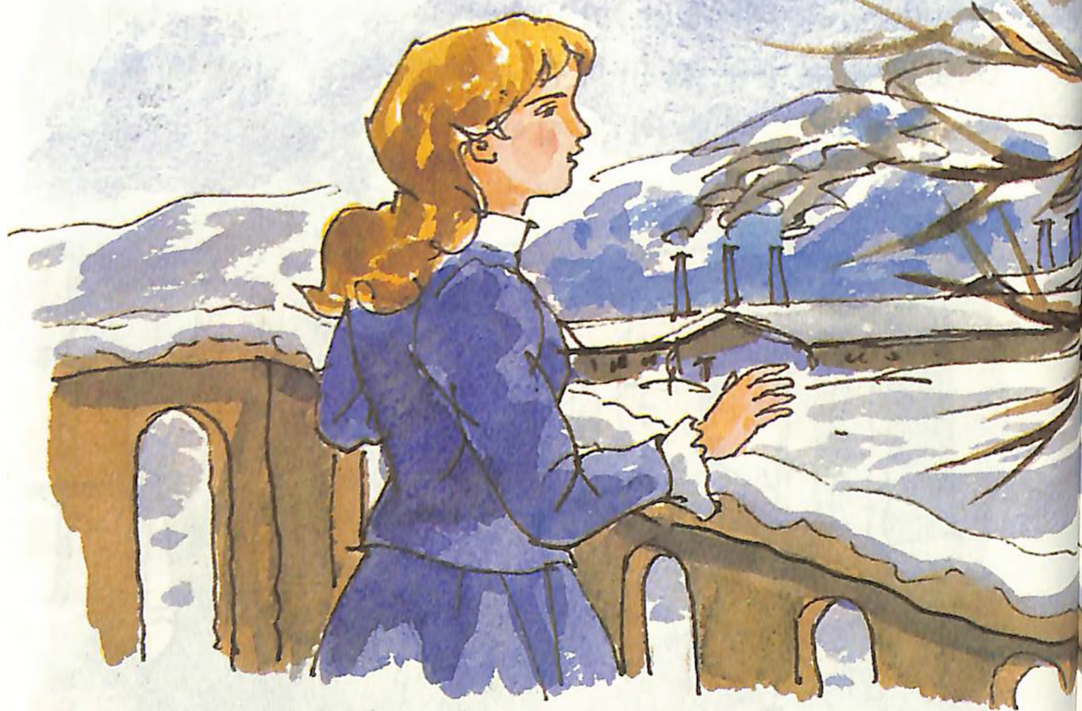


었으므로 마음이 놓였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마니아를 방으로 안내하고는 급히 뜨거운 차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기가 아가씨 방입니다. 피곤할 테니 이야기는 내일 하기로 해요.”

그 날 밤은 푹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니아는 방에 붙어 있는 발코니에 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눈이 쌓인 목장이나 숲 속에 있는 외딴 집 정도로 상상하고 왔는데, 주위에는 공장이 즐비하고 커다란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가 힘차게 오르고 있었습니다.



그 곳은
사탕무우의
산지였으며, 이
공장은 설탕을 만드는
공장이었습니다. 눈에 덮인
들판은 봄이 되면 사탕무우밭이 됩니다.

제트 씨네 집안은 밭이 200헥타아르나 되고, 말을
40마리, 암소 60마리를 먹이고 있어, 이 마을에서는
부자인 편이었습니다.

‘잘 왔구나. 모두 좋은 사람 같구나.’

마니아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동네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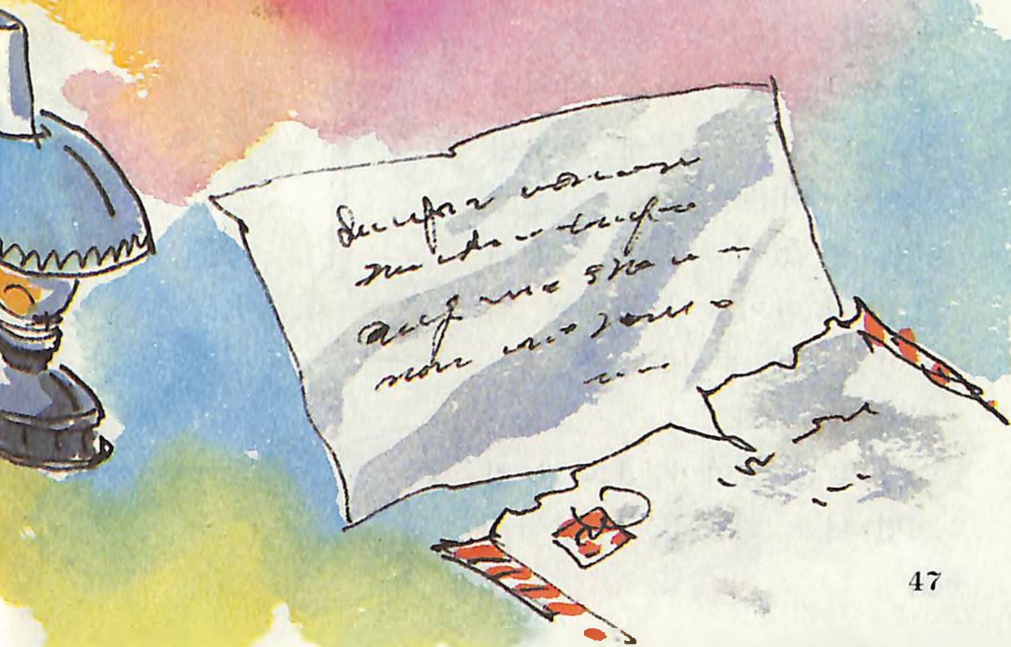
외토리가 된 젊은 가정 교사 마니아는 회답도 받고 싶었고, 바르샤바의 소식도 듣고 싶어 자주 편지를 썼읍니다. 아버지께, 오빠에게, 언니에게, 친구에게, 여럿 있는 사촌에게 자세히 편지를 썼읍니다. 이 편지들이 지금도 여러 통 남아 있습니다.



「제트 씨네 집에 온 지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이제 새로운 직장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제트 씨 부부는 좋은 분입니다. 브롱카라고 하는 딸과 친해져서, 덕분에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학생은 열 살 난 안지아라는 단정치 못한 응석꾸러기죠. 나는 하루 7시간 가르쳐 주기로 하고, 안지아에게 4시간, 브롱카에게 3시간씩 가르칩니다. 제트 씨네 집안은 자식 부자여서 아이들이 많습니다. 위로 세 아들은 바르샤바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집에는 열 여덟 살 난 브롱카와 열 살 난 안지아, 세 살 난 스타스와 그리고 갓난아기가 있습니다…….

마니아로부터, 사촌 앙리에트에게.

1885년 2월 3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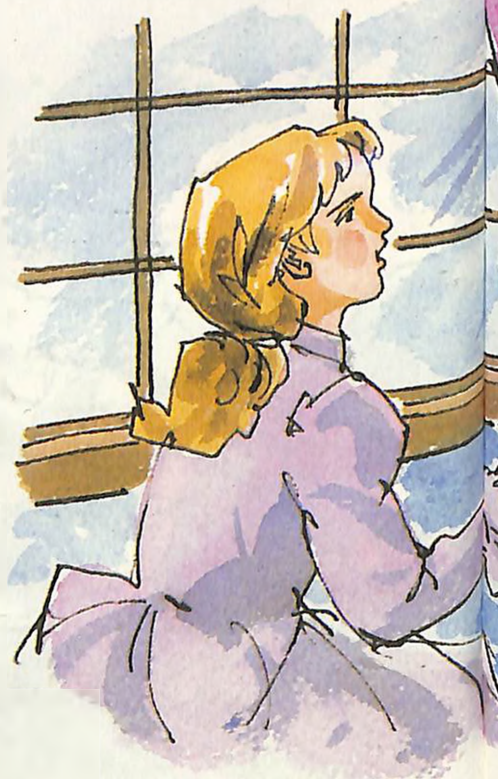
나이가 같은 브롱카와 친해진 것은 다행이었습니다. 마니아가 올 때까지 제일 큰누나로서 어린 동생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안지아는 잠꾸러기이고, 단정치 못하고 공부는 아주 싫어했고, 세 살 난 스타스는 장난꾸러기여서 꼴치를 앓고 있는 것을, 마니아가 대신 돌봐 주었기 때문에 한숨 돌렸다고 합니다. 이제는 독서도 할 수 있고, 무엇보다도 좋은 말동무가 생겨서 아주 기뻐했습니다. 주인티를 내는 법이 전혀 없고, 여러 가지로 의논 상대가 되어 주었습니다.

마니아가 이 고장에 와서 이상하게 여긴 것은 동네 아이들이 하루 종일 놀고만 있는 일이었습니다. 마니아가 브롱카에게 그 까닭을 물어 봤습니다.

“학교가 싫어서야. 학교에 가면 답답하대. 그리고 학교에 가면 강제로 러시아어를 배우게 하잖겠어.”

“러시아어는 이제 질색이야. 하지만, 저렇게 놀고만 있으면 어른이 돼도 신문도 읽을 수 없게 되잖아. 그렇게 되면 저 아이들이 불쌍해. 저 아이들에게 폴란드어를 가르쳐 줄까 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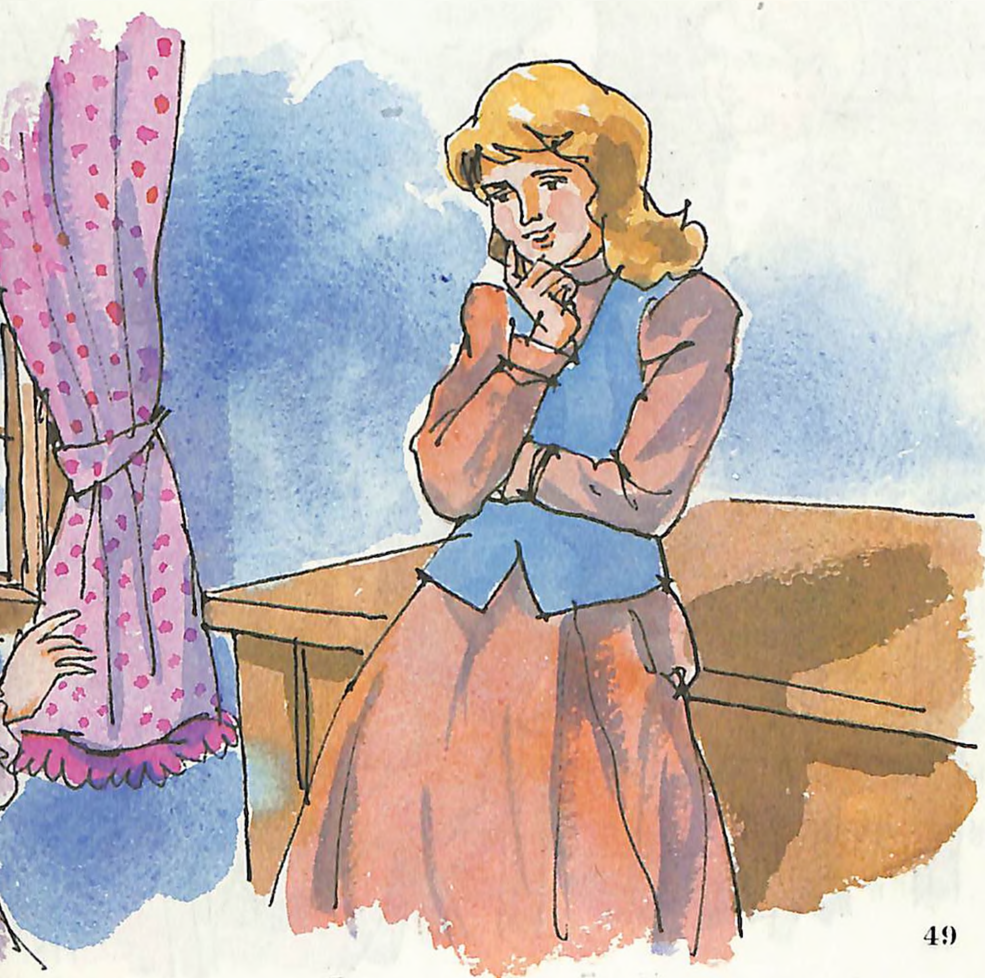
“참, 좋은 일이야. 1학년 같으면 나도 가르칠 수 있어.”



“그러나, 만일 관리들에게 들키면 큰일나. 시베리아 유형이야.”

“그런 건 안심해도 돼. 여기는 폴란드 사람뿐인 평화로운 마을인걸. 아무도 일러바칠 사람은 없을 테니까.”

“나도 그렇고, 저 아이들도 그렇고, 모두 같은 폴란드 사람이야. 우리 둘이서 서로 도우며 저 아이들을 가르쳐 주자꾸나, 브롱카.”







마니아와 브롱카는 좋은 계획을 세웠다고 기뻐하며, 곧 브롱카의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여쭙었습니다.

열심히 설명하는 브롱카의 말들은 아버지는 놀랐습니다. 마침 아버지도 공장 사람들이 무식하고, 마을 아이들이 막된 생활을 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책상과 의자를 창고에서 꺼내어, 마을 아이들을 가르치라고 허락하셨습니다. 마니아의 방은 2층에 있었으며, 바깥으로도 층층대가 있었기 때문에 제트 씨네 집의 일이 끝난 뒤, 저녁 때부터는 아이들을 모아 공부를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더럽기 짝이 없는 가난한 집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공장 직공이거나 농민의 아이들입니다. 노트나 펜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마니아는 자기가 저금한 돈으로 사서 주었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글씨를 써 보는 아이들은 눈을 똑바로 뜨고 마니아를 쳐다보았습니다. 처음에는 3, 4 명이었는데, 차츰 10명이 되고, 20명 가까이 되었습니다.

2층방에서 공부하는 것을 보러 온 어느 직공이

“어! 우리 집 아이가 글씨를 쓰고 있구나.”

하고 큰 소리를 내며 기뻐했습니다. 어른도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틈을 내어 찾아와서는 아이들 속에 끼여 공부를 하는 어른도 있었습니다.

제트 씨네 집에서의 마니아는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8시부터 제트 씨네 집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고, 저녁때부터는 2층방에서 마을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살기 때문에 집안일도 도와 주었습니다.

이리하여, 마니아는 밤 9시가 되어야 겨우 자기 시간이 됩니다. 물리학, 사회학, 생리학 등의 책을 밤 늦게까지 읽었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무슨 축제일에는 곧잘 댄스 파티를 열곤 했습니다. 그것은 아주 즐거운 모임입니다. 처음에는 주인 아주머니가 함께 가자고 권했지만,

“책을 읽어야 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가겠어요. 모처럼 말씀해 주시는데 못 가서 죄송해요.”

하고 거절했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별난 아가씨군’이라고 말했지만, 그 후부터는 파티에 가자고도 하지 않아서 밤만은 조용히 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일을 위해서, 그리고 폴란드의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로 보람이 있고 충실한 하루하루였습니다.





드디어 파리로

파리에 있는 브로냐 언니로부터는 잘 있다는 편지가 바르샤바에 계시는 아버지에게도, 시골에 있는 마니아에게도 자주 왔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의사 자격 시험에도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의사인 폴란드의 유학생 카디미르 도르스키와 결혼하고 싶다는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남편이 되는 도르스키는 폴란드에 있을 때, 독립 운동을 했기 때문에 러시아 관리에게 미움을 받아 파리로 피신해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졸업해서도 당분간은 폴란드에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파리에 조그마한 병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 교대하자고 마니아와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으나, 브로냐는 개업을 하자 곧 마니아를 부르는 편지를 썼습니다.

「너에게 학비는 대어 줄 수 없지만, 너를 위해서 방을 하나 비워 놓고 기다리겠다.」

이 편지를 받은 마니아는 감격했습니다. 마니아가 여학교를 졸업한 지 8년째, 가정 교사를 한 것은 6년간. 마니아도 이제 나이가 스물 세 살이 되어 있었음

니다. 아버지는 교사를 그만두고 소년원의 원장으로 계셨습니다. 원장 관사에서 살게 되었고, 월급도 많아졌으므로 학비도 얼마쯤은 대어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드디어 파리로 가게 됩니다.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많은 아버지를 두고 간다는 것을 생각하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마니아는 책상 위에 돈을 늘어놓고 생각했습니다. 개업을 한 지 얼마 안 되는 브로냐 언니한테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도 돈 걱정을 시킬 수 없습니다. 이 돈을 소중하게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 가지로 예산을 세워 보았습니다.





기차는 싼 3 등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도이칠란트에서는 좀더 싼 4 등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타고 프랑스에 들어가서는 다시 3 등차를 타기로 했습니다. 짐과 이불, 담요 등 부피가 큰 것은 폴란드에서 화물로 부쳤습니다. 새로 산 것은 튼튼한 나무로 만든 트렁크뿐이었습니다.

“전 그렇게 오래 있지는 않겠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돌아와서 아버지와 살겠어요.”

“공부 잘 해서 빨리 돌아오너라.”

아버지는 이런 말로 격려를 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노력하는 마리

“저 봐, 오늘도 저 여자가 첫째야.”

“늘 제일 앞자리서 버티고 있구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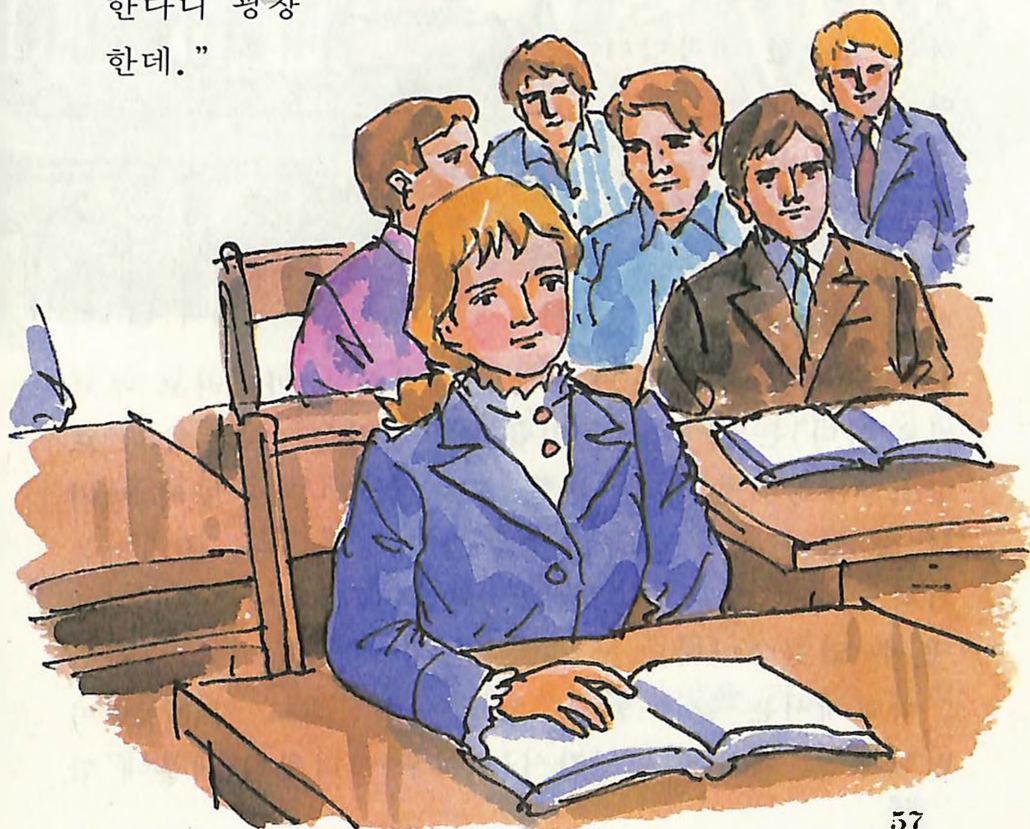
“폴란드에서 왔다지. 마리 스클로도프스카라고 써 있었어.”

“자네는 벌써 말을 해 봤나?”

여자가 물리학 연구를

한다니 굉장

한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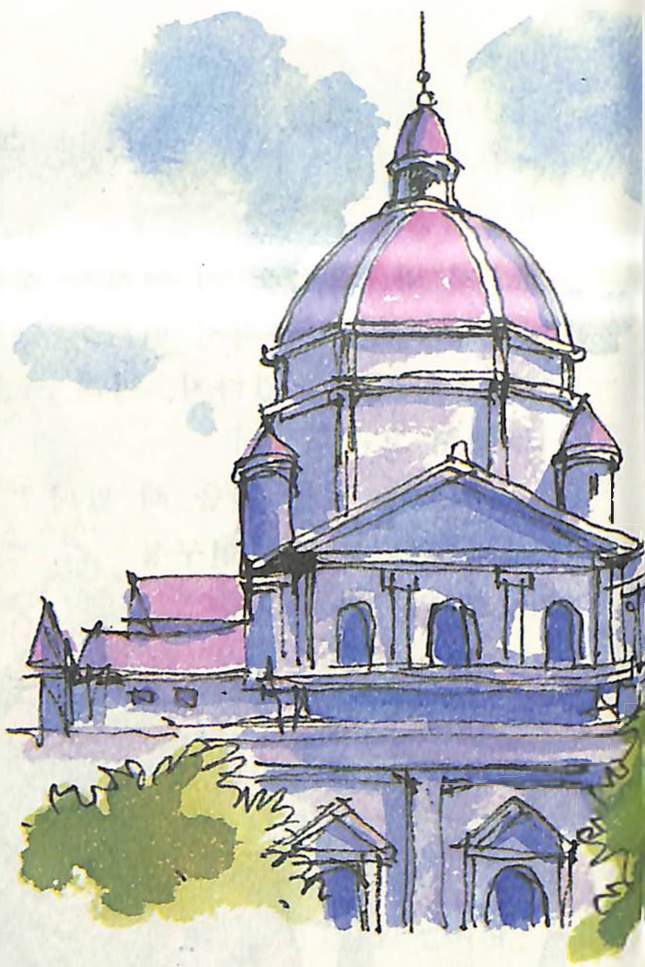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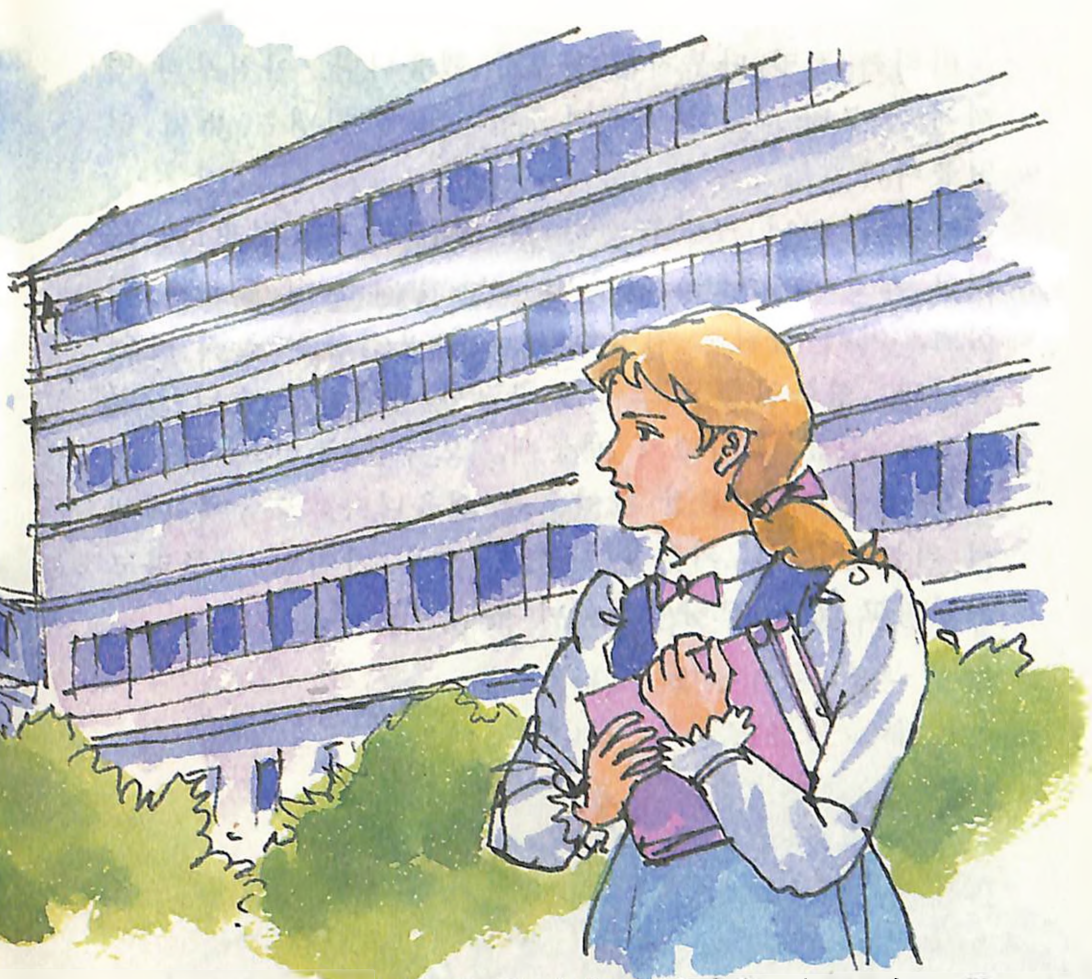
동경하던 소르본 대학에 입학한 마니아는 매일 활기에 넘쳐 학교에 다녔습니다. 어려운 강의도 있었읍니다. 칠판의 글씨를 놓칠세라 열심히 베꼈읍니다.

소르본 대학은 세계의 젊은이들이 경쟁을 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훌륭한 대학입니다. 학생들은 모두 우수한 머리를 갖고 있습니다. 마리(마니아는 자기 이름을 프랑스식으로 마리라고 고쳐

서 학교에 등록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마리라고 부르기로 한다)는 폴란드에 있을 때, 자신을 갖고 있는 프랑스 어 강의를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말이 빨라서 잘 알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좋아하는 과학도 독학이었기 때문에 이 곳 대학생에게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늘 우등생, 언제나 1등으로 지내 온 마리였지만, 대학에 들어가서는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깜





작 놀랐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갖고 있는 동안에, 실력이 형편 없이 되어 버렸다고 생각하니, 자신이 한심하게 여겨졌습니다.

“언니, 난 자신을 잃었어.”

“무슨 소리를 하니. 파리에 온 지 아직 얼마 되지 않았잖니. 곧 따라붙을 수 있을 거야.”

“처음부터 다시 해 보겠어요. 집안일을 거들지 못해 미안해요.”

마리는 정말 다부지게 공부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공부만 파고들었으며, 한가하게 지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브로나 언니 부부는 마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 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진찰이 끝난 밤이면 함께 차를 마시며,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서 용기를 북돋워 주었습니다. 형부인 도르스키는 명랑한 사람이고 손님이 찾아오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모국인 폴란드 사람들이 의논을 하러 곧잘 찾아오곤 했습니다. 모국에 대해서 의논을 하고, 의견을 나누는 것을 자기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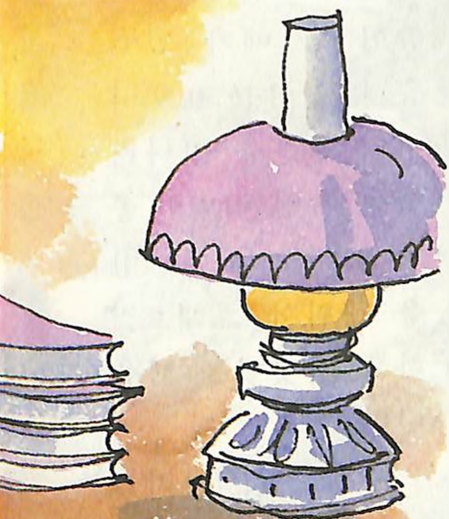
폴란드 사람의 음악 발표회에, 마리를 억지로 데리고 간 일도 있었습니다. 관객이 적은 음악회였지만, 피아노 연주가 아주 훌륭했습니다. 도르스키는 이 젊은 음악가를 집으로 초대해서 격려해 주곤 했습니다. 보통 집들에 있는 피아노도 이 사람이 치면 좋은 소리가 났습니다. 뒷날에 피아니스트로서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독립한 자유 폴란드의 대통령이 된 파데레프스키가 바로 이 젊은이였습니다.

매일 어려운 공부를 하느라고 마음이 꺾이려 하는 자기에게 힘을 북돋워 주는 브로냐 언니 부부의 친절 한 마음씨는 고마웠지만, 1분이라도 더 많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한 마리는 1년 이 지났을 때, 좀더 학교에 가까운 곳으로 옮겼습니다. <다락방> 이라고들 하는 방입니다.

가구는 폴란드를 떠날 때 가지고 온 쇠로 만든 접는 침대, 작은 스토우브, 테이블, 부엌에서 쓰는 의자, 물 길는 바깥에서 접시 몇 개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손님이 왔을 때는 트렁크를 의자로 씁니다.

보통 집에서는 램프를 등불로 쓰는 시대였기 때문에, 밤만 되면 밝은 가스 등이 있는 도서관에 가





서 문을 닫는 오후 10시까지 책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락방으로 돌아와 밤중까지 램프의 불빛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요리에 대한 생각을 하는 것보다 실험이나 강의를 정리하는 일이 급했습니다. 공부, 공부의 연속이었습니 다.

독서를 끝내고 일어나려고 하면, 현기증이 날 때가 있었습니다. 가끔 브로냐 언니 부부를 만나러 갔는데, 얼굴 빛이 좋지 않다고 하면 ‘밤을 새워서 그래요.’ 하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리는 까무러쳐 쓰러졌습니다. 친구들이 그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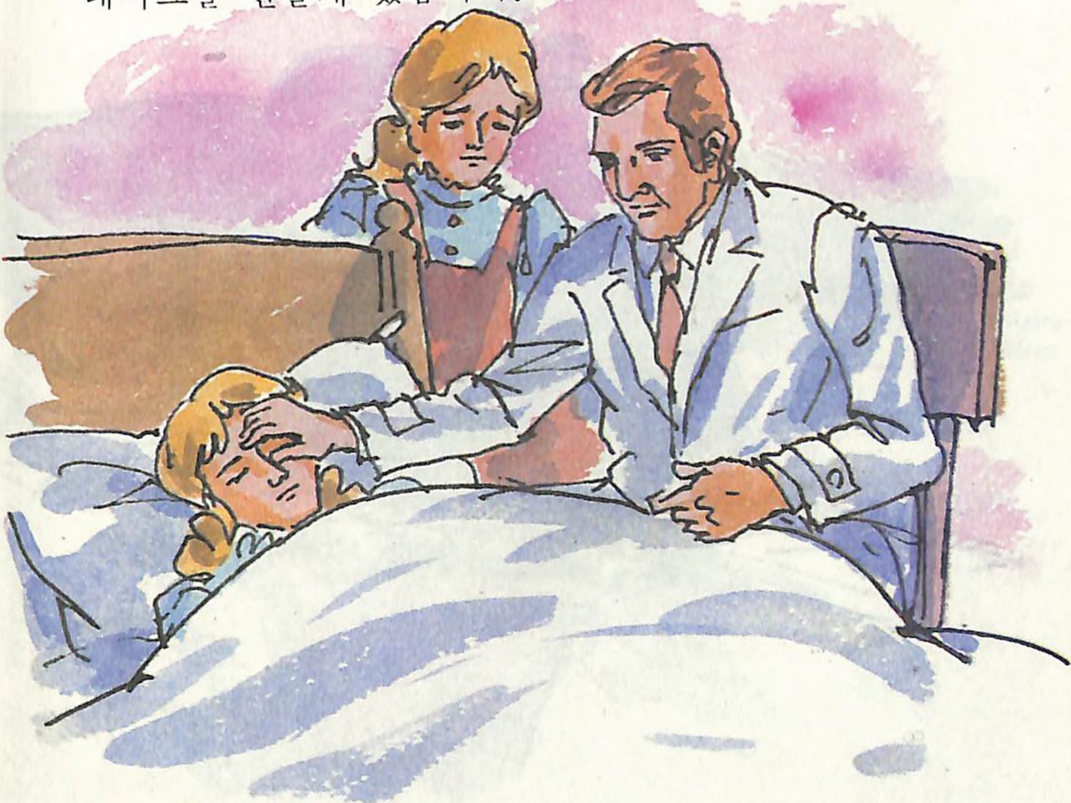
를 방에 누이고, 도르스키에게 알렸습니다. 걱정을 하며 달려온 도르스키는 재빨리 진찰을 하고, 방 안을 둘러보면서 먹을 것이 어디에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남비도 깨끗하고, 접시에도 먹은 흔적이 없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먹었소?”

“예, 버찌와 그리고…….”

식사다운 식사를 하지 않은 탓입니다. 도르스키는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마리를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브로냐에게 비이프스 테이크를 만들게 했습니다. 병은 영양 실조였습니다.



병이 낫자, 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1년이 지난 1893년 7월, 드디어 성적을 발표하는 날이 왔습니다. 큰 교실 구석에서 마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좀 잘못된 데도 있고 해서 낙심하고 있었습니다. 성적표를 가지고 교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1 등, 마리 스클로도프스카.”

물리학 학사 시험에
1등으로 합격
했습니다.



프랑스어도 매우 힘들었습니다.

실험도 꽤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의 공부는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1등이 되었습니다. 훌륭한 성적을 아버지께 드릴 선물로 삼고, 폴란드로 돌아갔습니다.





연구하는 피에르 퀴리

좀더 파리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리에게 반가운 이야기가 두 가지 생겼습니다. 한 가지는 장학금 제도가 생겨, 성적이 우수한 유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파리의 공업 진흥 협회로부터 <강철의 자기(磁氣) 성능>에 관해서 연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은 일입니다. 이것으로 돈이 들어올 가망도 생겼습니다.

강철에 관한 연구를 하려면, 넓은 연구실이 있어야 하므로 난처했습니다. 그 때, 폴란드의 물리학자 코발스키 씨 부부가 파리로 와서 마리의 연구 상황을 보러 찾아왔습니다. 마리는 실험실 때문에 곤란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좋은 사람이 생각났소. 물리 화학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훌륭한 학자야. 뭔가 좋은 수를 생각해 줄 거요. 내일 소개해 드리겠소.”

다음 날, 마리는 코발스키 씨 부부의 방에서 그 젊은 물리학자와 만났습니다. 키가 큰 청년이었으며, 몸에 맞지도 않는 헐렁한 옷을 태연히 입고 있었습니다. 그 젊은이는 학교의 실험 주임인 피에르 퀴리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두 사람은 평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피에르의 이야기가 연구하고 있는 과학에 이르

자, 마리는 열심히 질문을 했습니다. 조심스러운 태도
이기는 하지만, 학문에 대해서 자상하게 질문하는 마
리에게, 피에르는 잘 생각해 가면서 자신을 가지고 대
답해 주곤 했습니다. 어려운 대목이 되어도, 마리가 생
기가 넘치는 얼굴로 질문을 해 오기 때문에 탄복했읍
니다.



실험으로 거칠어진 마리의 손을 보고, 여성이면서 학문을 위해 머나먼 폴란드에서 파리까지 와서 연구를 하고 있는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벌써 나이가 차 있습니다. 유학을 하기 위해 오랫동안 힘든 아르바이트를 했다는 말, 그리고, 얼마 전에 물리학사 시험에서 1등으로 합격했다는 말을 듣고, 피에르도 자기 일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피에르의 집안은 의사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 유젠 퀴리는 파리에서 과학과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피에르는 소년 시절, 부모님의 의사대로 학교에는 다니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열 여섯 살에 대학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했고, 열 여덟 살 때 대학의 물리과를 졸업했습니다. 이과 대학의 교교를 하기도 하고, 형인 자크와 실험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젊은 형제는 실험에 편리한 <퀴리 저울>이라든가, <퀴리의 법칙> 등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을 응용하여 실험하는 학생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직책은 실험주임인데, 별로 인정을 받고 있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앞으로도 프랑스에 계실 생각입니까?”

“아니어요. 저는 폴란드로 돌아가야만 해요. 이 대학에서 배운 지식을 저의 나라를 위해 써야 하겠어요. 저는 학교 선생이 될 작정입니다. 그리하여 제 조국 폴란드를 크고 훌륭한 나라로 만들고 싶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끝에 피에르는 물리 화학 학교의 방을 빌어 쓸 수 있도록 주선을 해 주었습니다.



퀴리 부인이 되다

강철의 실험에 관해서 피에르가 좋은 지혜를 빌려 주었습니다.

마리의 다락방에 와서, 이야기를 하고 가는 일도 있었습니다. 피에르는 마리가 쓸데없는 짓은 하지 않고, 남자처럼 오로지 연구만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차차 마음이 끌렸습니다. 이 사람과 결혼을 해서 함께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피에르는 서른 다섯 살이었습니다.



마리는 이번에는 고작 1년 동안 공부를 해서, 수리학사 시험에 2등으로 합격했습니다. 상쾌한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마리가 폴란드로 돌아가 버리자, 피에르는 마리가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 봐도 가장 성실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파리에 돌아와 연구를 계속하라고 여러 번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리는 나이 많은 아버지 곁에 있어야 되겠다는 마음과, 자유로운 나라 프랑스에서 좀더 하고 싶은 공부를 했으면 하는 두 가지 생각으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가을에 마리는 부탁받은 강철의 연구도 있고 해서 또 파리에 왔습니다.

피에르는 언니인 브로냐에게 마리와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마리 씨와 셋이서 저의 부모님이 계시는 소오에 있는 집으로 오십시오.”

브로냐는 피에르가 자기 집에 오라고 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함께 마리를 데리고 소오에 있는 집을 방문했습니다.



“대학에 있는 동안 많은 신세를 졌습니다. 연구에 있어서도 많이 가르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마리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소오에 있는 조용한 집에서는 즐겁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피에르의 부모님은 첫눈에 마리가 마음에 들어 자기네 아들 피에르와 결혼하라고 권했습니다. 언니인 브로냐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바르샤바에 계시는 아버지도

‘내 걱정은 하지 말아라.’ 고 하시며, 피에르와 결혼을 하라고 간곡히 권했습니다.



지금의 폴란드에서는 아무 연구도 할 수 없습니다. 자유로운 나라 프랑스에서만이 자기가 좋아하는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지도자인 피에르와 공부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마음먹은 마리는 프랑스 사람인 피에르와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피에르가 서른 여섯 살, 마리가 스물여덟 살 된 해의 여름이었습니다.

결혼식은 피에르의 부모님이 사시는 소오 시에서 올렸습니다. 한창 무더운 때인 7월 26일이었습니다.

결혼식에 모인 사람은 피에르의 부모, 마리의 아버지 스클로도프스카, 그리고, 언니인 브로냐 부부와 친한 친구 몇 사람, 이렇게 아주 적은 인원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신혼 여행은 좀 색달랐습니다. 그것은 둘이서 자전거 여행을 한 일입니다.







사촌이 축의금(祝儀金)으로 준 걸로 자전거 두 대를 샀습니다. 짐 싣는 데에 짐을 좀 싣고, 파리 교외의 숲속을 달렸습니다. 가고 싶은 곳을 가고, 배가 고프면 풀밭에 앉아가지고 온 빵이나 치즈로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때 그때 적당히 시골의 여인숙에 묵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들이나 숲을 거닐기를 좋아한 피에르와, 방학이 되면 꼭 시골에 가곤 한 마리아기 때문에, 이 자전거 여

행으로 그들의 마음은 딱 들어맞게 되었습니다.

“집안일만 할 게 아니라, 좀더 연구를 하고 싶어요. 학교의 과학 선생이 되어도 좋겠지요.”

“당신의 연구가 더욱 빨어나게 해 주고 싶었지. 마음껏 일을 해요. 그리고, 내 연구도 거들어 주었으면 좋겠는걸.”

“물론이지요.”



뭔가 있다, 이상한데 ?

그 당시에도 신희 여행으로 자전거 여행을 한다는 것은 좀 색다른 일이었습니다. 엉뚱한 것을 생각하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파리에 돌아오자 아파아트를 정했습니다. 아주 간단한 살림이었습니다. 부모가 가구를 마련해 주겠다는 것도 거절하고, 방에는 아무것도 놓아 두지 않았습니다.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의자 둘, 물리학 책과 석유 램프가 테이블 위에 있을 뿐입니다. 가구를 놓아 두면, 먼지가 끼어 청소할 때 귀찮다고 생각하는 능률 주의입니다.





마리는 하루에 8시간은 학교 실험실에서 보냈습니다. 집에 있는 동안은 세탁, 청소, 장 보러 가는 일, 식사 등 집안 일을 돌봤습니다.

남편의 월급은 500프랑, 검소한 생활을 해 왔기 때문에 별로 고생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리가 가장 곤란을 받은 것은 요리였습니다.

결혼을하기로 결정했을 때,

“언니,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해야 간단히 할 수 있어요.”

“아주머니, 고기 요리로 간단히 할 수 있는 것은 뭐여요?”

하고 배우러 다녔습니다.

“간단히, 간단히 한다는 것은 안 돼요. 정성들여 천천히 시간을 들여야 맛있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아주머니에게 주의를 받았지만, 마리에게는 실험할 시간이 조금이라도 더 필요했습니다.

“요리란 펍 어려운 거군요.”

“맛을 내는 데는 무엇을 몇 그램 넣으면 된다는 식으로는 안 되는 걸까?”

“맛을 내는 엑스란 없는 것일까?”

남비를 불에서 내려놓을 때 무엇인가 조금만 넣으면 대번에 맛이 나는 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 식사는 불에 잠깐 얹어 놓기만 하면 먹을 수 있는 요리라든가, 아침에 출근할 때 물을 얼마쯤 붓고, 어느 정도쯤 되는 약한 불에 얹어 놓으면 저녁때 집에 돌아올 무렵에는 저절로 되어 있는 요리 같은 것은 없을까 하고 궁리했습니다.





학문의 귀신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아무도 모르는 것을 발견한다든가, 어려운 문제를 푸는 즐거움이 마리의 커다란 목표였습니다. 작은 목적이라면 박사 학위를 따고 싶었습니다.

퀴리 부부는 과학 논문집이나 연구소의 보고집을 조사해 봤습니다.

“뢴트겐 박사의 엑스 광선 연구는 새로운 것인데, 우리도 연구를 해 보는 게 어떻겠소?”

“설비가 대단하잖겠어요. 그리고, 뢰트겐 박사의 동료들이 연구를 하고 있을 텐데요 뭐.”

“여기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광선에 대한 베크렐 박사의 보고가 있군 그래.”

“참, 우라늄을 함유하고 있는 광물 속에 사진 건판을 넣어 감광시켰다고 하더군요. 어떤 힘이 있을까? 베크렐선(線)의 정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글쎄, 뭐라고 말할 수 없지. 햇빛과는 별도로 자기 스스로 빛을 내고 있다는 것은 신기하군 그래. 성질을 자세히 알게 되면 큰 발견이지.”

“여보, 베크렐선을 연구해 보고 싶어요. 당신이 저를 도와 주셔야겠어요.”

베크렐선 실험을 시작하여, 우라늄이 함유되어 있을 것 같은 광물을 하나하나 조사해 나가다가 이상한 일에 부딪쳤습니다. 조사하는 광물 속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우라늄과 토륨의 방사능을 합친 것보다 훨씬 강한 수치의 방사능이 그 광물에서 나왔습니다. 우라늄을

1로 하고, 토륨을 2로 하면 양쪽을 합해서 3의 힘 정도로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8로도 되고, 10으로도 나옵니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도중에 뭔가 방법이 틀린 줄 알았습니다. 두 번째도 큰 수치가 나왔습니다. 또 처음부터 다시 했습니다. 되풀이하여 조심스레 다시 실험을 했습니다. 20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언제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큰 힘을 내는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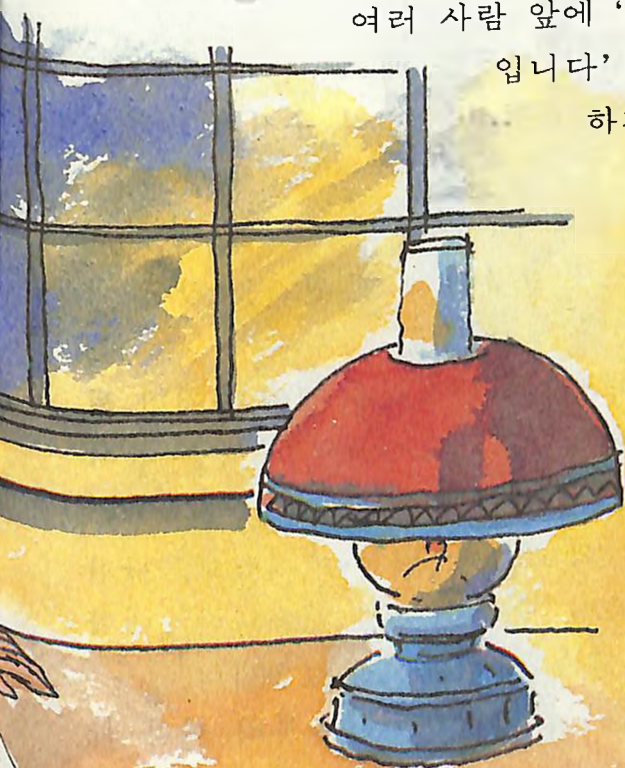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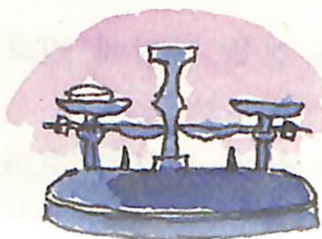
1898년 4월, 마리는 연구한 것을 학회에 발표했습니다.

「피치블렌드에는 우라늄보다 훨씬 강력한 방사능을 함유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 원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학문상의 예상입니다. 예언입니다. 마리는 자기가 연구를 한 결과, 예상되는 새로운 원소에 대하여 용기를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발표한 이상, 과학자는 자기가 그 원소를 발견하여
여러 사람 앞에 ‘이것이 바로 그 원소
입니다’ 하고 분명하게 제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과학의 경쟁입니다.





까다롭고 힘든 실험

피치블렌드를 분해해 나가는 일도 그렇고, 그 속의 성분을 측정해 나가는 것도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실험을 하는 데 있어서 제일 곤란을 받은 것은 실험실이 좁은 점이었습니다. 이 연구를 하는 데는 광석을 둘 장소가 있어야 하고, 약을 넣어 녹이거나 휘저을 장소가 있어야 합니다. 대학이나 연구소를 찾아가서 부탁해 보았습니다.

“앙리 베크렐 선생님이 연구한 베크렐선 실험을 하려고 하는데, 대학의 실험실을 빌려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떤 실험을 하는 겁니까?”

“광석을 녹여서 원소를 분류하여 새 원소를 찾아 내려고 합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실험을 시키는 것만 해도 정신이 없을 지경입니다. 당신들의 부탁을 들어줄 수 없겠는데요.”

연구자라 해도 아직 학교를 갓 나온 마리였고, 남편인 피에르도 별로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대학에서도, 연구소에서도 모두 거절을 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피에르가 근무하고 있는 물리 화학 학교의 교장 선생님에게 부탁하러 갔습니다. 교장 선생

님은 늘 피에르 부부의 좋은 후원자였지만, 비어 있는
실험실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생각한 끝에,

“피에르 군, 저 안뜰에 있는 창고는 어떨까? 그 창
고라면 다른 실험을 해도 별로 지장은 없을 것 같
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학교의 시설을 개인이 연구하는 데 빌려 주는 것은
꽤 어려운 일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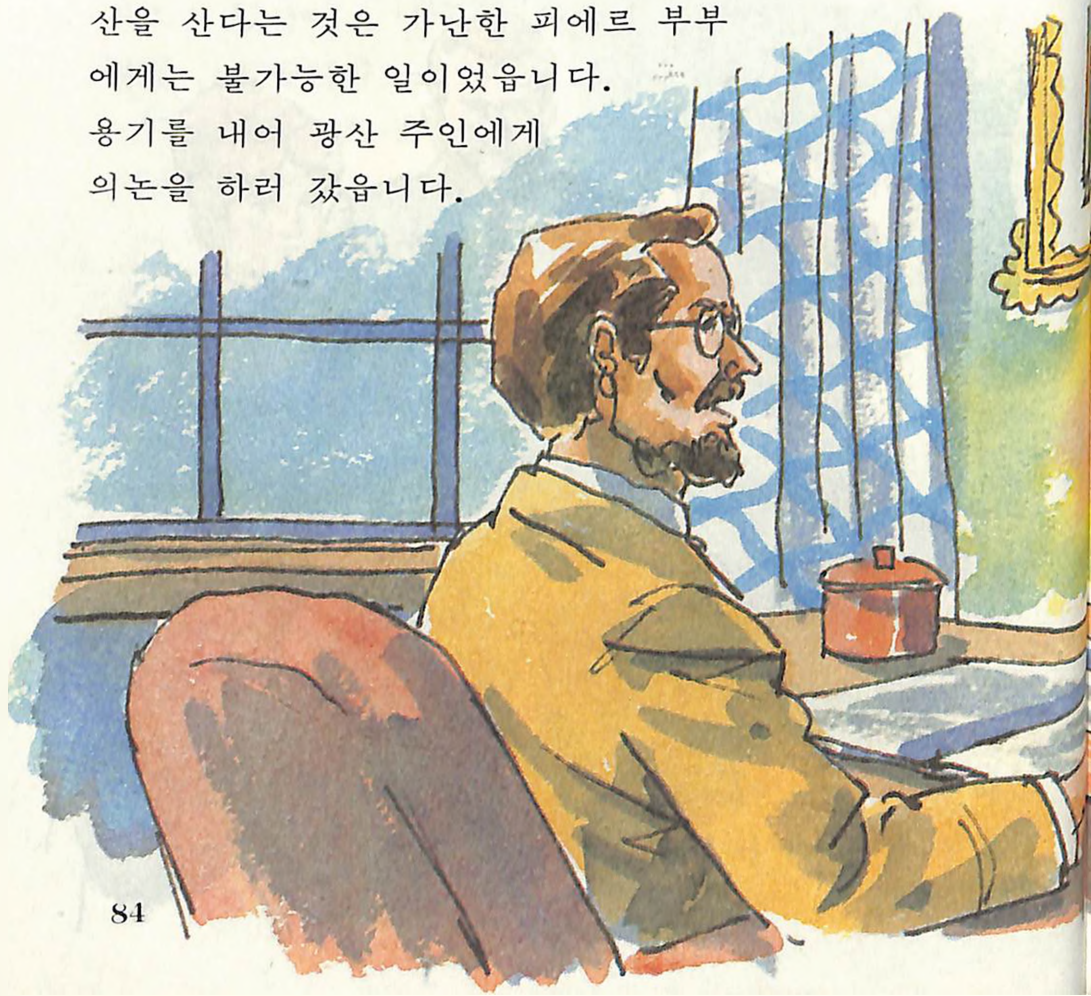


사용해도 좋다고 하는 창고란 것은 정말 형편 없었습니다. 전에는 기계실이었는데, 지금은 '잡동사니'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리로 만들어진, 지붕도 깨져서 구멍투성이였습니다. 여름에는 뜨거운 햇볕이 바로 내리쬘어 굉장히 더워집니다. 겨울에는 반대로 찬 바람이 들어와 말할 수 없이 추울 것입니다.

“좋습니다. 제발 쓰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걱정은 그럭저럭 덜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재료로 쓸 피치블렌드를 구하는 일입니다. 산을 산다는 것은 가난한 피에르 부부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광산 주인에게 의논을 하러 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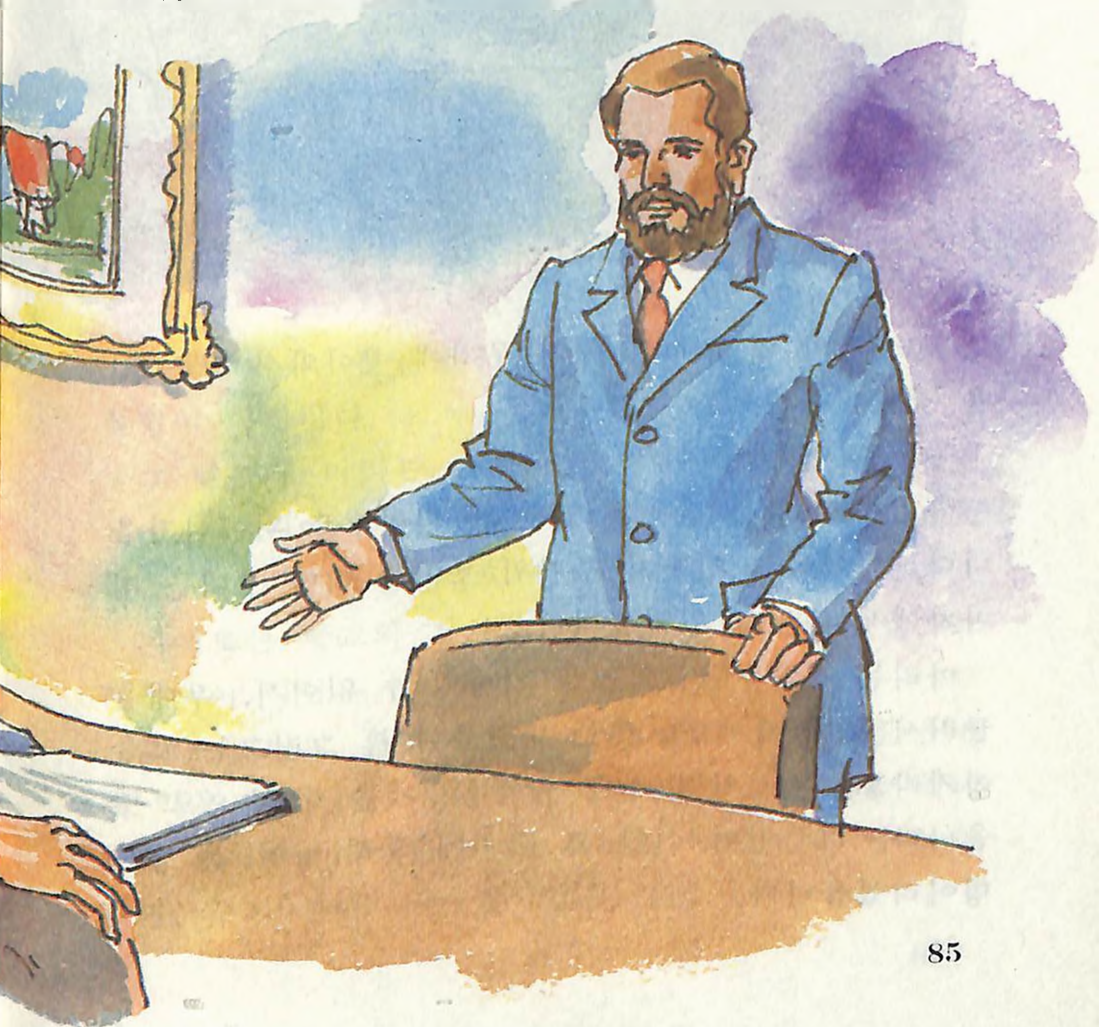
“우라늄을 빼내고 난 가루가 된 피치블렌드를 팔지 않겠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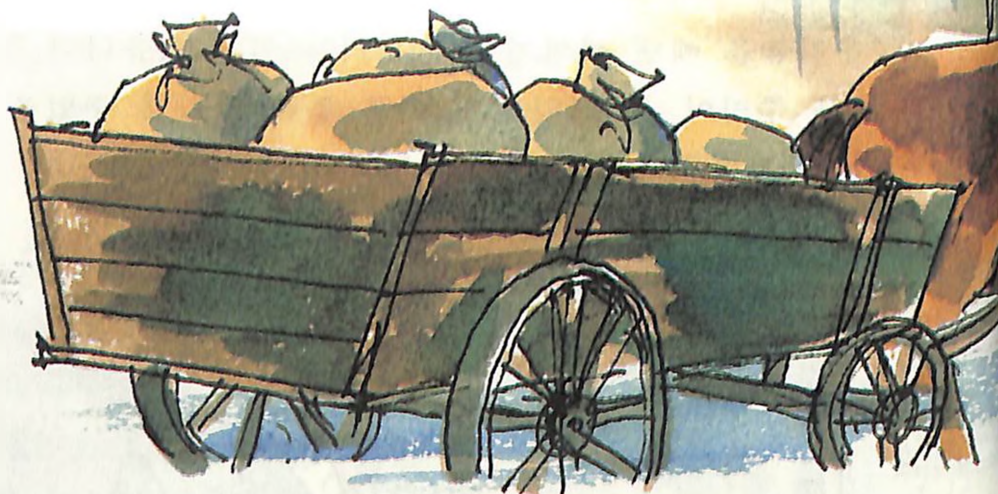
“그 찌꺼기가 필요합니까. 당신이 직접 가져가신다면 거저 드리겠습니다.”

“공짜로 말입니까?”

“우라늄을 빼낸 찌꺼기니까 우리는 필요 없습니다.”

광산 주인이 웃는 얼굴로, 기분 좋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피치블렌드는 화차로 보내오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의 일입니다. 누가 문간에 찾아와서 집 주인을 찾았습니다.

“아, 짐이 왔구나.”

마리는 실험용 겉옷을 입은 채 바깥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바깥에는 인부가 무거워 보이는 대마 부대를 짐마차에서 내리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짐을 내리는 것을 기다릴 수 없어서, 부대를 끌어서 부대 속에 두 손을 넣었습니다. 그러고는 보물이기라도 한 것처럼 부대 속에 든 것을 두 손으로 떼웁니다. 나뭇잎이 섞인 그 근처에 흔해 빠진 흙 같은 덩어리였습니다.



“이 속에 이상한
빛을 내는 것이 들어
있을 것이다. 얼마나 들어
있을까? 자, 일, 일, 일이다.”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방 안에서 하는 조그마한
실험이 아닙니다.

그 날부터 마리는 아침 설것이를 끝내면, 갓난아기
이레느를 시아버지인 의사 쿼리에게 봐 달라고 말기고
는 창고로 꾸민 실험실로 달려갑니다.

피에르는 학교의 강의가 바빠서 틈이 없습니다. 그
래서, 이 실험은 마리가 혼자서 착수했습니다.

부대에 담긴 흙을 큰 솥 안에 넣고, 덩어리를 으깨
서 약을 넣습니다. 반응하여 부글부글 끓는 것을 막대
기로 휘저어 바짝 졸아들게 해서는 독에다 퍼 담아 둡
니다. 무척 힘이 드는 일이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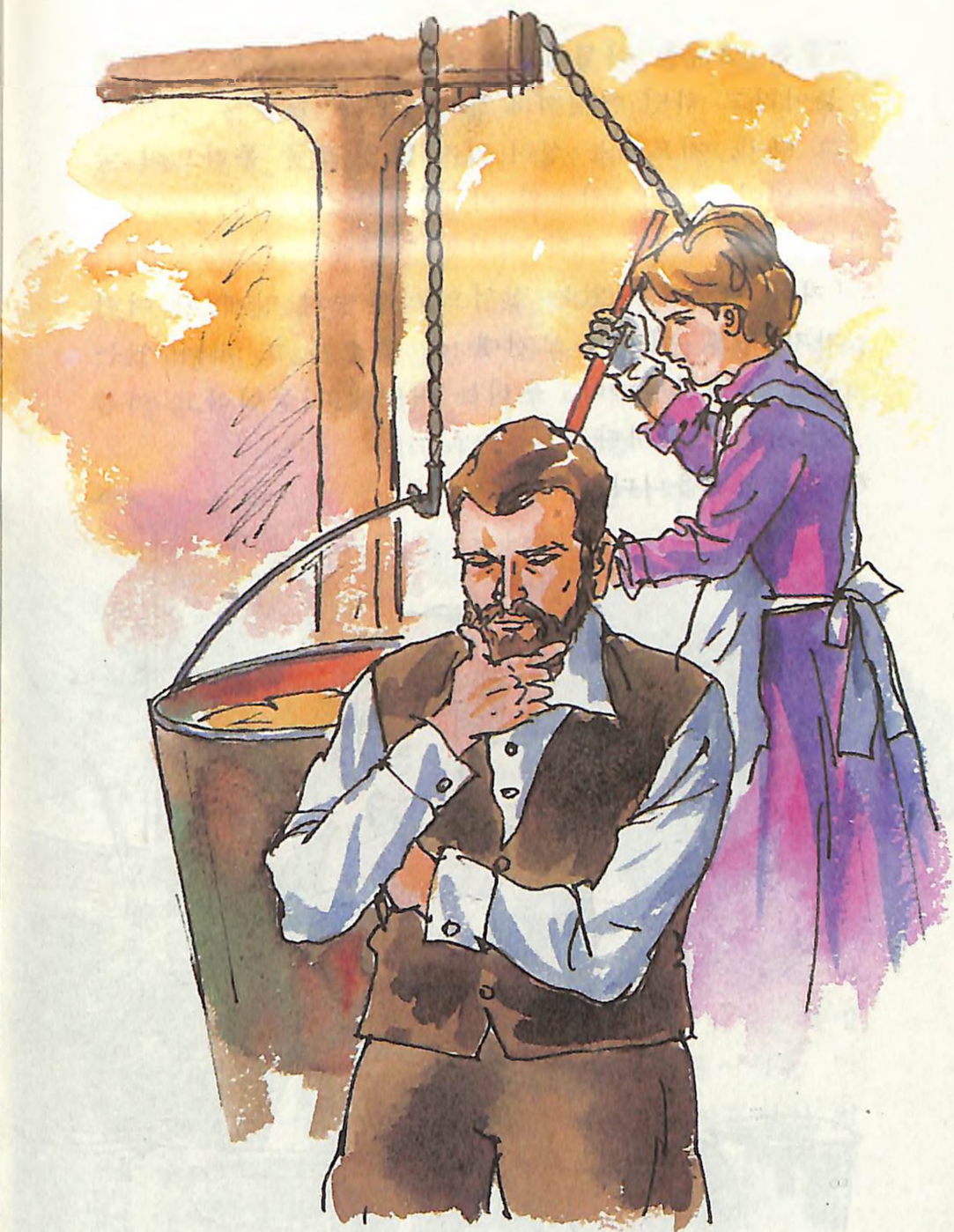
뜰에 산더미처럼 쌓아 둔 피치블렌드가 차차 줄어들었습니다. 하나하나 조심스럽게 분해해 나가는 일이 진척되어 갔습니다. 매일 아침부터 저녁때까지 연기와 먼지를 뒤집어쓰고, 약품 냄새에 숨이 콕콕 막히면서 기다란 쇠막대기를 들고 일에 열중해 있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남편인 피에르는 곰곰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생각한 예상은 옳다. 틀림없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온종일 바깥에서 해야 하는 일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아내의 건강이 걱정이다.’ 이렇게 생각한 피에르는 자기가 하고 있는 연구를 일단 중단하고, 아내가 시작한 새로운 원소 발견에 대한 일을 둘이서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피에르는 물리나 수학적인 것을 잘 하였기 때문에, 실험을 해 나가는 방법을 책으로 조사하기도 하고, 자세한 계산이나 측량을 하였습니다.

마리는 물리도 잘 알았지만, 어느 편인가 하면 화학적이어서 정확한 실험을 순서대로 해 나가는 것을 잘 했기 때문에, 그전처럼 온종일 바깥일을 하였습니다.

둘이 함께 하면서부터는 연구가 착착 진척되었습니다. 7 월에는 새로운 물질이 두 가지 있을 것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의 하나가 윤곽이 뚜렷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이름을 붙이기로 하였습니다.

“마리, 당신이 늘 걱정을 하고 있는 폴란드의 이름을 넣으면 어떨까?”



“좋은 생각을 하셨어. 폴란드, 포늄, 폴로늄, 폴로늄이라고 하면 어떨까요?”

그 당시, 지도에는 실려 있지 않은 조국 폴란드의 국명을 넣어 새로운 원소의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에는 과학 학사원에서 내는 논문 속에,

「지금 연구하고 있는 실험으로 분명히 알게 된 여러 가지 일로 미루어 보건대 새 원소가 또 하나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이것에 라듐이라고 이름을 지을까 합니다.」

하고 예고했습니다.



예고하기까지에는 정확한 연구를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학회의 학자들에게 이렇게 발표한 이상 누구보다도 먼저 그것을 완성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순수한 폴로늄과 라듐을 분리해 내어 바로 이것이라고 보여야 합니다. 예고를 하는 데도 용기가 필요했지만, 그 후의 연구는 더욱 어려웠습니다.

피치블렌드도 많이 운반해 왔습니다. 그것을 그전처럼 같은 순서로 빈틈없이 처리해 나가는 마리였습니다.

재미가 없고 싫증이 나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여야 합니다.

예고한 이래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끓여서 졸아든 것이 차차 모이게 되었습니다. 계산상으로는 매우 진하고,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 되어 있을 터입니다. 그러나, 빛을 내지 않았읍니다.

라듐은 아직 정체를 나타내지 않았읍니다. 똑같은 실험을 되풀이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을성이 없는 사람 같으면 집어 던졌을지도 모릅니다.



너무 시간이 걸리면 자신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참을성이 강한 마리는 처음에 실험을 시작했을 때가졌던 의욕을 잃지 않고 일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 실험을 하는 데는 돈이 듭니다. 이제는 이레노도 컸기 때문에 유모를 두었습니다. 집안 살림도 돌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에르는 수입을 늘리기 위해 강의를 많이 맡았습니다. 수입은 늘지만, 연구를 할 시간은 적어집니다.

그 때, 스위스로부터 대학교수로 와 달라는 교섭이 있었읍니다.



“마리, 스위스의 대학에서 새로 강좌를 마련한다고 교수로 와 달라는구면.”

“대학 교수 말인가요? 잘 됐군요.”

“내 의견을 참고로 해서 연구실도 새로 짓겠다고 했소.”

“스위스에 가서, 스위스 대학의 상태를 잘 살펴보고 오세요.”

프랑스보다 외국에서 먼저 피에르의 역량을 인정하고 주목하고 있었읍니다. 스위스 대학에서 교수로서 강의의 한다는 것은 펍 마음이 내키는 일이었지만, 라뒀의 연구를 조금만 더 하면 완성된다는 생각을 하니, 그들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랐읍니다.

“마리, 지금 우리는 돈도 필요하오. 연구실도 갖고 싶소. 그러나, 새로 부임한 스위스의 대학에서 개인의 연구는 할 수 없겠지.”

“대학 교수가 되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라뒀의 연구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스위스 대학의 교수 자리는 거절하였읍니다. 그 대신 돈을 벌기 위해, 피에르는 특별과의 선생 노릇도 하고, 마리는 여자 사범 학교의 과학 선생님이 되었읍니다. 맞벌이를 하게 되었읍니다. 생활은 나아졌지만, 둘다 학교일이 끝난 다음에는 실험실에 가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몹시 피로했읍니다. 두 사람은 얼굴 빛이 창백해지고, 야위게 되었읍니다. 어느 의사 친구가 피에르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왔읍니다.

「당신들은 식사다운 식사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안 됩니다.

부인이 소시지를 두 조각 가랑 먹고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봤는데, 그래서 몸이 아주 튼튼한 사람도 견딜 수 없을 것입니다. 어린이가 아니니, 그런 것은 잘 알고 있다고 하시겠지요. 그러나, 부인은 어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식사에 좀더 시간을 내십시오. 식사를 하면서 책을 읽든가, 딱딱한 물리학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연구에 미쳐 라듐의 빛을 어서 발견했으면 하고, 오로지 그것에만 집념하고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의사로부터 충고를 받아야 하는 정신 없는 생활이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몇 톤이나 되는 피치블렌드에서 분리해 낸 것이 실험실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분해하고, 측정해서 순수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더 나은 기구가 필요합니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지나 습기가 있으면 큰 방해가 됩니다.

창고에다 꾸민 실험실이었으므로, 비바람 때문에 애써 한 실험이 수포로 돌아간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얼굴 빛이 더욱 나빠지고, 아내의 손이 까칠해진 것을 본 피에르는 마리의 건강을 걱정하여, 연구를 중지하자고 말했습니다.



“아니어요. 제 손으로 빨리 라듐을 발견하고 싶어요. 피로와도 꼭 하겠어요. 여보, 부탁해요.”

“하지만 마리, 당신의 몸이 말이 아닌데, 당신 건강이 회복될 때까지 중단합시다.”

“그렇게 할 순 없어요. 이제 조금만 더 하면 돼요. 참고 견뎌 보겠어요.”

이제는 연구가 거의 완성될 단계까지 와 있었습니다. 마리는 기어코 끝까지 해내겠다는 생각입니다. 피에르도 할 수 없이 져었습니다. 1901년도 다 저물어가고 있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빛

“여보, 그 곳에 가 볼까요?”

마리가 말을 꺼내는 것을 기다리거나 한 것처럼 피에르도 곧 바깥으로 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 곳’이라고 하기만 하면 그들은 곧 알아차립니다. 실험실입니다. 두 시간 전까지 연구를 하다가 집에 돌아와서 식사를 하고, 어린 이레느를 이제 겨우 재운 참입니다. 오늘은 어쩐지 다시 한 번 가 보고 싶어졌습니다.





“아버님, 이레느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막 잠이 들었습니다. 오늘 밤에는 좀 늦을지도 모르겠습니다.”

1 월의 추위도 느끼지 않는지 두 사람은 뛰다시피 하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늘 다니는 길이지만, 오늘 밤에는 실험실까지 단숨에 와 버렸습니다.

피에르가 문을 열었습니다.

“여보, 불은 켜지 마세요.”

마리가 낮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기억하고 계시겠죠. 실험이 성공해서 라듐이 고운 빛을 내고 있으면 좋겠다고 한 그 날의 일을.”



어두운 실험실 안에 여기저기 놓아둔 작은 유리 접시에는 파르스름하고 희미한 빛이 점점이 빛나고 있습니다.

“여보, 보श्य요. 아주 곱지요!”

“앗, 라둡이야, 라둡. 성공했어!”

그들은 서로 손을 잡은 채 파르스름한 빛을 황홀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으로 더듬어 의자를 찾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접시를 하나

하나 확인해 나갔습니다. 라둡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오랫동안 연구를 한 라둡입니다. 숨어 있던 라둡이 아름다운 빛을 보여 주었습니다.

1902년의 1 월이었습니다.

새 원소가 있을 것 같다는 예고를 세상에 공포한 지 3 년 반, 과학자의 책임감 때문에 그 동안 몹시 힘들고 괴로운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아 이제야 실험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부부의 기쁨은 무엇에다 비길 수 없을 만큼 컸습니다. 과학자로서 이 이상 영광되고 보람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부부는 라듐 1 데시그램을 얻을 수가 있어, 새로운 물질의 원자량을 처음으로 결정했습니다. 원자량은 225로 측정되었습니다.





라듐은 모든 사람의 것

새 원소 라듐의 발견자……, 퀴리 부부.

부부는 갑자기 바빠졌습니다. 신문 기자가 잇달아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느 나라에도 있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 축하한다고 찾아와서는 연구에 관해서 묻곤 합니다. 연구는 아직 시작이고, 지금부터라고 생각하고 있는 두 사람은 기자들 때문에 연구 시간을 빼앗기는 게 몹시 괴로와 얼마동안 면회를 사절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은 바깥에서 본 실험실의 초라함과, 가정에

퀴리 부부



서 어린 이레느가 할 아버지와 함께 노는 모습 따위의 실험과는 전혀 관계도 없는 기사만 자세히 보도했기 때문에, 두 사람은 고맙기도 하고 귀찮기도 했습니다.

영국의 왕립 협회로부터 데이비 상을 받았습니다. 강연을 부탁받아, 괴롭고 힘들었던 화학 실험을 학자들

앞에서 발표했을 때는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3년 이상이나 고생하
는 동안, 영국에서 격
려해 준 켈빈 씨에게
발견한 라듐을 가지고
갔습니다. 켈빈 씨는
자기가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며, 회장 안에
있는 학자들에게 보이
며 돌아다녔습니다.

소르본 대학에서는,
지금까지 연구한 것
을 정리한 논문이 홀
륭하다고 마리에게 박
사 학위를 수여했습니
다.

다음 해 1903년, 라
듐의 공동 연구자로서
앙리 베크렐과 피에르
와 마리, 이렇게 세 사
람은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노벨 상
이 시작된 지 3년째가
되는 해입니다.





연구를 하느라고 지칠 대로 지친 퀴리 부부는 12월에 있는 수여식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노벨 상을 받은 사람은, 노벨의 나라 스웨덴에서 연구한 것을 일반인에게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대중 강연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해에, 이레느를 데리고 강연 여행을 떠났습니다. 연구할 때의 추억을 재미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때, 피에르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라듐은 세상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잘못 사용하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 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인간은 자연 속의 비밀을 알게 되어 과연 득이



되었는지 해가 되는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발견이 그 예라고 생각합니다. 강한 폭약은 사람들로 하여금 놀랄 만한 큰 일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러나, 또 전쟁에도 사용되어 많은 사람을 살상(殺傷)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노벨이 처음에 생각하고 있었듯이, 새로운 발견은 좋은 일을 위해서 사용되어야 하지, 나쁜 일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벨 상의 퀴리 부부라고 평판이 자자하게 되자, 소르본 대학은 퀴리를 대학 교수로 임명하고, 마리를 퀴리 교수의 실험 주임으로 임명했습니다.



두 사람의 연구나 실험이 늘 일체가 되어 있다는 것을 대학이 확실히 인정해 준 때문입니다.

이 해에 둘째인 에브가 태어났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연구를 하다가 틈이 났을 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리, 당신 손이 까칠하더니 지금은 그리 눈에 띄지 않는군요.”

“약품에 닿지 않도록 주의를 해도, 화상을 입은 것처럼 되어 보기 흉했어요. 라듐의 방사능 탓이겠지요. 하지만, 날이 지나니까 다시 이렇게 깨끗해지더군요.”

“피부병에 잘 듣는 게 아닐까?”

“병이 난 곳을 잇과 수술로 잘라 내는 것이 아니라 태워 없애는 셈이군요. 나중에 새 피부가 생기는 문제만 잘 해결된다면 수술을 한 뒤에 상처도 없고 참 좋겠군요.”

라둠이 암의 치료에도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라둠의 제조법을 가르쳐 달라고 미국 등지에서 물으러 왔읍니다.

일일이 회답을 해 줄 생각이었는데, 물으러 오는 단체나 회사가 자기네에게 먼저 알려 달라든가, 혹은 자기네에게만 알려 달라고 경쟁을 하는 것이었읍니다. 학자는 돈벌이 이야기는 딱 질색입니다.



“마리, 친구가 제조법의 특허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학자가 아닌 회사 사람이 자기 이익을 위해 라뚝을 많이 만들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사례금을 주어야 하느냐고 물어 오니 귀찮구면. 우리 실험실도 있어야겠고, 두 아이의 장래를 위해서라도 특허 수속을 해 둘까?”

“아니, 여보, 그건 잘못이에요. 과학의 연구는 연구의 경과나 결과를 늘 논문으로 올바르게 발표하게 되어 있잖겠어요. 저도 여러 사람의 좋은 논문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발견된 라뚝을 의사가 잘 이용하여 병을 고치는 데 쓰는 것은 반가운 일입니다. 그러나, 돈벌이를 하기 위해 특허 수속을 하는 일에는 저는 찬성할 수 없어요.”

“참, 그렇소. 당신 말이 옳소.”

피치블랜드에서 라뚝을 만들어 내는 방법을 학회에서 공개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 세계에 라뚝 공업이 성하게 일어나 수많은 환자를 구했습니다.

‘라뚝은 모든 사람의 것.’

제조법을 공개해 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마음대로 라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 대신 이들 부부에게는 한 푼의 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소식을 들은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인류를 위해 헌신하는 과학자의 진정한 마음에 모두들 감격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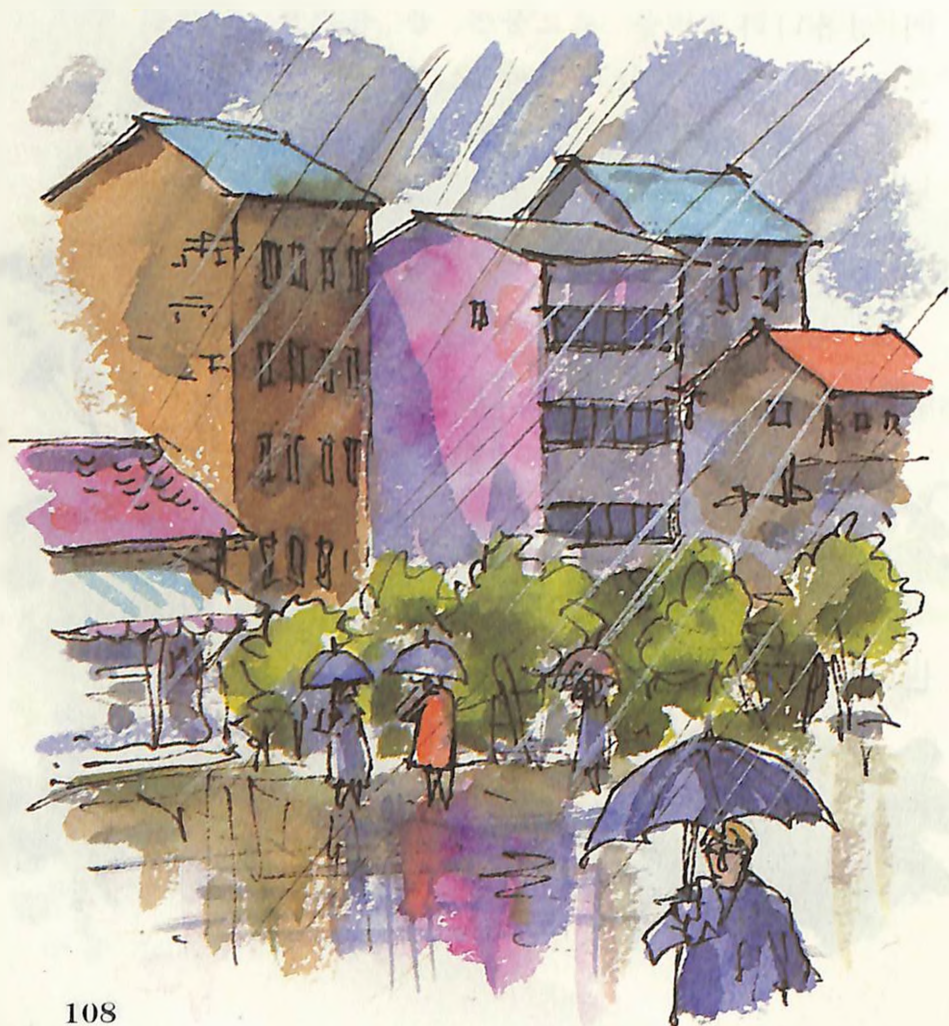


슬픔의 4월 19일

1906년의 4월, 부부는 넉넉하게 휴가를 얻었습니다. 부부와 두 아이(이레는 여덟 살, 밀의 에브는 한 살), 이렇게 네 식구가 시골의 자연 속에서 즐겁게 지내다가 왔습니다.



4월 19일. 이 날은 날이 꺾어 길이 질척거려 미끄러지기 쉬운 고약한 날씨였습니다. 마리는 여행을 한 뒤였기 때문에, 집안일이 산더미같이 쌓였습니다. 오후에는 시내에 불일이 있어서 저녁때까지 집을 비워 두고 있었습니다. 피에르의 예정은 대학의 교수 회의를 마친 다음 출판사와 학사원을 들러서 온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가 힘차게 집의 문을 열자, 대학과 연구소 사람 셋이 긴장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이학부 학장인 포올 아벨 박사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피에르가 시내의 큰길을 건널 때 두 마차 사이에 휩쓸려 질척거리는 길바닥에 넘어져, 그만 마차에 깔려 머리가 깨져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전에 마라도 시내에 있었습니다. 그 시내 한 가운데에서 이런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리는 호되게 머리를 얻어맞은 것처럼 아무것도 모르게 되었습니다.

“피에르가 죽었다고요……? 피에르가 정말로 죽었습니까?”

생각지도 않은 별안간의 교통 사고로 피에르 퀴리는 죽었습니다.

마흔 일곱 살이었습니다.

슬픔에 잠긴 마리는 조용히 있고 싶어서 장례식을 야단스럽게 하지 않고, 피에르가 죽은 지 이틀 후인 21일에 소오의 묘지에 있는 어머니의 무덤 옆에 묻었습니다.

그 후, 여러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피에르를 추모하는 집회가 많이 열렸습니다. 낙심하여 아무것도 할 마음이 없어진 미망인 마리를 보고 동료 학자들은 걱정을 했습니다.

“마리는 피에르와 일심 동체였다. 피에르가 계획한 것을 할 수 있는 학자는 마리밖에 없다.”

“지금 마리를 위하는 길은 실험이다.

공부하기 좋게 해 주는

것이 그를 가장

위로해 주는

길이다.”



피에르가 맡은 강좌의 후임으로서 마리 미망인을 소르본 대학의 선생으로 모시기로 결정한 것은, 피에르가 세상을 떠난 지 2주일도 되지 않은 5월 1일의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국립 대학의 대학 강사가 된 것은 실험 주임이 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마리가 처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당신 대신에 저더러 강의를 하라고 합니다. 대학에서도 그런 교섭을 해 왔읍니다. 당신이 전에 몇 번이나, 저에게 소르본 대학에서 강의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두 사람 가운데 어느 쪽이 빠져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 나가자고 말씀하신 것도 생각납니다. 여보, 제가 당신이 하시던 일을 맡아서 해 나가야 하겠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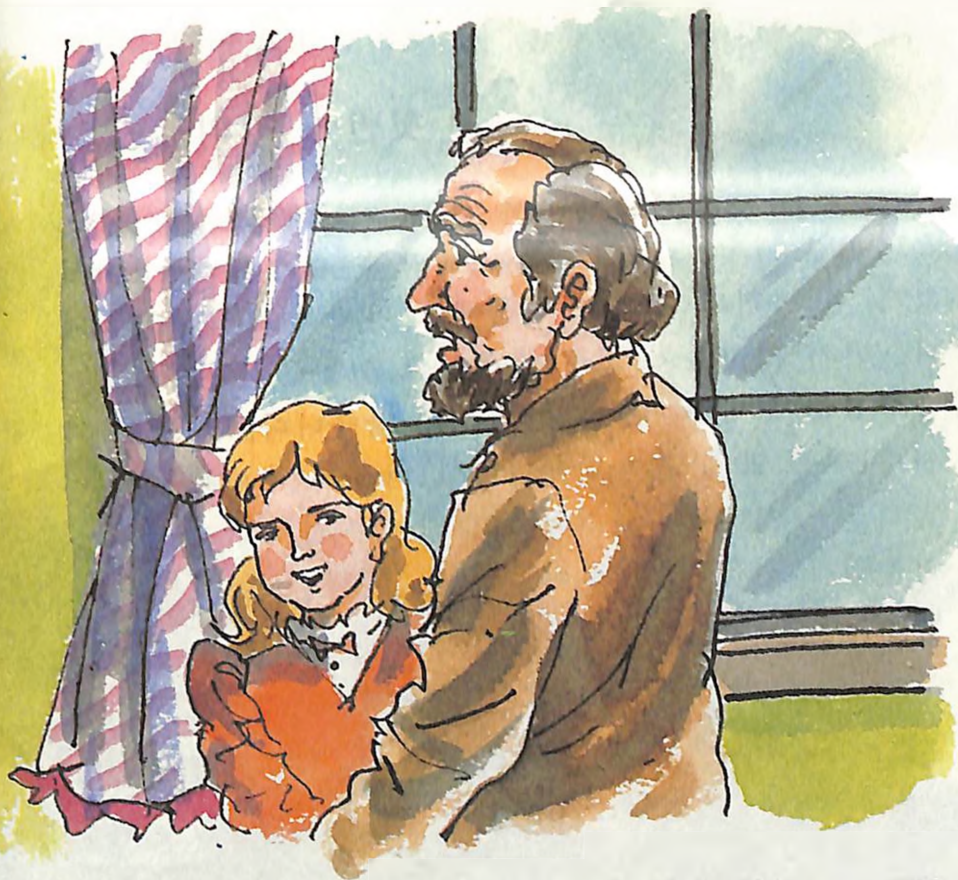
라둠의 연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소원을 이룩하려고 여름 방학 동안 파리에 남아서 강의를 위한 공부를 하였습니다. 이레느는 헬라 이모와 바닷가에서 지내게 하고, 어린 에브는 시아버지에게 맡겼습니다.

방학이 끝날 때, 부인은 남편의 무덤이 있는 소오에 집을 구했습니다. 이사하기로 결정되었을 때, 시아버지인 의사 쿨리는 조심스럽게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야, 이제 피에르도 없으니까 너는 늙은 나와 함께 있을 필요가 없잖겠니? 나는 피에르의 형한테 가 있어도 되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지 네가 결정해 다오.”

“아버님이 다른 곳으로 가시는 것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아버님이 좋으실 대로 하세요.”





“그야 뭐, 나는 이레느와 에브와 함께 있는 게 제일 좋지.”

“그러면 저희들하고 함께 사세요. 아버님이 계셔 주시면 저도 마음이 든든하고, 애들에게도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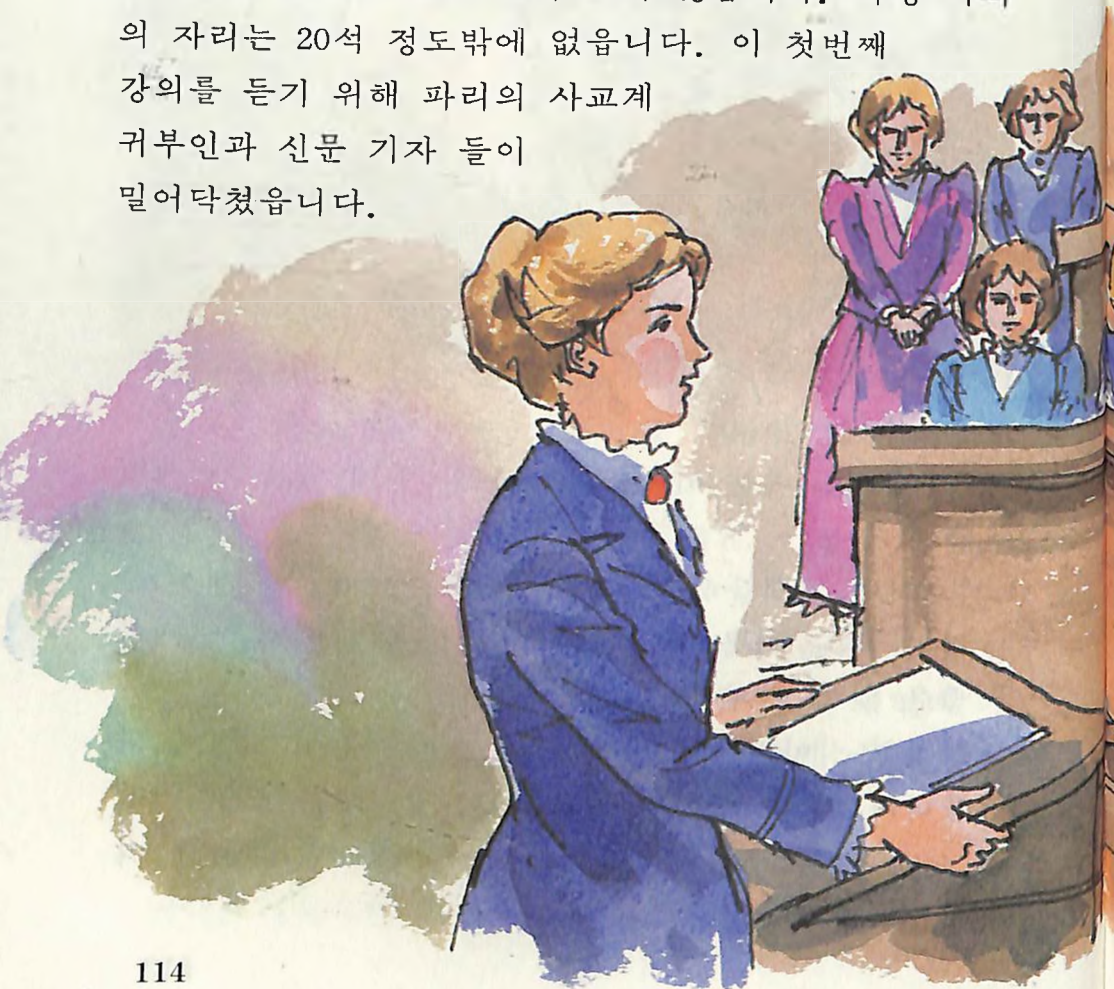
성실한 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은 마음의 기둥이 되었습니다. 퀴리 부인이 서른 여덟 살, 의사 퀴리는 일흔 아홉 살의 노인, 그리고 어린 두 딸, 이렇게 네 식구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강의

1906년 11월 5일, 소르본 대학의 증계식 교실에서 갖게 된 마리의 강의는 신문에도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파리 사람들이 모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교실은 강당과 달라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학생 이외의 자리는 20석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첫번째 강의를 듣기 위해 파리의 사교계 귀부인과 신문 기자들이 밀어닥쳤습니다.



두 시간 전부터 교실은 꽉 찼습니다. 복도도 메웠고, 교정까지 사람들이 넘쳤습니다. 심지어 학생까지 교실에 들어갈 수 없다고 불평을 할 정도였습니다.

여자가 강사가 된 것은 여자들의 영광이라고 하며, 저명 인사의 부인들이 제일 먼저 자리를 차지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보통은 맨첫번 선생의 일을 이야기하지만, 퀴리 부



인에겐 남편이 되는만큼 칭찬은 하기 거북할 거야.’

1시 반, 요란하게 박수를 받으며 부인이 들어왔습니다. 박수가 그치는 것을 기다리고 있던 부인은, 회장에 오기 전에 남편의 무덤을 찾아가서, 처음으로 강단에 서서 강의를 하게 되는 자기를 격려해 달라고 마음속으로 빌고 왔습니다.

강의실에 들어선 퀴리 부인은, 자기의 첫 강의를 들으려고 몰려온 사회 저명 인사들과 학생들을 향하여 긴장한 얼굴로 입을 열었습니다.

“요 10년 동안 물리학이 굉장히 진보한 것을 생각해 보면, 전기나 물질에 대한 우리들의 견해가 너무나 많이 달라져 놀랄 정도입니다.”

“아니, 인사말도 안 하고 바로 강의를 하잖아. 아주 쌀쌀한 사람인가 봐.”

“글쎄 말이야. 인사말을 들으러 왔는데, 곧바로 강의를 시작하다니…….”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지 않아서 좋군요. 피에르 교수가 말아서 가르치던 강의의 후임자로서는 안성 마춤인 훌륭한 학자군요.”

퀴리 부인의 파리 대학에서의 첫 강의에 인사말을 들으러 온 모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세상을 떠난 피에르 교수가 그 대목까지 강의를 한 때문입니다. 남편의 노트를 조사하여, 거기서부터 자기의 강의를 시작한 부인의 깊은 마음씨에 사람들은 새삼스레 감탄했습니다.



두 번째의 노벨 상

어머니로서의 퀴리 부인은 하루의 대부분을 대학이나 연구실에서 지냈습니다. 두 딸을 어떻게 키울까에 대해서는 생각만 했지, 실제로는 집을 지키고 있는 시아버지에게 맡기고 있었었습니다.

아이들의 일과는 공부가 1 시간이고, 그 뒤는 산책, 체조, 찰흙놀이, 꽃손질 등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



너들에게 식물의 아름다움을 보이고, 곤충이나 작은 동물을 길러서 사랑하는 즐거움, 마음이 착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시나 동화도 자주 읽어 주셨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의 노는 날에는 어머니가 딸들을 자전거에 태워 교외로 데려갔습니다. 이 엄마는 수영을 잘 하였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디로 데려갈 거야? 오늘도 해엄을 쳐요.”



몸과 마음이 튼튼한 아이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심부름을 시키기도 하고, 밤에 램프를 들고 가서 캄캄한 방에서 물건을 가져오게 하여 무서움을 타지 않게 하였습니다. 등산도 하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승마도 가르쳐서 인내성을 길렀습니다.

엄마 대신에 아이들을 돌봐 주신 인자하신 할아버지가 19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남편 피에르가 세상을 떠난 지 4년째 되는 해였습니다. 부인은 이 때에 제일 힘이 빠졌습니다.





폴란드에 계시는
친정 아버지는 8년
전 라듐을 발견한
해에 돌아가셨고, 의
사인 브로냐 언니 부
부는 지금 폴란드로
돌아가 가난한 사람
들을 위해 요양원을
하고 있습니다. 프
랑스에 있는 부인은
외토리가 된 셈입니
다. 대학의 강의, 실
험, 그리고 집안일,
열 세 살과 여섯 살
난 딸들의 교육 등
몇 사람 몫의 일을
해야 했습니다.

이 1910년에 《방
사능 개론》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는 남편 피
에르의 학술 이론과 일생에 대해서 자세히 썼습니다.

그리고, 이 해에 라듐을 잡것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금속의 형태로 완성했기 때문에, 다음 해 1911년에 노
벨 화학상을 받았습니다.

같은 사람이 노벨 상을 두 번이나 받은 것은 퀴리 부
인이 처음입니다.

이후에도 이런 일은 드물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연구소를 만들고, 그 소장으로 와 달라고 교섭을 해 왔읍니다.

‘주인이 세상을 떠나 홀몸이 되었으니, 돌아오라는 것일까? 우리 나라도 점점 잘 되어 가니까 기쁘구나. 그러나 지금까지 좋은 연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프랑스 덕분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프랑스 사람인걸. 정중히 거절하자.’



연구소의 개소식에는 기쁘게 참석하여 과학에 관한 강연을 하였습니다. 폴란드 출신의 대과학자를 맞이하여, 회장은 입추의 여지도 없을 만큼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그 사람들을 향해 당당히 폴란드어로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연구하는 것을 보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연구소가 훌륭하여 부러울 정도입니다. 우리들이 연구하고 있는 방사능은 지금까지의 과학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오려 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 돌아와서 폴란드어로 말하는 강연은 물론 처음입니다. 강연을 하는 동안에 눈물이 나서 견딜 수 없었습니다.

모국에서 베풀어 주는 환영회는 어디서나 기쁘기만 하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폴란드 부인회에서 베푸는 환





영회 석상에서, 머리가 하얗게 센 나이 많은 할머니를 본 부인은 자기 자리를 떠나 그 곁으로 갔읍니다.

“시코르스카 선생님이지군요.

안녕하셨습니다. 오늘
잘 오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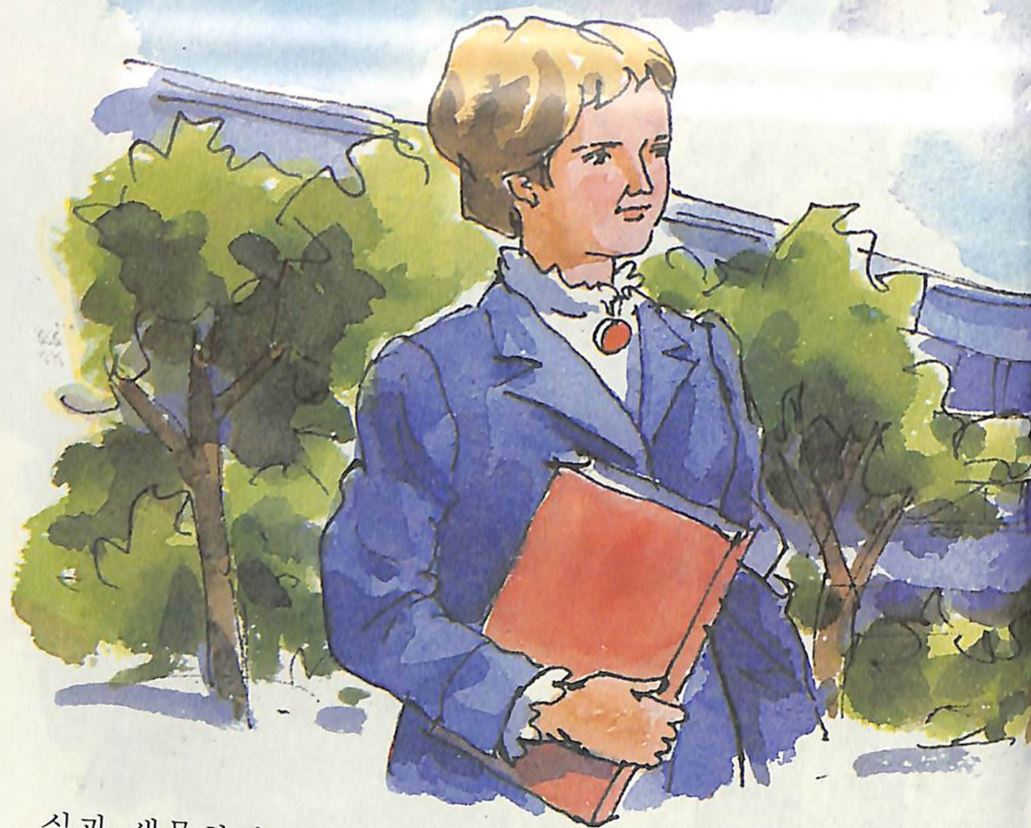


“아, 마니아 씨. 아니, 마담 퀴리. 훌륭한 일을 하
셨어요. 나는 그저 기뻐서, 기뻐서.”

국민 학교 때, 엄한 러시아의 감독 아래서 몰래, 그
러나 확고한 신념으로 모국어를 가르쳐 준 시코르스카
교장 선생님의 작은 몸을 부인은 정답게 꼭 껴안았읍
니다.



폴란드의 연구소 개소식 때 쿼리 부인이 좋은 이야기를 하였다는 말을 듣고, 세균학자 파스퇴르의 연구소가 방사능 연구소를 새로 건설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소르본 대학은 부인을 그 연구소에 뺏길까 봐 염려하여, 서둘러 정부에 이야기하여 파스퇴르 연구소와 소르본 대학이 공동으로, 방사능 실험



실과 생물학적 연구를 위한 연구실을 가진 연구소를 세우기로 결정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소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크게 기뻐하면서, 연구소의 설계에 대하여 열심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연구소는 밝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오도록 합시다.”

“방사능은 알지 못하는 사이에 몸에 들어가며 해롭



습니다. 연구원의 건강이 중요합니다. 뜰을 넓게 잡읍시다. 나무도 심읍시다.”

1914년, 부인이 마흔 일곱 살 되던 해의 7월에 연구소가 완성되었습니다.

피에르 퀴리로(路)라는 이름이 붙여진 길을 따라 세워진 연구소의 입구에는 <라듐 연구소——퀴리관(館)>이라는 표석을 단단히 박았습니다.



세계 대전 때 활약하다

퀴리 부인이 남편 피에르를 위해 기다리고 기다린 연구소가 완성된 것은 1914년 7월이었습니다. 그리고, 세계 대전이 벌어지게 된 것도 역시 같은 해의 7월입니다.

부인은 여름 휴가를 꼭 쉬려고 브레타뉴 반도에 있는 별장을 빌어서, 하녀를 딸려 아이들을 먼저 그리로 보냈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빨리 전개되어 파리를 떠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의 소장으로서 파리에 남은 어머니는 불안해하

는 딸에게 매일처럼

편지를 써 보내어

힘을 북돋워

주었습니다.



연구소의 연구원이 연달아 군대에 징집되어 나갔읍니다. 심장이 나쁜 기계 담당 직원과 심부름하는 아주머니만 남아 빈 집이나 다름없이 되었습니다.

도이칠란트, 오스트리아 등 동맹국과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인데, 유럽의 나라 모두가 적과 우군으로 갈라졌습니다.



‘나라가 있어야만 연구도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프랑스가 지면 큰일이다. 내 연구로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전쟁이 커져서, 전선에서 상처를 입고 병원으로 후송되어 오는 군인이 날이 갈수록 많아져 갔읍니다. 부인은 엑스 선(線)을 사용하여 일을 하려고 생각했읍니다. 뢰트겐 박사의 엑스 선은 약 15년 전에 발견되었는데, 그 엑스 선으로 몸 속의 상태를 잘 알 수 있음



니다. 기계가 크기 때문에 큰 병원에만 있었습니다. 대학 연구실에 있는 것과 제조 공장에 있는 것들을 각 병원에 보냈습니다. 기계를 움직이는 교수나 기사를 모으느라고 애도 썼습니다.

야전 병원에도 그 기계가 배당되게 했으면 하고 노력도 했습니다. 20대의 자동차에 엑스선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그 중의 한 대에는 자기가 타고 지시를 했습니다.



병원에 엑스 선 치료실을 200군데나 만들었으며, 부인이 만든 엑스 선 기계반 덕분에 구조된 부상자가 100만 명도 넘을 것이라고 합니다. 대단한 숫자입니다.

“저 마른 간호원은 누군가요? 어려운 기계를 움직이는데, 여자 의사인가요?”

“연구소에 계시는 퀴리 부인입니다. 이동 엑스 선 반의 반장입니다.”

“퀴리라니, 저 노벨 상을 받은 퀴리 부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온 프랑스의 병원이나
전선을 돌아다니며 진료를 해 주신답니다.”

파르스름하게 빛나는 형광판에 의하여, 뼈 속에 박
힌 탄환이나 포탄의 파편을 쉽게 찾아 낼 수 있었습니
다. 군의는 그 곳을 메스로 베어서 파편을 꺼내고, 소
독을 하고 그 자리를 꿰맵니다. 그전 같으면 몇 시간
이나 걸려서 손으로 더듬어 찾아서 하는 수술이 겨우
20~30분 만에 끝낼 수 있기 때문에, 부상병들은 빨리
회복이 되었습니다.

전쟁이 4년 동안이나 끝었기 때문에, 별장에 피난간 두 딸은 어머니가 없는 빈 집을 지키고 있는 셈이 되었습니다. 열 아홉 살이 된 큰딸 이레느는 어머니의 조수가 되어 엑스 선 자동차에 타기도 하고, 병원에서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1918년에 전쟁이 끝났습니다. 도이칠란트가 항복을 하고, 프랑스 등 연합군이 이겼습니다.

“전쟁이 끝났다. 평화롭게 되었다. 국기를 올리고 축하합니다.”

“연구소의 창마다 국기를 내걸시다. 아주머니, 국기를 꺼내 주세요.”



“소장님, 국기를 더 사 옵시다.”

온 시내를 돌아다녔지만, 국기가 동이 나 살 수 없었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하는 프랑스의 3 색기를 그 날이야말로 크게 휘날리고 싶었습니다.

빨간 천과 흰 천과 푸른 천을 샀습니다. 그것을 여럿이서 자르고 기워서 국기를 만들었습니다.



연구소의 창에
내걸었습니다. 창
이라는 창에는 모
두 3 색기를 내걸
었습니다.

엑스 선 자동차
를 타고 거리의
광장으로 가서, 만
든 국기를 사람들
에게 나눠 주었읍
니다. 집집마다 거
리마다 깃발이 휘
날리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고생
을 한 끝에 온 평
화입니다. 이제 전
쟁은 지긋지긋합
니다. 전세계가 평
화롭게 된 것을
축하했습니다.

또 한 가지 커다란 기쁨은 모국 폴란드가 독립한 일
이었습니다. 100년 동안이나 다른 나라의 지배 아래에
서 고통을 받고 있던 폴란드가 독립했습니다. 어릴 때
분했던 기억들이 한꺼번에 사라진 부인은 폴란드 만세
를 소리 높이 외쳤읍니다.



빛나는 해외 여행

평화가 찾아오자, 부인은 퀴리 연구소장으로서 또 바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연구소에 도착하면 현관에서 벌써 많은 학자에 둘러싸이게 됩니다.

“○○ 연구반의 어제의 보고입니다.”





“실험 결과가 이렇게 나왔는데, 예상과 다르게 나왔습니다. 어디서 달라졌을까요?”

연구원이 열심히 묻는 질문에 일일이 친절히 상대해주느라고, 어떤 때는 층계에 앉은 채 시간이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미국의 부인 기자 멜로니 씨가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말을 잘 하는 미국 기자도 부인이 실험할 때 입은 옷을 입은 채로 나와 조용히 이야기하는 얼굴을 보고는, 연구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 같아 진심으로 미안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라듐이 50그램이나 있지요. 잘 쓰여지고 있겠지요?”

하고 부인이 먼저 말을 꺼냈기 때문에 겨우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프랑스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까?”

“우리 연구소에 1그램하고, 좀더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라듐의 발견자인데도 겨우 1그램밖에 안 가졌단 말입니까?”

“제 것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그 1그램은 연구소의 것입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들어 드린다면 당신은
무엇을 제일
원하시겠음
니까?”



“연구를 하기 위해 라듐이 1그램쯤 더 있으면 좋겠는데, 비싸서 여간해서는 손에 들어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멜로니 부인은 미국에 돌아가자 퀴리 부인과의 회견기를 싣고, 사람들에게 호소하여 라듐을 부인에게 보내는 운동을 벌였습니다.

“라듐을 발견한 사람이 라듐을 갖고 있지 않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연구를 전부 공개하고 특허를 거절했기 때문에, 라듐을 제조하는 회사만 이익을 보고 있다는군.”

1년 정도로 큰돈이 모였습니다.

“미국 국민은 위대한 부인을 보고 싶어합니다. 라듐은 대통령께서 직접 부인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꼭 미국에 오십시오.”

하고 초청장을 보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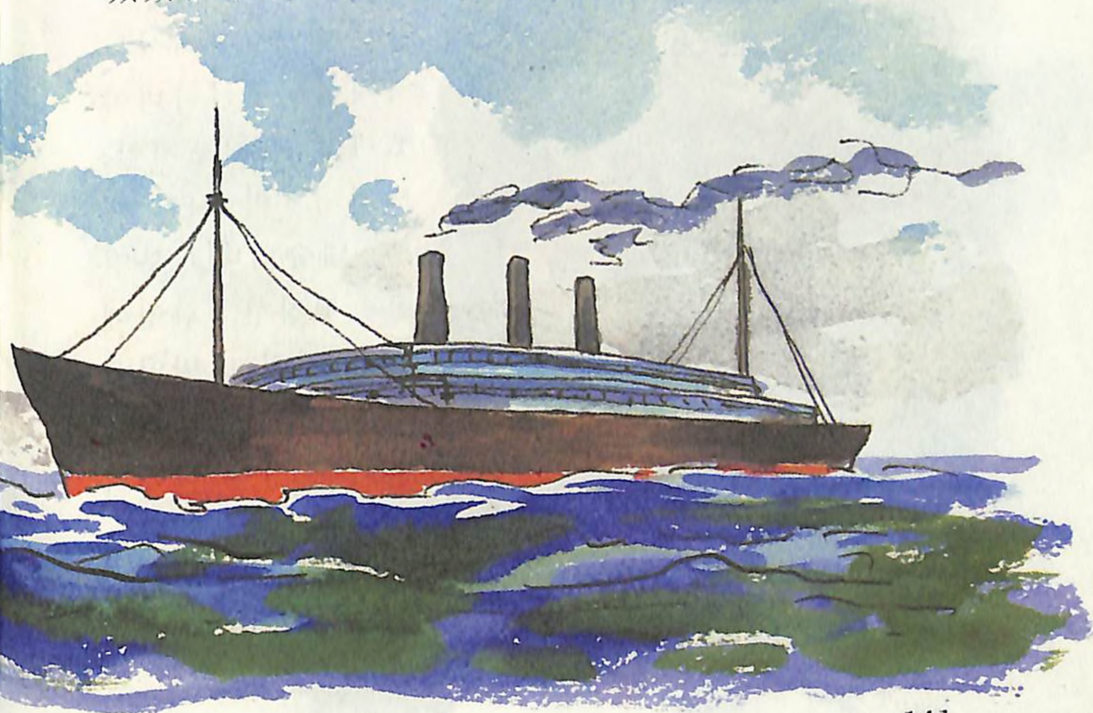


라뭉을 얻는 것은 기쁩니다. 그러나, 여러 사람 앞에 나서는 것과, 지나칠 정도로 화려하게 환영을 받는 것은 오히려 괴로운 일입니다. 아이들과 헤어지는 것이 괴롭다는 등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거절했지만, 대접하기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입니다.

“따님들도 부디 함께 오셔서, 천천히 미국의 각지를 구경하십시오.”

이렇게까지 말하기 때문에, 더 거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921년의 5월입니다. 부인은 이레느와 에브를 데리고 올림픽 호를 탔습니다. 부인은 쉰 네 살이 되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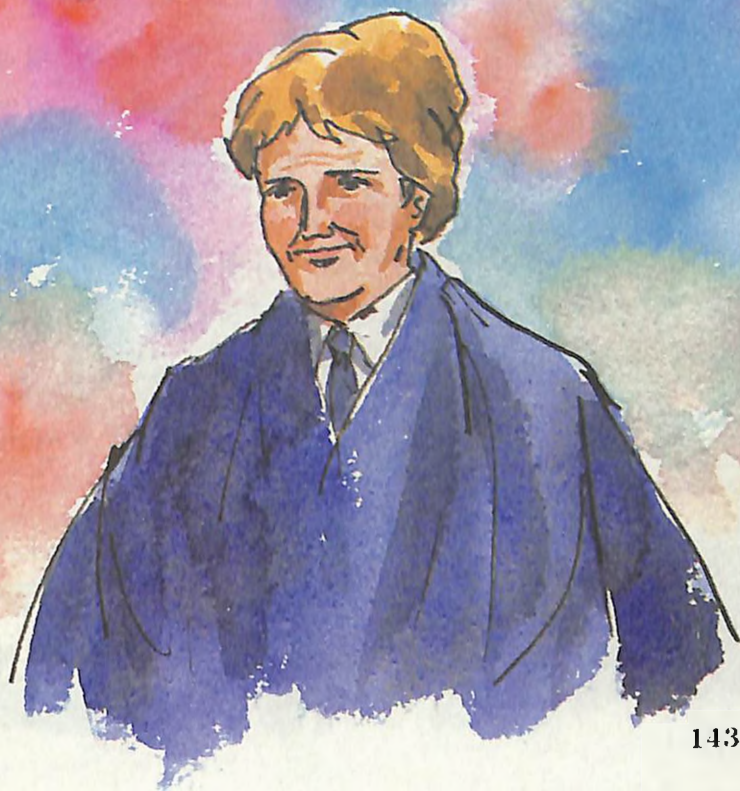


미국 항구에 도착하자, 화려한 것을 좋아하는 미국 사람들이 기창하게 환영을 했습니다. 꽃다발, 또 꽃다발, 카메라, 또 카메라입니다. 첫날부터 부인은 놀랐습니다.

온 미국 사람의 호의로 미국에 온 것이므로 감사의 말을 하기 위해서도 각지를 돌아다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미국은 너무 넓습니다. 부인은 굉장한 환영에 그만 지치고 말았습니다. 두 딸은 처음에는 부인을 따라다녔는데, 그것이 어느 사이에 퀴리 부인의 대역을 맡게 되었습니다.

피로한 부인 대신에 이레드가 대학 교수의 예복을 입고, 명예 박사의 학위를 받고, 부인을 위해 준비한 찬사의 말을 듣고, 부인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곤 했습니다.

라둠의 증정식은 워싱턴의 백악관에서 행하여졌습니다. 목록 이름이 <퀴리 부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퀴리 연구실에 기증한다>라고 다시 고쳐 쓰게 할 만큼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욕심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2 개월
동안 걸린
이 여행은 부인과
두 딸에게는 평생 잊지
못할 화려한 여행이었습니다.

이 여행은 부인의 심경과 태도를 바꾸게 한 커다란 의미가 있는 여행이었습니다.

여행하기 전에는 연구만을 위해서 살고, 세상일에는 그리 관심이 없는 좀 성미가 괴팍한 부인이었지만, 과학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 결과, 자기가 세계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늦게나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는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일이나 강연을 해 달라는 부탁을 그전처럼 싫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여행도 끝나고, 연구 경과를 일반 사람들에게도 알기 쉽게 설명하는 데 힘쓰게 되었습니다.



최후까지 연구, 또 연구

1920 년에 연구소를 후원하는 <퀴리 재단>이 생겼습니다.

1923 년에는 파리에서 라듐 발견 25주년의 기념제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나이 먹은 언니와 오빠가 바르샤바에서 와서 참석했습니다. 막내동생의 훌륭한 명예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습니다.





역시 과학의 길로 나아가 어머니의 조수일을 맡고 있는 장녀 이레느는 우수한 퀴리 연구소원이며 착실한 프레드릭 졸리오와 결혼했습니다. 퀴리 집안의 훌륭한 후계자가 생겼습니다.

퀴리 연구소에는 전세계에서 퀴리 부인을 흠모하여, 우수한 연구 학자가 모여들었습니다. 15년 동안 483편의 훌륭한 <연구 보고 논문>이 나왔습니다. 방사능의 신비를 하나하나 풀어 나갔습니다. 훌륭한 졸업 논문이나 박사 논문도 34편이나 있었습니다. 소장으로서의 바쁜 생활 속에서도, 퀴리 부인이 쓴 논문이 31편이나 되었습니다.

학자에게 있어서 연구는 언제까지나 계속됩니다.

퀴리 부인은 라듐을 발견한 뒤에도,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을 연구하여 <방사능>이라는 이름을 지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방사능을 완전히 밝혀 내려고 늘 애쓰고 있었습니다. 부인의 라듐은 피치블렌드에서 분리한 천연 라듐이지만, 이레느와 졸리오 부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천연 라듐과 같은 힘을 지닌 것을 인공으로 만들 수 없을까 하고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차차 연구가 정리되어 1934년에는 거의 완성되었습니다. 인공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면 그것을 응용할 수 있는 곳도 많고, 큰 발견이라고, 퀴리 부인은 젊은 부부의 연구를 믿음직스럽게 지켜 보고 있었습니다.

젊은 학자들의 선두에 서서 꾸준히 연구를 하여 온 부인은, 사실은 병과 싸우며 피로와도 싸우고 있었습니

다. 전쟁이 끝나 연구소가 다시 열린 지 2년 후인 1920년에 양쪽 눈이 흑내장에 걸렸습니다. 과학자의 눈, 특히 부인의 눈은 중요한 연구자의 눈입니다. 연구원들도 모르게 10년 동안에 네 번이나 눈의 수술을 받아 겨우 나왔습니다.

“이레느 언니, 엄마의 얼굴 빛이 나쁘지? 연구를 하시느라고 너무 무리를 하셔서 그러신 거야.”

“정말이야. 집에서 쉬시라고 하면 기분 나빠 하시니까 큰일이야, 에브.”

“선생님, 좀 쉬십시오. 건강이 걱정입니다.”

딸들과 연구소원은 부인의 건강을 염려했습니다.

연구소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혈액 검사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혈액 검사만 했을 뿐 휴양이나 치료는 할 생각도 안 했읍니다. 부인의 혈액을 검사한 결과는 <이상 있음>, 나쁘다고 나왔읍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당연합니다. 30년이 나 전부터 라듐을 취급하고, 라듐의 방사물을 쏘어 왔읍니다. 세계 대전이 벌어졌을 때의 4년 동안은



더 위험한 엑스 선 장치의 방사능을 몸에 받고 있었으니까요.

1933년 12월에 담석증이라는 진단을 받자, 수술을 받는 것을 싫어하여 조용히 요양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아픔이 사라지자 주위 사람들에게 건강한 모습을 보이려고 스케이트를 지치기도 하여, 어린아이 같은 면을 보여 주기도 했습니다. 피로가 심하고, 마르고, 얼굴 빛이 창백해서 걸으로 보기에는 확실히 환자



지만, 위나 장은 튼튼하기 때문에, 의사는 병명을 잡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해 1934년 5월의 어느 날.

“나, 몸에 열이 있어서 먼저 돌아갑니다.”

라고 조수에게 말하고, 연구소를 떠난 것이 연구소를 마지막으로 본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혀 원인을 알 수 없는 높은 열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핵>일는지도 모른다고 전지 요양을 하였습니다. 일을 잊어버리고, 폭 쉼다는 뜻에서 전지 요양은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세밀히 검사를 해 본 결과 결핵이 아니었습니다.

“악성 빈혈증입니다. 적혈구와 백혈구가 적고, 또 밸린스도 잡혀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까요? 무슨 약을 먹어야 합니까?”

“부인이 연구하는 방사능 속에 어떤 강한 작용이 있었던 게 아닐까요? 피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피를 만드는 골수(骨髓)도 파괴된 것 같습니다.”



40도의 고열이 계속되었습니다. 고열 속에서도,
“제목이 있는 데는 모두 같게 해 주세요. 이 책을 출판할 생각이 난 것은…….”
하고, 곧 나오는 《방사능》이란 책에 대하여 헛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7월 4일 아침, 알프스에 태양이 솟아오르기 시작했을 때, 에브와 의사에게 양손을 꼭 잡힌 채 부인은 숨을 거두었습니다. 아직. 예순 일곱 살이었습니다.



늘 시험관을 만져 딱딱하게 못이 박히고 거칠어진 손가락. 라뒀으로 탄 부인의 손은 조용히 가슴 위에 합쳐졌습니다. 훌륭한 연구를 계속하여 온 숭고하고 위대한 손입니다.

프랑스 정부는 장례를 국장으로 한 생각이었지만, 퀴리 집안은 이를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7월 6일, 퀴리 부인의 유해를 담은 관은 요양을 한 알프스의 상셰르모에서 소오의 묘지로 운반되어, 28년 전에 세상을 떠난 피에르 퀴리와 함께 묻혔습니다.

부인에게는 남편 피에르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많았을 것입니다.

폴란드에서 달려온 조세프와 브로냐 남매는 가지고 온, 새로 독립한 폴란드의 흙을 제2의 나라 프랑스에서 영원히 잠들려고 하는 동생 마리의 관 위에 조용히 뿌렸습니다.

고열로 누워 있을 때, 헛소리까지 하며 걱정을 한 책이 호화본으로 출판되어 나왔습니다. 두꺼운 연구 서적인데, 저자는 <피에르 퀴리 부인>으로 하여, 언제나 남편 피에르를 잊지 않았읍니다.

제목은 《방사능》이라는 다만 세 글자뿐이었지만, 연구소의 책꽂이에 톱위 있게 꽂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 해 연말, 이레느 부부의 《인공 방사능》이 또한 노벨 화학상으로 포창되었습니다. 퀴리 집안으로서는 세 번째로 받은 노벨 상입니다. 과학자의 집안으로 얼마나 명예로운 일입니까.

라듐을 발견함으로써 여러 가지 방사능을 연구하게 되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원자력을 연구하게 되었으며,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로 크고, 깊게, 굉장한 발전을 해 나갔습니다.



어둠을 밝힌 라듐의 불꽃

최 미 나

〈소설가〉

마리 퀴리 부인은 새 원소 라듐을 발견했고, 그것을 깊이 연구하여 그 때까지 생각조차 못 했던 방사능 과학으로의 길을 연 위대한 과학자였습니다. 세계의 학계에서 최고의 명예인 노벨상을 두 번이나 받은 사람은 퀴리 부인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퀴리 부인이 〈과학의 어머니〉로서 존경받고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퀴리 부인은 항상 자기 자신에게 정직했고, 진실한 생활을 한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퀴리 부인은,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과학을 발전시키는 것이 바로 인류의 행복을 가져오게 하는 것이라고 믿고 평생 동안 열심히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피에르 퀴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한 후에는,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집안일이라든가 아이를 기르는 일 등 잡다한 일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남편 연구실의 실험 주임이 되기도 하며 깊이 연구를 해서 빛나는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퀴리 부부는 언제나 한 몸이 되어, 몸도 마음도 오직 연구를 위해 바쳤다고 하겠습니다.

퀴리 부인의 위대함을 다음의 세 가지 점으로 더듬어 볼까 합니다.



1. 한없는 탐구심과 진지한 연구 태도

수많은 연구 보고서와 논문집 가운데서 우라늄이 방사하는 광선에 대한 베크렐의 보고가 다른 것과 색달라서 뭔가 새로운 연구 부문이 될 것 같다고 예상한 일과, 그것을 연구해 나가다가 새 원소가 있다는 것을 알자, 그것을 학회에서 예고한 일 등을 보면, 부인이 항상 신중히 연구를 했고, 커다란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고를 하는 데는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공표를 해서 학자 전체의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연구하는 학자가 많아져서 협력을 얻을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은 경쟁입니다. 예고를 한 사람의 입장 때문에 자기 자신에게 가혹할 정도로 엄한 태도로 연구를 추진해 나간 수 년 동안의 고통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을 것입니다. 남편이 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뒤, 남편이 하던 강의를 부인이 맡아서 하게 되었을 때, 인사의 말도 생략하고 대뜸 본론으로 들어간 첫 강의 때의 일 등, 학문에 대한 진지한 태도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퀴리 부부를 비평하여, 남편인 피에르는 몽상가이고 물리학적이며 직관형이라고 하고, 그에 반하여 아내인 마리는 실제적이고 화학적이며 논리형이라고 말한 사람이 있음



니다. 성격이 꼭 정반대인 셈인데, 서로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충해 가면서 이처럼 큰 연구를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다 개성이 강하고 연구만 파고드는 사람이며 화려한 사교는 싫어했기 때문에, 한 사람씩 따로 있었다면 한 쪽으로 치우친 별난 연구가가 되고 말았을 것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퀴리 부인이 남편 피에르에 대하여 쓴 《피에르 퀴리 전》에는 그들 부부가 생각하고 있던 일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일 우리 둘 중에 하나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라듐을 연구하는 일은 꼭 완성시킵시다.”

“몸이 꼭 고단하죠. 하지만, 이건 우리 자신과 싸우는 것이기도 한 거요.”

“교장 선생님, 장관에게 저의 감사의 뜻을 전해 주십시오. 훈장을 받을 필요는 조금도 느끼지 않습니다만, 실험실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듐을 제조하는 순서도 공포합니다. 특허를 받는 것은 그만둡시다. 과학은 모든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2. 애국심

폴란드 사람들이 러시아의 관리들에게 억눌려 자기 나라 말조차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일은, 일제 시대



우리 나라 사정과 비슷합니다. 학생들이 폴란드 말로 공부하는 것을 단속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버지가 부장학관 직책을 갑자기 빼앗긴 것을 보면, 퀴리 부인의 집안은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 매우 강했던 모양입니다. 폴란드의 독립은 어렵지만, 정신적으로 자립을 하자면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프랑스까지 가서 대학 교육을 받은 것이었습니다.

3. 넘치는 사랑, 따뜻한 마음의 연결

어머니와 언니를 일찍 여윈 퀴리 부인의 어린 시절은 불행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을 극복한 퀴리 부인의 주위에는 서로 믿는 따뜻한 애정이 넘치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병든 어머니를 간호하는 가족에, 언니의 유학 비용을 대어 주는 우애, 그리고 늙은 아버지를 위로하는 효성스런 마음씨. 피에르와 결혼한 후에는 그것이 참으로 일심 동체가 되어 연구와 씨름을 한 부부애가 되었으며, 아이의 어머니가 된 후에도 연구소장으로서는 바쁜 몸이면서도 어떻게 해서든지 아이들을 위한 시간을 내려고 마음을 쓰는 어머니의 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큰딸은 어머니의 뒤를 이어 화학자가 되었고, 작은딸은 훌륭한 작가가 되어 어머니의 전기를 썼습니다.

연 표

연대	나이	퀴리 부인의 생애와 업적	
1867		11월 7일, 폴란드의 바르샤바에서 다섯 남매 중 막내로 출생.	
1876	9	1월에 언니 조사가 장티푸스로 죽음.	
1878	11	5월에 어머니 사망.	
1881	14	사립 시코르스카 학교 졸업 후 관립인 클라코 고등여학교에 입학.	
1883	16	클라코 고등 여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여 금메달 탐.	
1884	17	가정 교사로 일하면서 언니의 파리 유학을 도움.	
1885	18	1월, 바르샤바 교외에 있는 시투기 마을 제트 씨 집에 가정 교사로 감.	
1890	23	언니 브로냐가 도르스키와 결혼하고 파리에서 병원을 개업함.	
1891	24	파리에 가서 언니 집에 하숙하고 소르본 대학에 입학함.	
1892	25	칼체라탕에 하숙.	
1893	26	물리학 학사 시험에 합격.	
1894	27	수학 학사 시험에 합격. 피에르 퀴리 만남.	

연대	나이	퀴리 부인의 생애와 업적	
1895	28	피에르 퀴리와 결혼.	
1896	29	중등 교사 시험에 1등으로 합격.	
1897	30	우라늄의 방사선을 연구하기 위해 물리 학교의 창고에서 실험 시작. 9월 12일, 만딸 이레느 출생.	
1898	31	4월, 새 원소에 관한 것을 학계에 발표. 7월에 새 원소를 발견하여 폴로늄이라고 명명. 또 하나의 새 원소를 예측하여 라듐이라고 이름 지음.	
1902	35	라듐 발견.	
1903	36	소르본 대학으로부터 이학 박사 학위 받음. 베크렐과 피에르와 함께 영예의 노벨 물리학상 수상.	
1904	37	노벨 상 수상 기념 강연을 위해 스웨덴 여행. 피에르가 소르본 대학 교수로 임명됨. 둘째 딸 에브 출생.	
1906	39	피에르, 교통 사고로 사망. 소르본 대학 물리학 강사로 임명됨. 11월 5일에 소르본에서 처음 강의.	

연대	나이	퀴리 부인의 생애와 업적	
1908	41	피에르의 후임으로 소르본 대학 교수에 임명됨.	
1910	43	《방사능 개론》을 출판. 금속 라듐을 분리하는 데 성공. 시아버지 사망.	
1911	44	노벨 화학상 수상.	
1913	46	폴란드의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하여 강연.	
1914	47	7월, 파리에 라듐 연구소가 세워지자 소장에 취임. 제 1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자 X선 기계반을 지휘, 각지를 돌며 환자를 치료.	
1920	53	퀴리 재단이 생겨 라듐 연구소를 후원.	
1921	54	5월, 멜로니 부인의 활약으로 미국에 초청되어 라듐 기금(基金)을 받음.	
1923	56	파리에서 라듐 발견 25주년 기념 행사가 열림.	
1932	65	폴란드의 라듐 연구소 개소식에 참석.	
1934	67	5월, 연구소에서 병이 남. 7월 4일, 상세르모에서 방사능의 장애 때문에 세상을 떠남.	

학습 역사 인명 사전

감 수 / 심 경식(아동문학가 · 서울 시초국민학교 교장)
 <부수> 김 종상(아동문학가 · 서울 유석국민학교 교사)
 도 재희(아동문학가 · 서울 광장국민학교 교사)
 김 일환(아동문학가 · 서울 당곡국민학교 교사)
 최 영재(아동문학가 · 서울 신월국민학교 교사)

● 진홍왕	162
● 켄넬린	165
● 차이코프스키	168
● 채 만식	177
● 채 윤	179
● 처어철	181
● 척 준경	188
● 체호프	191
● 최 남선	199
● 최 명길	202
● 최 무선	205

● 이 <학습 역사 인명 사전>에는 교과서에 나오는 인물을 중심으로 역사 공부나 전기 공부를 하는 데 도움이 되는 인물을 선정하였습니다.

역사 공부에 나오는 인물들은 위대한 업적을 남긴 사람도 있지만, 큰 사건에 관련된 사람도 있고, 나쁜 일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역사 공부를 하는 데는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자주 등장하므로 이 사전은 이런 공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眞 興 王 (534~576)

— 화랑 제도를 처음

실시한 임금 —

신라 제 24 대 임금으로, 법흥왕의 조카이다. 7 세에 왕위를 계승하여, 처음에는 왕태후(王太后)의 섭정을 받다가, 12년이 지난 551년 연호를 개국(開國)이라 정하고 친정을 시작하여 많은 업적을 남김으로써, 장차 삼국 통일을 위한 신라의 기초를 닦았다.

진흥왕 이전의 신라는 삼국 중에서 영토가 가장 좁고, 문화면에서도 대륙과 직접 교역하는 길이 없었기 때문에 뒤져 있었다. 이 때, 고구려는 전성기가 지난 무렵이며, 신라와 백제는 각각 고구려에게 빼앗긴 옛 땅을 회복하려고 애쓸 무렵이었다.

551년, 두 나라는 동맹하여 군사를 일으켜, 백제는 임진강 남쪽을 공략하고, 신라는 북한강 유역(지금의 강원도



지방)을 차지했으며,
 뒤이어 신라는 백제
 가 공략한 땅도 합쳐
 서 차지하게 되었다.
 이에 격분한 백제의
 성왕은 554년, 친히
 대군을 거느리고 신
 라에 쳐들어왔으나,
 성왕까지 전사하는
 참패를 당하고 말았
 다. 신라가 한강 하
 류 지역에 신주(新
 州: 지금의 광주)
 를 설치하게 된 것
 은 삼군의 역사를 통
 해서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 것을 의미한
 다. 즉, 한강 유역을



확보함으로써 물적 자원을 획득했을 뿐만 아니라, 종래에
 는 중국 대륙과 교역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백제나 고구려를
 거쳐서만 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서해 남양만으로부터 직
 접 통로가 열려, 외교적 접촉은 물론 문화도 직접 받아들
 일 수 있게 된 것이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가 연합해서 신
 라를 위협하는 길이 이로써 끊어졌다는 것도 신라가 삼국
 통일의 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었다. 한편, 562년에는 화
 랑 사다함으로 하여금 가야 지방을 치게 해서 낙동강 유역
 을 평정하였다.



이리하여, 각지에 주(州), 군(郡)을 설치하여 강력한 군단을 두어 수비하고, 왕이 친히 돌아서 비를 세웠는데, 이것이 유명한 진흥왕 순수비로서, 지금까지 발견된 것은 네 개뿐이다.

이것은 경상 남도 창녕의 창녕비, 서울 북한산의 북한산비, 함경 남도 황초령의 황초령비, 함경 남도 마운령의 마운령비이다. 이 순수비들은 고구려 광개토왕비와 함께 대단히 중요한 유물로 되어 있다.

이 밖에도 진흥왕은 황룡사를 짓는 등 불교를 일으켜 호국 불교로 이끌었으며, 화랑 제도의 실시로 삼국 통일의 기초를 더욱 튼튼히 닦았다.



쾨펠린 (1838~19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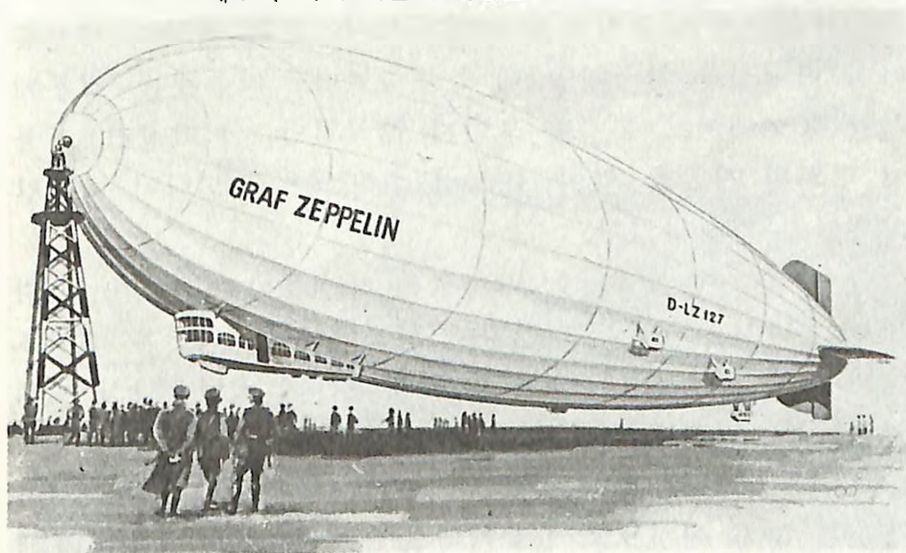
—비행선의 발명자—

페르디난트 폰 쾨펠린은 도이칠란트의 군인이며 발명가로서, 경식(硬式) 비행선 연구에 착수하여 1900년에 14마일 비행에 성공하였다.

쾨펠린은 1838년 7월 8일, 도이칠란트의 콘스탄츠에서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다. 루트비히스부르크 사관 학교와 튀빙겐 대학에서 공부한 후, 1859년에 그는 육군 장교가 되었다.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1863년에 미국으로 건너가, 북군측 관전 무관(觀戰武官)으로 참전하였다. 그

제 1 차 세계 대전에서 사용된 <쾨펠린 백작호>



때 적군 기지를 관측하기 위해 기구를 올리는 작전에 참가하여 깊은 감명을 받고, 비행선 연구에 일생을 바칠 것을 결심하게 되었다.

하늘을 날고 싶다는 인류의 꿈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시작되었으며, 고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였다.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하늘을 날 꿈을 준 사람 중의 하나이다.

1788년, 열을 가한 공기의 부력을 이용한 몽골피에 형제의 기구가 하늘에 떠오른 이래, 수많은 기구가 하늘을 수놓았다. 그러나, 이 기구들은 공중에 뜨기만 할 뿐이지, 바람이 부는 대로 흘러갔으며,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없었다.

쥘 페린이 고안한 비행선은 경식 비행선이라고 불리는 것으로서, 내연 기관(內燃機關)을 사용하며, 담배 모양의 알루미늄 통에 기체를 담은 구조였다. 이 비행선은 사람이 조종할 수 있었고, 매마침 대량 생산되는 알루미늄을 손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

1891년, 육군 중장으로 퇴역한 그는 모든 시간과 재산을 바쳐 비행선을 연구하는 데 몰두하였다. 처음에는 정부에서나 육군에서도 흥미를 보이지 않았지만, 도이칠란트 공업 협회의 자금을 얻어 1900년 7월 2일, 드디어 쥘 페린 비행선이 완성되었다.

담배 모양의 아름다운 비행선은 사람들의 환성 속에 하늘로 올라가, 14마일의 비행에 성공하였다. 이것은 라이트 형제의 첫 비행보다 3년이나 앞선 것이었으며, 당시 세계의 큰 화제거리가 되었다.

그 후, 정부와 황제 빌헬름 2세의 후원으로 쥘 페린 비행선은 점차 대형으로 만들어져 크게 활약하였다. 제 1 차 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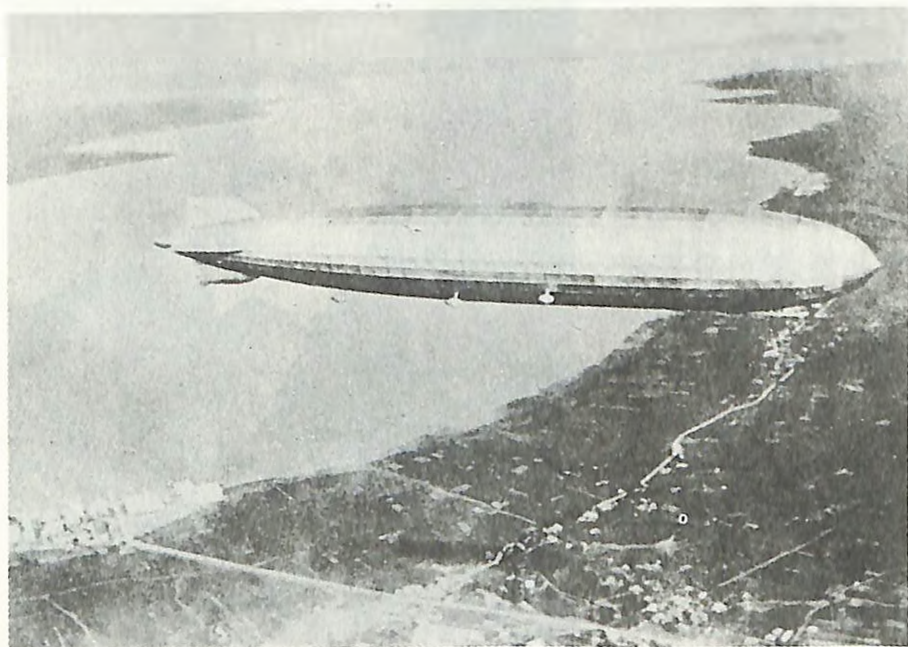
제 대전에서는 <췌펠린 백작호>가 만들어져, 런던을 폭격하는 등 전쟁에 사용되기도 했다. 그러나 췌펠린은 전쟁이 끝나기 전인 1917년에 사망했다.

그 뒤 <힌덴부르크 호>가 미국의 비행장에 착륙하기 직전에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게 되어 췌펠린 비행선은 만들지 않게 되었다.

비행기의 발명과 발달로 인해, 비행선의 모습은 1937년 이후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그러나, 하늘에 유유히 떠 있는 비행선의 모습이야말로 인류의 오랜 꿈의 실현의 상징이었다.

오늘날 비행선 애호가는 점차 늘어 가고 있다. 또한 대량 수송 수단으로서의 우수한 성능이 재인식되어, 대형 비행선 개발 계획이 다시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하늘을 나는 췌펠린의 비행선





차이코프스키 (1840~1893)

—러시아 근대

음악의 아버지—

피오토르 일리이치 차이코프스키는 러시아의 민족 음악과 서부 유럽의 음악을 연결시켜, 국제적인 러시아 음악을 최초로 만들어 낸 사람이다.

러시아에서 예술, 음악이 발달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에 들어서였다. 프랑스와 도이칠란트에서의 낭만주의 운동은 처음에는 예술과 개인의 감정과 사상을 강렬하게 표현하기 위한 운동이었는데, 나중에는 민족의 특색을 나타내는 운동으로 변하였다.

러시아에도 이런 풍조가 들어왔는데, 이것을 음악의 민족주의 운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러시아에서는 이 민족주의 운동이 뒤에 절충파(折衷派)와 국민악파(國民樂派)라

차이코프스키





는 두 갈래로 갈라지게 되었다.

절충파란 도이칠란트 낭만파의 형식을 빌어서 그 속에 러시아 민족의 특성을 섞어 넣으려는 일파를 말하는데, 이 절충파의 대표적인 작곡가가 안톤 루빈시타인과 피오토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이다.

차이코프스키는 모스크바의 남쪽에 있는 보트킨스크라는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광산의 감독관이었고, 어머니는 프랑스의 혈통을 받은 여인이었는데, 음악을 좋아하여 피아노를 가르쳤다고 한다. 특별히 음악적인 분위기를 가진 가정은 아니었으나, 어머니의 영향 때문인지 차이코프스키는 어려서부터 소리에 아주 민감했다.

그러나, 음악을 좋아했을 따름이지 처음부터 음악가가 되려고 공부를 하지는 않았다. 그 당시만 해도 음악가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모험이었기 때문이다.

8세 때, 차이코프스키의 집안은 모스크바로 이사를 갔는데, 거기에서 그는 많은 오페라를 구경하였다. 그 중에서도 모짜르트의 오페라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가 음악

에 일생을 바치게 된 것은 모짜르트의 덕분이었다고 차이코프스키는 후에 말하고 있다.

그러나, 부모는 차이코프스키를 공무원으로 출세시키기 위해서 법학 공부를 시켰다. 1852년, 그는 아버지의 권유로 페테르스부르크의 법률 학교에 들어가 법률을 공부하였다. 졸업 후에는 사법성에 들어가 공무원이 되었으나, 음악을 동경하는 정열은 더욱 뜨거워 가기만 했다.

그 무렵에 러시아의 대표적인 피아니스트인 안톤 루빈시타인이 페테르스부르크에다 누구나 입학할 수 있는 음악 교실을 열었다.

1861년, 차이코프스키는 이 곳에 들어가 전문적인 작곡가로서의 첫걸음을 내디디게 되었다. 이듬해에, 이 교실은 러시아에서는 처음으로 음악 학원이 되었다. 여기에서 그는 루빈시타인 교수의 지도를 받고, 러시아 국민악파(5인조)의 발라키레프나 코르사코프 등의 영향을 받아 바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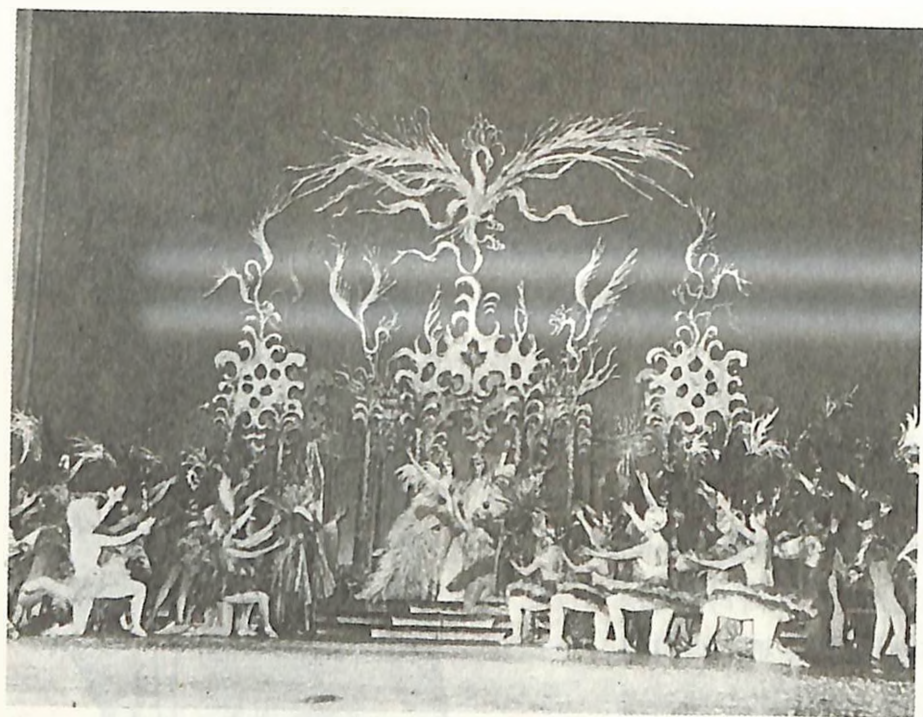
베에토벤 등 미지의 세계를 알게 되었다. 1865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그는 이듬해인 1866년에 모스크바 음악 학원의 강사가 되었다.

그는 이 학원에 12년 동안이나 근무하면서 《제 1 교향곡 (겨울의 환상)》을 비롯해서 오페라 《지방 장관》 《제 1 피아노 협주곡》 등의 대작을 연이어 발표하여, 러시아의 제일선에서 활약하는 작곡가로서 정상을 향하여 성장해 갔다.



당시 러시아의 민족적인 작곡가들의 모임에 <5 인조>라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이들은 외국의 음악을 전혀 빌지 않고 순수한 러시아의 민요를 기초로 한 독창적인 러시아 음악을 만들었다. 이들을 국민악파(國民樂派)라고 불렀는데, 무소르그스키와 림스키 코르사코프를 비롯한 다섯 사람이 중심이 되어 이끌어 나갔다.

차이코프스키도 러시아 민요에 마음이 끌려, 틈이 있을 때마다 술집으로 가서 순박한 농부들이 부르는 민요에 귀



차이코프스키 작 《잠자는 숲 속의 미녀》의 한 장면

를 기울였다. 이러한 민요의 멜러디에는 오랜 동안 황제의 악하고 못된 정치에 시달려 온 농부들의 근심이나 쓸쓸한 감정이 잘 나타나 있어서, 농부들에게 깊은 동정심과 애정을 보내고 있는 그의 마음을 강하게 사로잡았다.

그러나, 그는 미래의 러시아 음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서부 유럽의 음악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도이칠란트의 고전과 음악에 의한 수법을 받아들여 국제성을 띤 아름다운 멜러디의 음악으로 발전시켰다.

1887년, 유명한 《백조의 호수》를 작곡한 해에 제자인 안토니나 밀류코바와 결혼을 했으나, 성격이 맞지 않아 곧 이혼하고 말았다.

천성이 내성적이고 고독한 그는 점점 더 쓸쓸한 심연으

로 빠져들어갔다. 그래서, 한때는 신경 쇠약이 되어 작곡 활동에 방해를 받은 적도 있었다.

차이코프스키가 모스크바 음악 학원의 화성학(和聲學) 교수가 된 지 10년이 된 1876년의 일이다. 이 무렵 그는 말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 시달리고 있었는데, 어떤 알지 못하는 부인으로부터 그가 작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년 6천 루블리를 원조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았다. 물론 그가 죽을 때까지 돕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돈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절대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차이코프스키는 이 제의를 받고 크게 놀랐으나, 고마운 마음에서 두말 않고 그 제의를 받아들였다. 그 후 두 사람은 약속대로 마지막까지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이러한 제의를 한 사람은 나데지다 폰 메크라는 부인이었는데, 어떤 철도 기사의 미망인이었다. 메크 부인은 일



곱 자녀가 있었는데, 남편이 죽은 후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음악과 문학을 즐겼다.

차이코프스키는 이 약속을 한 후에 모스크바 음악 학원의 교수 자리를 그만두고 시골에 가서 작곡에 힘을 기울였다. 여기서 만든 작품이 《제4 교향곡》이다. 차이코프스키는 감사의 뜻으로 이 곡을 그 부인에게 바쳤다. 차이코프스키는 메크 부인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 작품을 〈우리의 교향곡〉이라고 불렀다.

메크 부인은 그 후 13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원조금을 보내 왔다. 그 동안에 차이코프스키는 점점 더 유명해져서 세계적으로 훌륭한 작곡가가 되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우정은 더욱 깊어져서 많은 편지가 오고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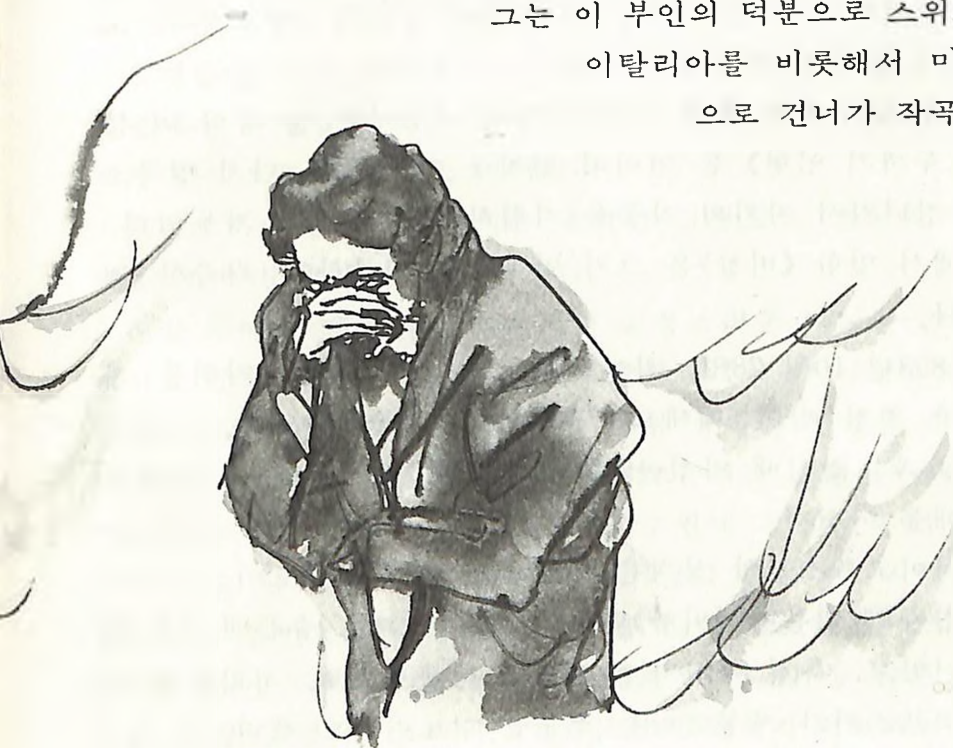


그런데 그가 50세 가까이 되었을 때, 이 우정의 종말이 다가왔다. 메크 부인이 파산을 하여 그 이상 더 원조할 수 없게 되었다는 편지가 부인에게서 온 것이다.

메크 부인으로부터 이별의 편지를 받은 차이코프스키는 가난과 병에 시달리는 그 은인을 구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썼으나 모두가 허사였다. 끝내 부인으로부터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로부터 4년 후, 차이코프스키가 53세(1893년)때에 만든 작품이 유명한 교향곡 제6번《비창(悲愴)》이다.

차이코프스키는 임종할 때에도 헛소리로 메크 부인의 이름을 부르면서, 끝내 만날 수 없었던 그 부인을 그리워하였다고 한다. 부인도 뒤를 따르듯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그는 이 부인의 덕분으로 스위스,
이탈리아를 비롯해서 미국
으로 건너가 작곡가





와 지휘자로서 활약했다. 이 동안에 오페라 《에프게니 오 네긴》 등을 작곡했다.

1881년, 귀국 후에 《제 5 교향곡》 《잠자는 숲 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등 연이어 걸작을 작곡하고, 다시 영국으로 건너가서 자기의 작품을 지휘하여 대성공을 거두었다. 앞에서 말한 《비창》은 그가 영국에서 귀국하여 작곡한 것이다.

1893년 10월 28일, 차이코프스키는 《비창》의 지휘를 자신이 직접 맡아 페테르스부르크에서 공연하였다. 그런데 9일 후, 점심때 마신 냉수 때문에 콜레라에 걸려, 53세로 생애를 마쳤다.

차이코프스키의 성격은 평소에도 늘 우울했으며, 또 이 교향곡의 내용이 《비창》이라는 제목 그대로 슬픔에 가득 찬 것이었고, 특히 마지막 악장이 그러했으므로, 사람들은 차이코프스키가 자살했다는 소문을 퍼뜨리기도 했다.



蔡 萬 植
채 만 식 (1902~1950)

—신랄한 풍자성의 작가—

전라북도 옥구에서 태어난 채 만식은 1924년 《조선 문단》지에 단편 소설 《세 길로》를 발표함으로써 문단에 데뷔했다.

중앙 고보(中央高普)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와세다 대학에서 영문학을 공부하다 중퇴하고 귀국한 그는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그리고 《개벽》사에서 기자 생활을 했다.

오랫동안 기자 생활을 하던 채 만식은 직장을 그만두고, 개성에서 금광업을 하는 둘째 형에게 가 있다가 1945년 일제의 탄압으로 고향으로 내려갔다.

고향으로 내려간 채 만식은 울적한 심정으로 실의의 나날을 보내던 중 해방을 맞이했다.

해방 후에는 폐결핵이 악화되어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면서도 문학 의식은 왕성했으며, 단편집 《잘난 사람들》과 장편 《타류》의 인세를 받아 얼마 동안 풍족한 생활을 하기도 했으나, 많은 치료비 때문에 늘 쪼들리는 생활을 했다.

1932년 무렵부터는, 카프(1925년 7월에 결성된 우리나라의 예술 단체)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으나, 이 시대를 전후하여 동반자적(同伴者的) 작품을 많이 발표했고, 《스님과 새 장사》《사라지는 그림자》《감독의 아내》 등 많은 희곡을 쓰기도 했다. 그러나, 작가로서의 위치가 확고해진 것



중앙 고등 보통 학교 시절의 채 만식(뒷줄 가운데)

은 소설 《레디 메이드 인생》과 《인텔리와 빈대떡》 등의 풍자적인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이후였다. 그의 신랄한 풍자는 그의 중요한 일면을 대변하는 것이기도 하다.

《레디 메이드 인생》은, 직업을 얻을 수 없어 한탄하고 좌절하는 자신의 현실적 무능을 토대로, 자기의 자식만은 절대로 인텔리를 만들지 않겠다는 내용의 소설이다.

1930년대 우리 나라의 사회상을 집약한 《탁류》는 그의 대표작으로서, 한 여인이 세태의 탁류에 휩쓸리는 비극적 사건을 통해 사기와 살인의 현실을 풍자와 냉소(冷笑)로써 고발한 것이며, 1939년에 발표한 《이런 남매》는, 사회에 순응하려는 누이와 고결한 정신을 위하여 현실의 빈궁을 견디는 오빠를 통하여 이율 배반적인 사회의 모순을 그린 것이다.



蔡
채

倫
윤

(50 ? ~ 118 ?)

— 종이를 발명한

중국의 공예가 —

채 윤은 중국 후한(後漢) 시대의 공예가(工藝家)이자 환관(宦官)으로서, 자는 경중(敬仲)이며, 계양(桂陽)에서 태어났다.

계양이라는 곳은 고기잡이, 사냥, 농업, 양잠 등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었는데, 그러한 곳에서 태어난 채 윤이 어떻게 해서 궁중의 환관이 되었는지는 전하는 기록이 없어 자세히 알 수가 없다.

아무튼, 채 윤은 환관으로 있으면서 소황문(小黃門)이라는 직책도 겸하고 있었다. 소황문이란 궁전 안의 중심 관청에 있는 상서(尙書)로부터 문서를 받아 궁전의 각 기관에 전달, 통지하는 임무를 띤 직책으로서 황제의 측근에서 여러 가지 연락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88년 화제(和帝)가 즉위하였다. 그런데, 화제는 그 때 나이가 불과 10세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태후(竇太后)가 섭정을 하게 되었다. 그러자, 태후의 집안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요직을 차지하고 앉아 함부로 권력을 휘둘러 대기 시작했다.

화제는 처음에는 나이도 어리고 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지냈지만, 차차 성장해 감에 따라, 두씨 일족들의 횡포로 조정은 부패하고 백성들은 심한 착취를 당하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채 윤(오른쪽)과 당시의 종이 제조 방법



그리하여, 화제는 채 윤과 또다른 환관 정 중(鄭衆)을 불러 은밀히 협의, 장군들을 지휘하여 두씨 일족을 모조리 몰아내게 하였다. 이 때의 공(功)으로 채 윤은 상방령(尙方令 : 궁중의 여러 기물을 제작하는 관청의 장관)이 되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글씨를 쓸 때, 값이 비싼 비단이나, 또는 대나무를 엮어서 썼는데, 채 윤은 그와 같은 번거로운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종이 만드는 법을 연구하게 되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다. 채 윤은 수차례에 걸친 실험 끝에 마침내 매우 질이 좋은 종이를 만들어 냈는데, 그 때 재료로 사용된 것은 나무껍질, 삼 부스러기, 닥마, 그물 등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식물 섬유를 사용해서 종이를 만든 최초의 기록이다. 이 종이는 곧 화제에게 진상되었으며, 화제는 채 윤의 노고를 가상히 여겨 채후지(蔡侯紙)라는 이름을 붙였다.

채후지를 만들어냄으로써 후세의 문화 발전에 획기적인 공헌을 한 채 윤은 그 후 정쟁(政爭)에 휘말려 음독 자살을 하고 말았다.



처 어 칠 (1874~1965)

—영국의 위대한 정치가—

윈스턴 레너드 처어칠은, 선조인 모올버러 공을 위해 국가에서 지어 준 옥스퍼드 부근의 블레넘 궁에서, 1874년 11월 30일에 태어났다. 그의 선조인 모올버러 공은 근대 유럽의 제일가는 명장

이라 불리는 존 처어칠로서, 도이칠란트의 서남부 지방에 있는 블레넘에서 프랑스 대군을 무찔러, 국왕으로부터 공작의 작위를 수여받은 명분이었다. 아버지인 랜돌프 처어칠은 보수당 내각의 재무 장관과 인디아 식민 장관을 역임한 정치가이고, 어머니는 《뉴우요크 타임즈》의 사장인 부유한 미국인의 딸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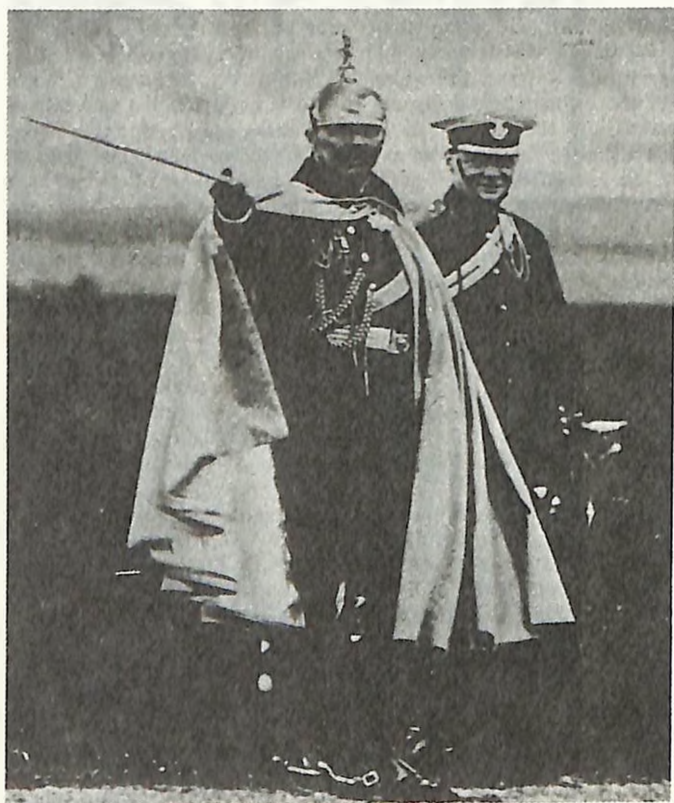
처어칠



어린 처어칠은 가정 교사 밑에서 공부하다가 14세 때, 귀족의 자제들만 다니는 해로우 학교에 들어갔지만, 그는 이곳에서 영어를 쓰는 것 이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배우지 않았다고 한다.

1894년, 샌드허스트에 있는 육군 사관 학교를 졸업한 처어칠은 기병 장교가 되어, 인디아에 배속되었다. 이 때 특별 허가를 얻어, 에스파니아 군과 합동으로 쿠바 내란을 진압하고, 아프리카의 수단 전쟁에도 참전했다. 그는 전쟁이 한창일 때 자신이 참전한 전투의 상황을 눈앞에 보듯 생생하게 묘사한 전쟁 수기를 신문에 연재했다.

그는 어려서부터 뛰어난 재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전



도이칠란트 황제 빌헬름 2 세와 함께 도이칠란트 군의 사열을 받는 윈스턴 처어칠(1911)

쟁 수기는 대단한 인기를 끌게 되어, 후에 그는 이것을 두 권의 전기(戰記)로 펴냈다.

마침내, 군복을 벗은 처어칠은 새로운 야망을 가지고 정치와 문학 방면에 투신하게 되었다. 그 후, 남 아프리카에서 보어 전쟁이 일어나자, 그는 《모오닝 포우스트》지의 특파원으로 아프리카에 중군했다. 그러나, 얼마 되지 않아 보어인에게 포로가 되었다가, 기회를 노려 탈출하는 데 성공하여 일약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다.

아프리카에서 귀국한 처어칠은 그 인기를 바탕으로 하여, 1900년 영국의 북부 지방인 오울드햄에서 보수당의 하원 의원에 당선,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그러나, 보수당의 보호 관세 정책에 반대하여 그는 당적을 자유당으로 옮긴 후, 로이드 조오지 내각에서 식민 차관, 상무원 총재, 내무 장관 등을 역임했다. 1911년, 37세의 젊은 나이로 해군 장관에 임명된 처어칠은 그 무렵 절박한 국제 정세를 재빨리 통찰하고, 만약을 대비하여 해군력을 증강시켰다.

마침내, 제 1 차 세계 대전이 벌어졌지만, 미리 전쟁 준비를 완전히 끝내고 있던 처어칠은 이에 대해 별로 놀라지도 않았다. 그리하여, 도이칠란트와의 전쟁에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다다넬즈 작전에 실패했고, 그는 그 책임을 지고 장관직을 사임한 후, 일개 연대장으로서 전쟁터에 나갔다.

그러나 1917년, 로이드 조오지 수상은 다시 처어칠을 불러들여 군수 장관에 임명했다. 그리하여, 제 1 차 세계 대전 때 영국을 구제한 사람은 바로 처어칠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그는 군수 장관으로서 커다란 공적을 쌓았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그는 육군 장관과 공군 장관을 역임하

고, 나중에 식민 장관이 되었다.

그러다가 보수당의 로이드 조오지 내각이 붕괴한 후, 세 번이나 선거에 패배한 처어칠은 한때 정계에서 발을 떼고, 집에서 회고록을 집필하고 그림도 그리며 조용하고 한가로운 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1924년, 소련에 대한 반감과 고조되는 노동 운동 등으로 위급해진 정세를 방관할 수 없어, 그는 다시 정계에 뛰어들었다. 1925년, 보수당 내각의 재무 장관에 임명된 그는 자유 무역주의를 주장하고, 구평가(舊評價)에 의한 금본위제를 시행했다. 또한, 그는 노동자들의 동맹 파업에 대한 탄압 정책을 강력히 주장하여, 노동 운동가들로부터 적대시당하기도 하였다.



도이칠란트의 공습
으로 파괴된 하원 안
을 돌아보는 윈스턴
처어칠



그 후 1931년, 그는 인디아 문제에 대해 <간디에게 항복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연설을 하고 장관직을 사임한 후, 또다시 저작과 그림그리기로 세월을 보냈다. 1929년의 내각 사직 후, 그는 10여 년 동안 보수당 반주류의 입장을 지키며, 1931년의 거국 내각에도 입각하지 않았다. 그의 정치적 견해 차이는, 첫째 그 당시 초당파적인 국가 정책으로 간주되던 <인디아 자치론>의 반대에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외교면에서 대(對) 도이칠란트 강경론을 주장한 데에 있었다.

1930년대를 통해, 국제 연맹의 역할에 기대를 걸고 평화를 부르짖는 국민적 감정을 뒷받침으로 하여, 보수당 주류는 도이칠란트의 나찌즘, 이탈리아의 파시즘을 공산주의에 대한 방파제로 삼으려고 그들과 유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에 처어칠은, 나찌스 도이칠란트의 군사력이 영국의 안전에 대단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며, 군비의 뒤떨어짐을 강력히 규탄했다.

그리고 그는 영국, 프랑스, 소련의 동맹을 호소했다. 그의 철두철미한 이념상의 반소 정책은 조국의 안전 확보라는 지상 명령 때문에 할 수 없이 양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이러한 그를 사람들은 <권력 정치적 유화론자>라고 일컫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그의 주장은 제 2 차 대전이 임박해지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다.

1939년, 마침내 제 2 차 세계 대전이 일어났다. 처어칠은 또다시 체임버얼린 내각의 해군 장관으로 임명되어, 도이칠란트의 히틀러라는 강대한 적을 맞아 싸우게 되었다. 이듬해, 수상이 사망하자 그는 그의 뒤를 이어 대영 제국의 수상이라는 책임과 영광의 최고 권좌에 오르게 되었다.

처어칠은 새로운 수상으로서 하원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연설을 했다.

“나는 국민 여러분에게 피와 수고와 땀, 그리고 눈물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우리의 정책이 무엇이나고 묻는다면, 바다와 육지와 공중에서 우리의

알타 회담 때의 윈스턴 처어칠(오른쪽에서 두 번째)



80회 생일을 맞은
처어칠 경(卿)과 그
의 부인(1954)



최선을 다해 싸우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단연코 <승리>라는 이 한 마디로 대답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처어칠은 미국의 루우스벨트 대통령, 소련의 스탈린 수상 등과 협력하여, 영국 국민을 이끌고 힘에 벅찬 전쟁을 수행했다. 그리고, 연합군을 승리로 이끄는 데 커다란 공로를 세웠다.

1945년, 총선거가 실시되어 처어칠을 당수로 한 보수당은 노동당에게 패배하여, 수상직에서 물러났다.

하야(下野)한 후에도, 처어칠은 야당의 수령으로서 노동당에 공격의 화살을 멈추지 않았고, 국제 정치에 있어서는, <철의 장막>이라는 조어(造語)로써 유명한 반소 연설을 하여 냉전의 전조가 되었다.

1951년, 다시 수상이 되었지만, 수상직을 이든에게 물려주고 마침내 정계에서 은퇴한 후, 1965년, 90 평생의 기나긴 생애를 마쳤다.

그는 《제 2 차 세계 대전 회고록》으로 1953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또 화가로서도 이름을 날렸다.



拓 俊 京 (? ~1144) 척 준 경

—여진족을 정벌한

고려의 무신—

집이 가난하여 학문을 배우지 못한 척 준경(拓俊京)은 일정한 직업도 없이 시중의 무뢰배들과 어울려 떠돌아다니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좋은 척 준경은 우연한 기회에 계림공(鷄林公 : 뒤의 숙종)의 휘하에 들어가 종자(從者)로 일을 하게 되었다.

배운 것은 없으나, 무슨 일이든지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처리해 내는 성격인 척 준경은, 1104년(숙종 9) 평장사(平章事) 임간(林幹)을 따라 여진족 정벌에 나가 공을 세웠다. 그리고, 1107년(예종 2)에는 17만 대군을 이끌고 여진족을 정벌하러 출정하는 윤관(尹瓘)을 따라 참전하여 영주(英州) 싸움에서 대승하였으며, 또 길주(吉州) 싸움에서도 많은 여진족을 생포하여 큰 공을 세웠다.



그리하여, 1117년에는 서북면 병마부사(西北面兵馬副使)가 되었으며, 1119년에는 동북면 병마사(東北面兵馬使)로 승진하였고, 1123년(인종 1)에는 참지정사(參知政事)를 거쳐 문하 시랑 평장사(門下侍郎平章事)에 이르렀다.

이렇듯 출중한 무예로써 입신 출세하게 된 척 준경은, 당대 세력을 쥐고 있던 이 자겸 일파와 가까이 지내게 되었다.

당시 이 자겸은 딸 둘을 인종의 왕비로 바쳐 외척 관계를 맺고, 자기의 가족을 요직에 앉히고 남의 토지를 강탈하며, 걸핏하면 임금을 협박하는 등 방자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이에, 인종은 차츰 그를 미워하게 되었는데, 이 기색을 알아차린 내시 김 찬(金燦) 등이 상장군 최 탁과 결탁하여 이 자검을 제거하기로 하고 군사를 일으켰으나, 도리어 이 자검과 척 준경에게 패하고 말았다.

그리하여, 입장이 난처해진 인종은 궁지에 몰리게 되었고, 이 자검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다.

그러던 중 인종은, 이 자검과 척 준경의 사이가 벌어진 기회를 이용하여 척 준경을 포섭, 이 자검을 귀양 보내는데 성공하였다.

그 공으로, 척 준경은 위사 공신(衛社功臣)의 호를 받고 문하 시중(門下侍中)에 올랐으나, 얼마 후 정언(正言) 정 지상이 전날 이 자검의 난 때 척 준경이 군사를 이끌고 대궐을 침입한 사실을 들어 탄핵함으로써 유배되어, 그 곳에서 병으로 죽었다.



체 호 프 (1860~1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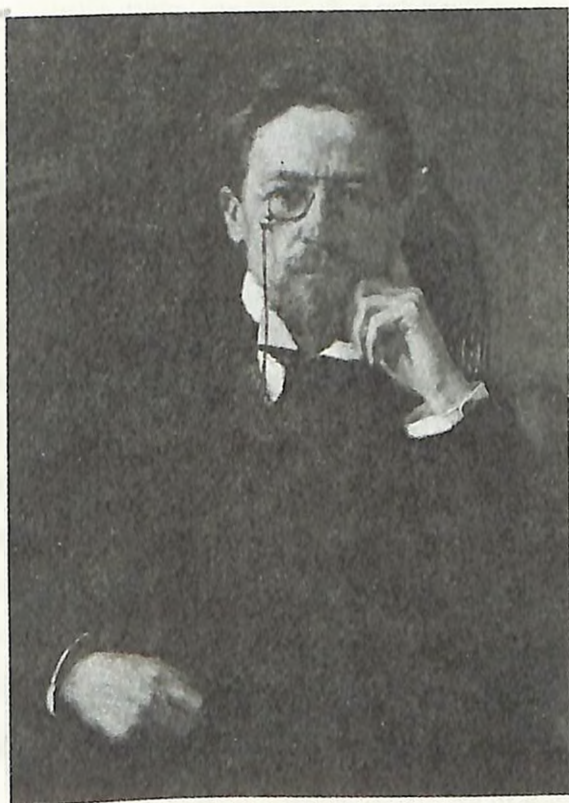
— 비관적 리얼리즘의 작가 —

안톤 파블로비치 체호프는 남 러시아 아조프 해안의 항구 도시인 타간로그에서, 식품 잡화상을 경영하는 아버지와 양복점 집 딸인 어머니 사이에서 5남 2녀 중 3남으로 태어났다.

체호프의 할아버지는 농노였으나, 돈으로 몸값을 지불하고 농노 해방 20년 전인 1841년에 자유의 몸이 되었다. 즉, 돈으로 자유를 산 집안이었다.

체호프의 아버지는 예술적 재능이 있어서 그림도 그렸고 바이올린도 켜다. 그뿐만 아니라 점원들을 모아 사설 성가대도 조직했는데, 체호프는 7세 때부터 10년간 이 성가대

체호프





모스크바 교외의
멜리호보에 있는 체
호프가 살던 집

의 알토로 참가해서 일했다. 이 때의 체험은 어린 체호프에게는 지나친 과로로 고통을 주었지만, 후에 그의 작가 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한다.

체호프는 9세 때, 8년제인 타간로그 고등 학교에 입학했다. 그러나, 그 학교를 졸업하는 데는 10년이 걸렸다. 그것은 성가대 연습도 해야 하고 아버지를 도와 가게 일도 보아야 했기 때문에,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할 수 없었으므로 두 번씩이나 낙제를 했기 때문이다.

1876년, 체호프 일가는 파산하여 모스크바로 이주했으나, 그는 남아서 가정 교사 노릇을 하면서 3년 동안이나 자급자족했으며, 1879년에는 대학 입학 자격을 얻어 모스크바로 옮겨 가서 모스크바 대학 의학부에 입학했다.

이 때부터 체호프는 가게를 돕기 위해 유우머 잡지나 신문에 <안토샤 체혼테>라는 필명으로 단편 소설을 썼다. 그는 이렇게 초기의 습작 시기를 보냈는데, 현재 남아 있는 그의 첫 작품은 1880년 3월에 주간지 《잠자리》에 실린 풍자적인 작품이다.

2년 후인 1882년에, 우연한 기회에 페테르스부르크의 주간지 《단편(斷片)》의 정기 기고자가 되어 콩트, 일화, 스케치, 단편 소설 등을 맹렬한 스피이드로 써냈고, 그 밖에 신문, 잡지 등에 1886년까지의 거의 4년 동안에 무려 5백여 편의 작품을 발표했다.

1884년에 대학을 마쳤으나, 전공인 의학보다는 문학 쪽에 더욱 힘을 기울이게 되었다. 이듬해, 페테르스부르크에 나아가 신진 작가로서 대환영을 받았고, 문단의 대가 그리고로비치와 알게 됨으로써 작가로서의 자각과 책임을 느끼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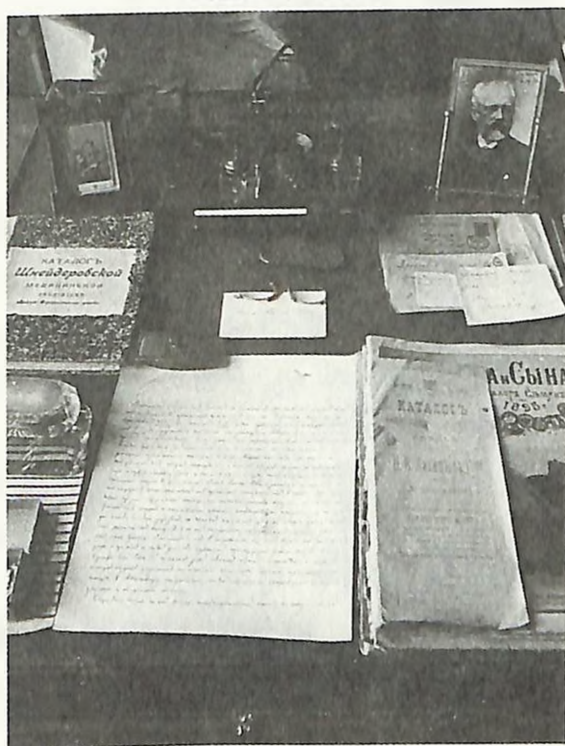
1886년, 그리고로비치로부터, 재능을 낭비하지 말고 작품(장편)을 쓰라는 충고

를 받고, 그 동안의 자신을 반성하였다. 그 성과로 1887년에 희곡 《이바노프》를 썼고, 1888년에 중편 《광야》를 냈으나, 작품의 무경향을 비난받았다.

그 해 다시 《초원》을 발표하여 호평을 받았고, 《황혼》으로 푸시킨 상을 받았다.

그의 문체는 이때에 확립되었는데, 일관된 간결성, 객관

체호프의 유품들





성은 그의 작품의 특징을 이루고 있다. 체호프만큼 주관적 요소를 거부한 작가도 드물다. 이러한 태도가 독자로 하여금 그의 작품에서 때로는 희극적이고 때로는 냉소적인 인상을 받게 하는 듯싶다.

1880년경부터 체호프는 악에 대한 무저항, 육체 노동에의 참가라든지 생활의 간소화 등을 주장하는 톨스토이적 사상에 강하게 끌리게 되어 그런 영향으로 인한 작품도 몇 편인가 썼으나, 몇 년 후에는 톨스토이주의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신적 방황을 경험하는 한편, 1889년에 중편 《따분한 이야기》와 희곡 《바나 아저씨》를 완성했으나, 《바나 아저씨》의 상연은 평이 좋지 않아 자신의 재능에 대한 회의론을 가져왔고, 더구나 대학 졸업 때부터 징후를 보이던 폐결핵의 악화와 가정에서의 여러 가지 불화 등으로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다.

1890년(4월~12월)에 있었던 사할린에의 여행은 이러한 정신적 위기에서의 탈출을 위한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그 해 4월에, 체호프는 친구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신 마차로 시베리아를 횡단, 사할린으로 유형지 실태 조사 여행을 감행하여, 3개월에 걸쳐 1만여 명의 유형수 및 주민들의 신상 조사서를 작성했고, 귀로에는 동지나해, 태평양, 수에즈, 오데사를 거쳐 12월에 모스크바로 돌아왔다. 이 경험은 《시베리아 여행》과 그 후의 《사할린 섬》에서 결정을 보았다.

이 대모험을 경계로 톨스토이의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는 다작의 시기를 맞이하게 된다.

체호프는 1892년에 모스크바 남쪽에 있는 멜리호보라는 곳에 별장을 사서 가족과 함께 이사했다.

그 곳에서 6년



동안 살며 비로소 창작에 전념, 작가로서의 원숙기를 맞이해 역작을 잇달아 내놓았다. 1891년의 《결투》, 1892년의 《6호실》, 1895년의 단편 《중간 이층이 있는 집》 《상자 속의 남자》, 희곡 《갈매기》, 1898년의 《귀여운 여인》, 1899년의 《개를 데리고 있는 부인》 《골짜기》 등이 이 시기를 통하여 보여 준 그의 걸작들이다.

한편, 체호프는 이 멜리호보 시기에 폐결핵이 재발했음에도 구애받지 않고 콜레라의 예방과 기근의 구제 사업에 몰두했고, 두 차례에 걸친 유럽 여행을 통하여 톨스토이나 고르키와도 사귀게 되었다.

1897년, 체호프는 모스크바에서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심한 객혈을 했다. 이 때부터 본격적인 요양 생활을 시작했다. 이듬해에, 체호프는 아버지가 사망한 것을 계기로 기후가 따뜻한 크림 반도에 가서 영주(永住)하기로 결심하고, 6년간 살던 멜리호보의 별장을 떠나 알타로 옮겼다.



체호프의 만년은 불치의 병에 좀먹혀 들어가는 불행한 시기였으나, 이 시절의 생활은 그 때까지와 못지 않게 다채롭고 충실한 것이었다. 특히 희곡 《갈매기》의 상연을 계기로 맺어진 모스크바 예술 극장주와의 밀접한 우정과 톨스토이 및 고르키와의 교우가 이 시기에 체호프의 생활을 밝게 해 주었다.

또한 이 알타 시절은 체호프의 대표작인 희곡 《갈매기》《바나 아저씨》《세 자매》《벚꽃 동산》 등이 모스크바 예술 극장에서 각광을 받아, 극작가로서의 그의 이름이 높아진 시절이기도 하다.

특히 희곡 《세 자매》《벚꽃 동산》, 단편 《약혼녀》는 이러한 악화되어 가는 병세와의 무서운 투쟁 가운데서 끈기 있게 집필된 것이다.

그는 1901년에 모스크바 예술 극장의 여우(女優) 올리가와 결혼했으나 남편은 알타에, 아내는 모스크바에 있어 함께 지낸 시기는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 앞으로 보낸 그의 편지는 문학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지닌다.

체호프는 1904년, 그의 창작 생활 25주년의 축하를 위한 《벚꽃 동산》의 초연에 참석한 이후 더욱 건강이 악화되어, 그 해 6월에 아내 올리가와 함께 도이칠란트의 온천장 바덴바일러로 전지 요양을 떠났으나, 그 해 7월 2일, 아내가 지켜 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 44세의 생애였다.

체호프는 자기의 죽음마저도 냉정하게 ‘나는 죽는다.’라고 표현했다고 한다. 체호프는 세기말에서 세기 전환기에 걸친 회색 시대를 배경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행위를 통해 그 어리석음, 허무함, 무의미함, 그리고 실현되지 않는 몽상을 일관해서 묘사하고 있다.

그의 초기의 작품에서는 풍자적이고, 사회의 구석에 몰린 초라한 사람들에 대한 동정을 보이는, 이른바 리리시즘을 기조로 한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인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그의 신조였다. 그리고, 후기에 이루어진 《갈매기》《세 자매》《벚꽃 동산》 등은 그의 작품 세계를 웅변으로 대표하는 희곡들로서, 후기 단편 소설에서 추구한 주제인 회의나 절망에 빠져 버리는 허약함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하고 복종시키는 강인한 정신력을 집대성한 것으로 높이 평가되고 있다.

즉 《세 자매》에서 보여 준, 찬란한 꿈이 하나의 추한 현실로 바뀌지만, ‘하지만 우리의 지금의 불행은 후에 사는 사람들의 기쁨으로 변하여 행복과 평화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니……!’ 라는 말로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崔 南 善
최 남 선 (1890~1957)

—한국 신문학의 선구자—

최 남선은 서울에서 한약방을 경영하고 있던 최 헌규의 아들로 태어났다. 어릴 때 이름은 창흥(昌興), 자는 공륙(公六), 호는 육당(六堂)이다.

어려서부터 글재주가 뛰어나, 12세 때에 이미 《황성 신문》에 투고하여 글을 실었으며, 15세 때에는 황실 유학생으로 일본 부립 중학교에 유학했으나, 민족적인 울분 때문에 3개월 만에 되돌아왔다.

1906년 17세 때에는 다시 일본에 유학하였으나 그 이듬해인 1907년에 모의국회 사건으로 인하여 퇴학을 당하고 말았다.

최 남선



고국에 돌아온 그는 신문관(新文館)이라는 출판사를 창립하고, 1908년에는 우리 나라 최초의 종합 잡지인 《소년》을 창간하였다. 이 《소년》지에 새로운 형식의 자유시인 《해(海)에서 소년에게》를 발표했으며, 이 광수의 계몽적 소설을 실어 우리 나라 근대 문화의 선구적 역할을 하고, 서양 문화와 과학에 관한 지식을 소개하여 민중을 깨우쳤다.

그러는 한편, 안창호와 손잡고 청년 운동을 벌이면서 1909년에는 광문회를 창설하여 우리 나라의 옛 문헌을 보존하기 위해 우리 나라의 고전 20여 종을 모아 육전 소설(六錢小說)을 펴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의 계몽 운동과 신문화 운동에 힘썼으나, 그 때문에 창간된 지 4년 만에 조선 총독부에 의해 《소년》이 폐간되었다. 또, 1913년에 《아이들 보이》를 창간했으나, 이듬해 다시 폐간되었고, 1915년에는 월간지 《청춘》을 창간했으나, 이것 역시 일제의 박해로 인하여 1918년에 폐간되고 말았다.

이렇게 끊임없는 박해를 받던 중 1919년을 맞았다. 최남선은 손병희와 접촉하면서 유명한 3·1 운동 선언문을 기초(起草)하는 등 민족 대표 48인 중의 한 사람이 되어 활약하다가 2년 6개월의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치렀다.



《소년》지 창간호

옥에서 풀려나자 최 남선은 다시 출판사 동명사(東明社)를 세우고 주간지 《동명》을 발행하는 한편, 국사 연구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동명》마저 조선 총독부의 방해로 1923년에 폐간되고 말았다.

그러나, 이같은 민족 운동과는 달리, 1943년부터 그는 이 광수, 김 연수 등과 함께 일본에 있는 우리 유학생들에게 학도병으로 군대에 입대하라는 연설을 하여, 해방된 뒤에는 친일파로 몰려 옥살이를 치르기도 하였다.

청년 시절 우리 나라 신문학 선구자로서 많은 공헌을 하였고, 3·1 운동 때 33인의 한 사람으로서 옥살이까지 한 그가 일제 말기에 일제에 협력한 것은 애석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의 업적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1957년 10월 10일에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으나, 서울 우이동에 있는 그의 집 소원(素園) 뜰에는 기념비가 서 있어, 그 날의 최 남선을 기리고 있다.





崔 鳴 吉 (1586~1647) 최 명 길

— 병자호란 때의 화평론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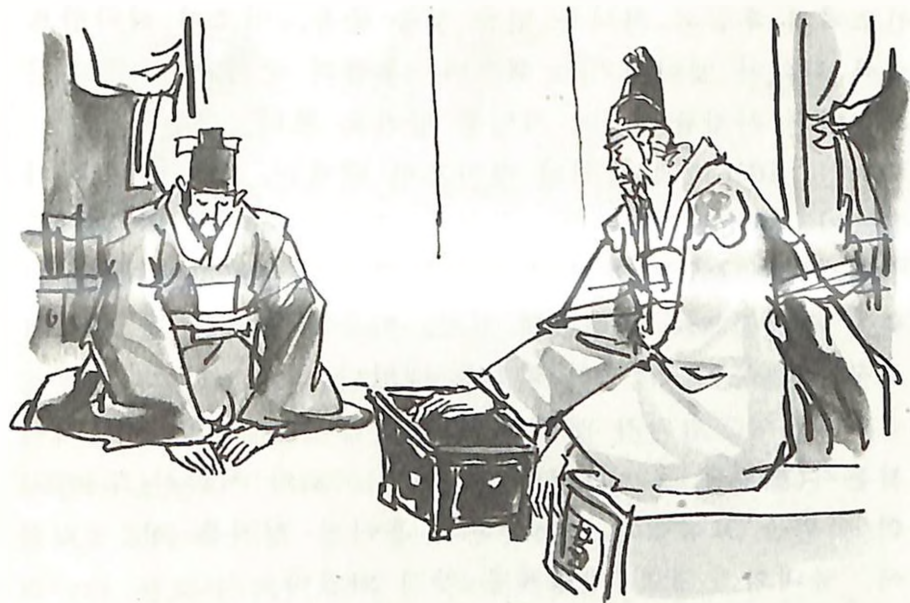
조선 시대의 대학자 이 항복(李恒福)의 문하생으로, 성균관 유생이었던 최 명길(崔鳴吉)은 인조 때의 문신이다.

1605년(선조 38) 문과에 급제한 후, 승문원(承文院)을 거쳐 성균관의 학생을 지도하는 직책인 예문관 전적(典籍)을 지냈다.



1614년, 그는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이며 영창 대군의 어머니인 인목 대비를 유폐하려 할 때, 그 기밀을 누설했다는 누명을 쓰고 파직되어 경기도 가평으로 귀양을 가는 몸이 되었다.

그 곳에서 그는 조익, 장유, 이시백 등과 교유하며, 당시 이단시되던 양명학(陽明學: 명나라의 왕 양명이 주자학



에 반대하여 주장한 철학)을 연구하느라고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던 중, 광해군의 폭정으로 나라가 점점 어지러워지
매, 1623년 이 귀, 김 유, 이 팔 등이 힘을 모아 광해군을
폐하고 인조를 옹립하였는데, 최 명길은 이 때 서인(西人)
의 한 사람으로서 인조 반정에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최 명길은 약 10년에 걸친 야인 생활을 청산
하고 대궐로 복귀하여, 정사 공신 1 등이 되고 완성군(完
城君)에 봉해졌다.

1625년에는 부제학(副提學)이 되어, 대동법(大同法)을 시
행하자는 여론이 있자, 호패법을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여 호패청 당상으로 이를 관장했다.

그 후, 1627년 후금(後金 : 뒤의 청나라)의 아민(阿敏)이
인조 반정의 부당성을 내세우고 3 만여 명의 군사로 침입해
오자(정묘호란), 인조를 호위하여 강화로 피난하였다. 그는

인조에게 후금과 화의를 맺을 것을 종용, 인조가 허락함으로써 화의가 맺어지기는 했으나, 후금의 군사들이 돌아간 후,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다.

또한, 1636년에 일어난 병자호란 때에는, 청나라 군사가 인조가 피난해 있는 남한 산성을 포위하자, 조정은 주전론 일색이었으나, 최 명길 혼자만이 화의를 주장하였으며, 정세가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자, 이듬해 인조는 청 태종의 요구 조건을 들어 주어 화친을 맺었다.

그리하여, 화의가 맺어진 뒤, 최 명길은 좌의정이 되어 사은사(謝恩使)로 청나라에 오가며 포로와 척화신(斥和臣)의 귀환을 교섭했고, 난리 후의 흩어진 정사를 잘 정리하여, 국내외가 점점 안정세를 찾게 되었다.





^崔최 ^茂무 ^宣선 (? ~1395)

— 화약을 발명한 사람 —

영주(지금의 영천) 사람으로, 광흥창사(廣興倉使)인 최 동순의 아들로 태어나, 일찍부터 병법, 화기에 대한 연구 심이 깊었다. 고려말은 왜구의 준동이 심하였으므로, 이를 무찔러 소탕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화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화약에 대해 연구하고 골몰하는 한편, 각지를 돌아 화약의 원료가 되는 광물을 조사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원나라 사람으로 이 원(李元)이라는 화약 기술자가 우리 나라에 건너온 것을 알고, 그를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하여 화약의 제조법과 그것을 발사하는 기구와 기술을 배워 자신을 얻었다. 그러나, 이를 충분히 실험을 하고 대규모로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나라에서 계획을 세워 추진해야 하므로 몇 번이나 건의를 했으나, 처음에는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가, 1377년(우왕 3)에야 화통도감(火桶都監)이라는 기관을 설치하여, 최 무선을 제조(提調)로 임명하였다.

이제는 물자나 인력이 얼마든지 있고, 요란스러운 소리가 나도 저것이 무슨 소리냐고 반대하는 이가 없었으므로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최 무선이 연구한 과정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알지 못하나, 만들어 낸 포환(砲丸)의 종류만 하더라도 대장군, 이장군, 삼장군, 육화, 석포, 신포, 화통, 철령전, 질레포, 철탄자, 천산오룡전, 유



화, 주화, 축천화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고 하며, 그것들이 모두 어떤 것이었는지 그 뜻으로 보아 어느 정도는 짐작이 된다.

그리고, 이러한 화기를 왜구와의 해전에서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전함(戰艦)에도 적절한 장비를 갖추는 필요가

있으므로, 그것도 최 무선이 설계를 해서, 탄자(彈子)를 실을 공간, 화포를 얹을 대탑(臺塔), 발사에 견딜 만큼 튼튼한 갑판을 만들었다.

드디어 실전에서 그 힘을 증명할 때가 왔다. 1380년(우왕 8), 300척이나 되는 왜선이 서남 해안에 나타나자, 이를 진포(금강 입구)에서 맞아 보기 좋게 격파하였다.

그러는 동안에 시대가 조선으로 바뀌자, 최 무선은 이미 연로하여 등용되지 않고, 이 태조(李太祖)는 화포 같은 위력을 지닌 병기가 남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염려하여 그 이상 발달시키지 않았다. 최 무선은 실전의 광경을 그린 그림 한 폭과 화약 및 화포 만드는 비법을 기록해서, 아직 나이 어린 아들에게 뒷일을 부탁하고 1395년 운명했다. 아들 해산(海山)은 아버지의 뜻을 이어, 장성하여 군기 소감이 되었다.

칼라판 / 소년소녀

위인전기 50

퀴리 부인



개정신판 인쇄 1982년 9월 20일
개정신판 발행 1982년 9월 30일

글쓴이	오	영	석
발행인	김	락	준
발행처	금	성	출판사

서울시 마포구 공덕동 242의 63
등록 1965. 10. 19 제 2-63호
전화(713)9651~8 우편번호 121

제 판	삼화인쇄 주식회사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일칼라
인쇄	삼화인쇄 주식회사 평화당인쇄 주식회사 광명인쇄 공사
제 책	삼화인쇄 주식회사 제책부 당산산업 주식회사
제 지	계성제지 주식회사

정가 3,000 원

(본사는 출판윤리 강령을 준수함)

위인전기

소년소녀

전 64 권

- | | | |
|------------|------------|------------|
| 1 김 유 신 | 23 이 순 신 | 45 주 시 경 |
| 2 그 리 스 도 | 24 다 아 원 | 46 난 셴 |
| 3 원 효 대 사 | 25 허 준 | 47 김 구 |
| 4 클 롬 부 스 | 26 리 빙 스 턴 | 48 쏜 윈 |
| 5 고 선 지 | 27 박 지 원 | 49 안 창 호 |
| 6 갈 릴 레 이 | 28 밀 레 | 50 퀴 리 부 인 |
| 7 장 보 고 | 29 김 홍 도 | 51 안 중 근 |
| 8 뉴 우 틴 | 30 휘 트 먼 | 52 라이트 형제 |
| 9 최 치 원 | 31 정 약 용 | 53 한 용 운 |
| 10 페스탈로찌 | 32 나이팅게일 | 54 간 디 |
| 11 왕 건 | 33 김 정 희 | 55 신 채 호 |
| 12 모 짜 르 트 | 34 파 스 퇴 르 | 56 시 바 이 짜 |
| 13 문 익 점 | 35 김 정 호 | 57 홍 난 파 |
| 14 나 폴 레 옹 | 36 파 브 르 | 58 아인슈타인 |
| 15 세 종 대 왕 | 37 홍선대원군 | 59 방 정 환 |
| 16 베 에 토 벤 | 38 톨 스 토 이 | 60 헬 렌 켈 러 |
| 17 장 영 실 | 39 김 대 건 | 61 유 관 순 |
| 18 슈 베 르 트 | 40 노 벨 | 62 마리안 앤더슨 |
| 19 이 황 | 41 김 옥 균 | 63 윤 동 주 |
| 20 안 데 르 셴 | 42 에 디 슨 | 64 케 네 디 |
| 21 신 사 임 당 | 43 전 봉 준 | |
| 22 링 컨 | 44 고 호 | |



조선의 명필
33 김 정 희



세균학의 창시자
34 파 스토르



《대동여지도》를 만든
35 김 정 호



곤충학자
36 파 브 르



조선 말기의 풍운아
41 김 옥 균



발명왕
42 에 디 슨



동학 혁명의 지도자
43 전 봉 준



정열의 화가
44 고 호



항일 독립 운동가
49 안 창 호



뛰어난 물리학자
50 퀴리 부인



항일 순국 의사
51 안 중 근



비행기의 발명자
52 라이트 형제



민족 음악가
57 홍 난 파



천재 물리학자
58 아인슈타인



영원한 어린이의 벗
59 방 정 환



여류 교육가
60 헬렌 켈러



조선 만기의 거목
37 홍선 대원군



러시아의 문호
38 톨스토이



한국 최초의 신부
39 김 대건



노벨상을 낳은 과학자
40 노 벨



국어학의 선구자
45 주 시 경



북극 탐험가
46 남 센



한일 독립의 혁명가
47 김 구



중국 독립의 아버지
48 손 원



한일 민족 시인
53 한 용 운



인디아 독립의 아버지
54 간 디



민족의 사상가
55 신 채 호



밀림의 성자
56 시바이쩌



한일 순국 소녀
61 유 관 순



흑인 가수
62 마리안 앤더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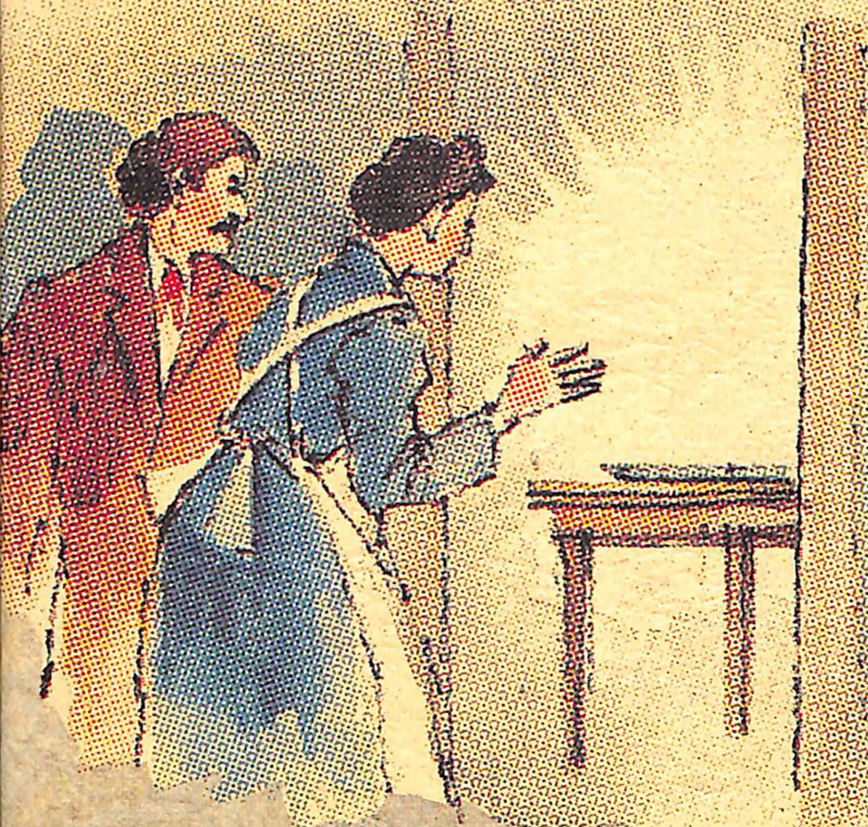
저항 문학의 시인
63 윤 동 주



뉴우 프런티어의 기수
64 케 네 디

소년소녀 위인전기 50 퀴리 부인

특집 부록 : 학습 역사 인명 사전



경주출판사